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항공문학상은 항공을 소재로 한 문학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항공의 의미 있는 가치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동시포함), 소설(단편 · 중편), 수필(수기포함)을 포함한 세 개의 공모부문으로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뉘어 온라인 작품 접수를 받아 총 723명이 참가하였고, 1,656편의 문학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학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1차(예심), 2차(본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최종 41명의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공모부문별 수상내역

– 시(동시포함)부문 : 21명(일반부 최우수상(1), 우수상(1) / 중고등부 우수상(2) / 초등부 최우수상(1), 우수상(16명))
– 소설(단편 · 중편)부문 : 4명(일반부 대상(1), 우수상(1) / 중고등부 우수상(1) / 초등부 장려상(1))
– 수필(수기포함)부문 : 16명(일반부 우수상(2) / 고등부 최우수상(1), 우수상(1) / 초등부 우수상(12))

일반부 대상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유럽 또는 미주(장거리) 왕복 항공권(2매)이 수여되고, 또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입회자격이 특전사항으로 부여됩니다.

그 외 수상자에게는 시상내역에 따라 각 기관별 상장과 상금, 부상으로 동남아 왕복항공권 또는 국내 왕복항공권, 도서상품권 등이 각각 수여됩니다.

발행일 | 2017년 12월 22일

펴낸곳 | 한국항공협회 **www.airtransport.or.kr**
Tel. 02. 2669. 8700 Fax. 02. 2669. 5590

주최 주관 : 한국항공협회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

후원 :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Incheon Airport 인천국제공항공사 · KOREAN AIR · ASIANA AIRLINES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CONTENTS

소개	최종 수상자 명단	6–7
	심사총평	9
	공고부문별 심사평	
	• 소설부문	11
	• 수필부문	13
	• 시부문	15

일반부

대상	소설	디톡스 여행 _ 김성금	21
최우수상	시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 _ 이정민	55
우수상	수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_ 한아름	59
	소설	히말라야 로터스 _ 권갑점	65
	시	플라잉 타임 _ 김형미	115
	수필	아엡실론의 창공 이데아 _ 염동렬	116

중 고등부

최우수상	수필	옆자리 _ 조유리	125
우수상	시	여름으로 떠나요 _ 이다겸	133
	소설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이탈리아 여행) _ 진규	134
	수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 _ 김찬휘	146
	시	비행기의 삶_ 이소현	152

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초등부

최우수상	시	비행기가 주는 선물 _ 김한겸	157
우수상	수필	안내방송 _ 이하람	161
	시	첫 번째 비행기의 기억 _ 형대영	162
	수필	싱가포르 여행기 _ 안규리	163
	시	구름 위에서 _ 서민기	166
장려상	소설	프랑스 파리로 가는길 _ 이유성	169
	시	비행기는 좋겠다 _ 이연경	171
	수필	내 여행은 0도씨 _ 박소현	172
	시	친구를 태우고 간 비행기 _ 이은채	174
	수필	나의 꿈, 나의 희망 _ 김요한	176
	시	첫 이륙 _ 전주희	178
	수필	하파데이~ 괌 _ 이수아	179
	시	또, 가고싶다~ _ 이태준	181
	수필	누나의 열 번째 생일 선물 _ 우현민	182
	시	최초의 비행기 _ 김나영	184
	수필	세부의 두 모습을 보여준 비행기 _ 정시현	185
	시	공포증 _ 양원정	187
	수필	처음 타본 비행기로 얻은 소중한 경험 _ 김호연	188
	시	수하물 찾는 곳에서 _ 안시은	196
	수필	탑승 5분 전 _ 김준서	197
	시	비행기가 그은 밑줄 _ 이도연	199
	수필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일 _ 한유희	200
	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_ 윤정원	203
	수필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_ 김민서	204
	시	비행기 _ 최보경	209
	수필	최고의 여행 _ 박준휘	210
	시	나의 첫 비행기 _ 심소은	212
	시	비행기 안에서 _ 정진영	213
	시	구멍 _ 신윤재	214
	시	비행기는 마술사 _ 강다현	215

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5회 항공문학상 최종 수상자 명단

최종 당선작 : 41편

○ 일반부(6편), 중고등부(5편), 초등부(30편)

구 분		공모부분	작품명	저자명	상장	상금 및 부상
일반부(6)	대상	소설	디톡스 여행	김성금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	–500만원 –유럽 또는 미주(장거리) 왕복 항공권(2매)
	최우수상	시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	이정민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200만원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우수상	수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아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사장 상장	–80만원 –국내왕복항공권 (각 1매)
		소설	히말라야 로터스	권갑점		
		시	플라잉 타임	김형미		
		수필	엡실론의 창공 이데아	염동렬		
중고등부(5)	최우수상	수필	옆자리	조유리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100만원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우수상	시	여름으로 떠나요	이다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사장 상장	–50만원 –국내왕복항공권 (각 1매)
		소설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 (이탈리아 여행)	진규		
		수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	김찬휘		
		시	비행기의 삶	이소현		
초등부(30)	최우수상	시	비행기가 주는 선물	김한겸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 30만원 (도서상품권 1매)
	우수상	수필	안내방송	이하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사장 상장	– 15만원 (도서상품권 각 1매)
		시	첫 번째 비행기의 기억	형대영		
		수필	싱가포르 여행기	안규리		
		시	구름 위에서	서민기		

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구 분		공모부분	작품명	저자명	상장	상금 및 부상
초등부 (30)	장려상	소설	프랑스 파리로 가는길	이유성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 5만원 (도서상품권 각 1매)
		시	비행기는 좋겠다	이연경		
		수필	내 여행은 0도씨	박소현		
		시	친구를 태우고 간 비행기	이은채		
		수필	나의 꿈, 나의 희망	김요한		
		시	첫 이륙	전주희		
		수필	하파데이~ 괌	이수아		
		시	또, 가고싶다~	이태준		
		수필	누나의 열 번째 생일 선물	우현민		
		시	최초의 비행기	김나영		
		수필	세부의 두 모습을 보여준 비행기	정시현		
		시	공포증	양원정		
		수필	처음 타본 비행기로 얻은 소중한 경험	김호연		
		시	수하물 찾는 곳에서	안시은		
		수필	탑승 5분 전	김준서		
		시	비행기가 그은 밑줄	이도연		
		수필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일	한유희		
		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윤정원		
		수필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김민서		
		시	비행기	최보경		
		수필	최고의 여행	박준휘		
		시	나의 첫 비행기	심소은		
		시	비행기 안에서	정진영		
		시	구멍	신윤재		
		시	비행기는 마술사	강다현		

제5회 항공문학상 심사 총평

항공문학상의 의의

• 심사위원장 : 문효치(시인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전쟁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지구촌은 긴장되고 사람들의 마음밭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다. 안으로는 지진 등 천재지변이 또한 우리를 삭막하게 하고 있다.

이런 때에 문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문학은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해 주며 내일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다독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항공협회가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항공문학상은 우리의 황폐해져 가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며 희망의 동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응모작의 대부분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비행이라는 행위를 제재로 삼아 새로운 세계, 혹은 신비의 체험을 펼쳐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답답하고 위축되고 혹은 불안하고 불만스런 현실을 떨쳐버리고 어딘가를 향해 날아올라 기상을 펼치는 꿈은, 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부어주는 묘한 힘이 있는 것일진대 이러한 글을 쓰고 또 읽는 이들은 당연히 어둠 속에 비치는 빛과 같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감동과 삶에의 에너지로 이어질 것이다.

시 · 소설 · 수필 3개 장르에 걸쳐 입상작들은 더욱 빛나는 작품들이었다. 대체로 견고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형식 속에 지은이의 정서나 의식, 관념들을 숙련된 솜씨로 펼쳐 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로의 비상을 꿈꾸는 순수한 서정, 비행 체험의 의미 있는 서사화, 삶에 대한 통찰과 사유의 전개 등 문학적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다.

입상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한국항공협회에도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제5회 항공문학상 「소설부문」 심사평

높은 수준, 뚜렷한 특색

• 심사위원 : 이광복(소설가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12편) : 「브로겐」, 「아크 라이츠」, 「굿바이 두바이」, 「인류 비행에 관한 네 개의 보고서」, 「에스코트」, 「생존의 이유」, 「하늘의 기억」, 「태워선 안 될 사람들」, 「디톡스 여행」, 「시뮬레이터」, 「히말라야 로터스」, 「웰컴 투 마이월드」

중 · 고등부(7편) : 「동행」, 「은깃」,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이탈리아 여행」, 「이코노미의 기적」, 「종이비행기의 꿈」, 「Over a white cloud」, 「내 인생의 종착지, 행복할 수 있을까」

초등부(1편) : 「프랑스 파리로 가는 길」

이들 작품을 정성 들여 읽고 입상 등위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오랜 고민이 필요했다. 작품의 수준이 높고 저마다 자기 나름의 특색이 뚜렷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일반부의 경우 「디톡스 여행」, 「히말라야 로터스」, 「에스코트」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디톡스 여행」은 창의력이 단연 돋보였다. 「히말라야 로터스」는 소재가 참신했고, 「에스코트」는 약간 호흡이 짧았다. 이들 작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결국 「디톡스 여행」을 대상으로, 「히말라야 로터스」를 우수상으로 밀었다.

중 · 고등부의 경우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이탈리아 여행」, 「은깃」을 놓고 끝까지 고심하다가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이탈리아 여행」을 우수상으로 선정했고, 초등부의 경우에는 예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프랑스 파리로 가는 길」을 장려상으로 결정했다.

입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며,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제5회 항공문학상 「수필부문」 심사평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유의 깊이로 천착

• 심사위원 : 지연희(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

제5회 항공문학상 응모 작품은 어느 해 보다 작품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생각이다. 항공문학상 시행 취지는 항공사업의 환경 및 세계를 여는 여행자의 폭넓은 문화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금년 항공 수필문학상 응모작품은 한층 문학적 이해와 언어표현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글이 많았다. 대부분 비행기와 관련된 기행수필 형식의 작품으로 주제를 선명히 하여 품격을 높이는 글이었다.

일반부 우수상으로 결정된 수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는 런던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일어난 사건들이 쉽지 않은 복선으로 엉키어 인생에 대한 통찰과 사유의 세계를 심도 높은 언술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반부 우수상 「엡실론의 창공이데아」는 수학적 존재의 가치로 수렴되는 엡실론으로의 화자가 노량진 고시 학원 임용고사 수험생 4수에 합격하고 꿈꾸었던 하와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성실한 청년의 삶을 내다보게 하는 감동어린 수필이다.

중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옆자리」이며, 우수상에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으로 선정되었다. 초등부 우수상에는 「안내방송」, 「싱가포르 여행기」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장려상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린다. 대부분 여행 중에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수필문학이라는 장르에 담겨져 꾸밈없는 참신한 언어로 표현되었다. 작년 심사평에 문학적 소양을 길러 주셨으면 주문했었다. 때문인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유의 깊이로 천착해준 글들이 많았다. 다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만나고 더 큰 역량으로 문학적 지평을 넓혀주시기 기대한다.

제5회 항공문학상 「시부문」 심사평

항공체험의 활달한 묘사

• 심사위원 : 문효치(시인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예선에서 뽑혀 올라온 작품들은 대체로 나름의 개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치열한 경쟁으로 각박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도 순결한 꿈을 키우고 순연한 정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편편마다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나라 어딘가에서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시를 붙들고 열심히 자기 연마와 순결한 이상을 그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 뿌듯함을 금할 수 없다.

일반부 최우수상으로 뽑힌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지은이의 상상적 세계가 잘 그려져 있다. 안정감 있는 포즈로 생각의 줄기들을 견고한 구조 속에 잘 간추려 넣었다. 우수상의 「플라잉 타임」도 '불면의 허공뿐'인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비상을 조탁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중고등부 우수상으로 뽑힌 「여름으로 떠나요」 역시 '나무 가득 꿈이 열리는 그곳'을 향한 꿈의 비행이 활달하고 천진스런 필치로 그려져 있고, 다른 우수상의 「비행기의 삶」은 자신의 의식과 정서를 비행기에 이입시킨 솜씨가 뛰어난 작품이다.

초등부 최우수상인 「비행기가 주는 선물」은 비행기를 타는 어린이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며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는 어린이의 티 없이 맑은 심사가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우수상의 「첫 번째 비행기의 기억」은 비행기를 처음 타는 어린이의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잘 나타나 있고, 「구름 위에서」는 비행의 감동을 미각적 이미지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적 의도가 대견스럽게 보였다.

수상자들의 우수한 작품성을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는 특출한 시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일반부

대상	소설	디톡스 여행	김성금	21
최우수상	시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	이정민	55
우수상	수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아름	59
	소설	히말라야 로터스	권갑점	65
	시	플라잉 타임	김형미	115
	수필	엡실론의 창공 이데아	염동렬	116

대상

디톡스 여행

소설 / 김성금

디톡스 여행

일반부 대상 • 소설 / 김성금

나는 해독제가 필요하다. 해독제를 구하는 심정으로 해외여행을 선택했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 도착했다. 동편 A카운터를 찾아 바쁘게 걷다가 지팡이와 부딪쳤다. 내 여행가방에 부딪친 노인이 휘청거렸고, 나는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아내가 사서 들려준 책이다.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 때문에 나를 까칠한 사람으로 오해할 것만 같다. 노인 옆에 섰던 중년여인이 책을 주워서 내게 내밀었다.

"미안합니더. 에이 카운터가 어디라예? 당최 몬 찾겠네요. 추석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원."

꽃분홍색 여행 가방은 반들거리는 새 것이다. 여행가방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이곳이 생소한 곳이라는 듯 멀뚱히 서 있다.

"차암 잘 생겼네. 혹시 탈렌트 아입니꺼?"

중년여인의 너스레에 웃음이 나왔다. 노인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버님과 여행을 가시나 봅니다."

"아니라예. 제 남편입니더."

초면에 말실수를 하다니 정말 당황스럽다. 노인에게 얼른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노인은 부루퉁한 얼굴로 나를 노려본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의 꽃분홍색 여행가방을 들어주기로 한다.

"저도 에이 카운터로 갑니다. 절 따라 오십시오."

왼손에는 내 검은색 여행가방을, 오른손에는 꽃분홍색 가방의 손잡이를 잡았다. 노부부 앞에서 보트처럼 길을 내며 인파를 갈라나갔다. A카운터에 둥글게 모여선 사람들이 보였다. 여행사 직원이 나와서 출국 수속을 돕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모실 인솔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그리스, 터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삼십 대로 보였다. 이마에서부터 굴곡 없이 뻗은 콧대가 비너스를 닮았다.

"우리 일행은 모두 열여섯 분입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지요. 남자 분 여덟 분은 같은 직장에서 오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중년 남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 쪽에 여성 세 분은 친구시고요. 티셔츠를 똑같이 입은 분은 신혼부부입니다."

입구 쪽에서 부딪쳤던 노부부도 우리 일행이었다.

"정칠복이라고 합니다. 여긴 제 안사람입니다."

일행 중 제일 연장자다.

"그리고 이 분은 혼자 여행을 오셨습니다."

홀로 여행을 떠나온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애써서 내 소개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다고 스님은 아닙니다."

일행은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맨머리를 열 손가락으로 쓸어올렸다.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일행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

마흔다섯 살, 키는 180센티미터에 몸무게는 65 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들이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나의 운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삼 개월에 걸쳐 체중이 십 킬로그램 정도 빠졌다.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진다고만 생각했다. 몸이 가벼운 것 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기운이 떨어졌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 누운 것처럼이나 기운이 빠졌다. 게다가 대변이 짜장 색깔처럼 검게 나오는 바람에 대장검사를 받게 되었다. 암이 나의 대장을 살살 갉아먹고 있었다. 의사는 대장을 일부 잘라내고 여섯 번 정도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했더니 어깨가 딱 벌어지고 가슴이 넓었다. 탈렌트 한 진희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지금은 바짝 마른 몰골에 볼에는 와이파이처럼 세로주름이 여러 겹 패었다. 눈두덩이도 쑥 꺼져서 택시를 타고 삼십 분은 들어가게 생겼다는 둥 보는 사람들마다 걱정스럽게 말을 한다. 수술날짜를 받아놓고 머리카락을 밀었다. 수술을 마치고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이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재난상황이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반은 죽은 목숨이었다. 의욕은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았다.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리기 해 보아도 어디 하나 만족스런 구석이 없다. 동굴 속처럼 컴컴한 방안에서 울었다. 어머니도 아들도 아내도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나보다는 덜할 것이다. 식구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살금살금 다녔다.

어느 날 갑자기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었다. 떠벌이라고 소문난 영감이었다.

"왜 컴컴하게 해 놓고 있어? 멀쩡한 사람도 돌아가시겠네."

암 선고를 받고 수술날짜까지 잡혀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너무나 태연한 말투에 서운했다.

"누구 왕년에 암 수술 안 받아본 사람 있나? 세 명 중 한 명이 암이라는데. 나도 십 년 전에 수술 받았지만 이렇게 멀쩡하잖아. 나는 그때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갔다 와서 수술하면 되는 거야. 툭툭 털고 다녀오리라 믿고 나는 가겠네."

떠버리 영감의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이 순간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내린 결론이었다. 내 몸과 마음에는 해독제가 필요하다.

인솔자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다 작성하고 여행가방을 부치기 위해 줄을 섰다. 일행의 얼굴은 밝게 들떠 있다. 내 가슴도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했다.

자정에 이스탄불 행 여객기를 탔다. 누군가의 시선이 뺨에 따갑게 느껴져서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노인은 처음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노인과 부딪칠 때 바닥에 떨어뜨렸던 [미움 받을 용기]를 꺼냈다. 아내가 여행 중에 읽으라며 사서 건네 준 책이다. 일본작가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자기계발서이다. 조금 읽었는데, 영 집중할 수가 없다. 여성 삼총사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본다. 나도 이리저리 채널을 누르다 '폼페이 최후의 날'을 보기 시작했다.

영화 속에서는 재난상황이 전개되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로 화산재에 덮인 사람들은 그대로 멈췄다. 찻잔을 든 채 멈춘 여자, 달리던 형상 그대로 굳은 동물, 그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은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내게는 아직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남아 있다.

암 진단을 받고나서 매일 밤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해도 흉잡히지 않으려고 깨끗이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재난영화를 싫어하면서도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고 '폼페이 최후의 날'을 끝까지 봤다.

비행기라는 작은 마을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할 것을 다 한다. 밥 먹고 배설을 하고, 잠을 잔다. 티브이를 보고 책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

열두 시간 비행 끝에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한 시각은 정오가 아니라 여섯 시간 전인 새벽이었다. 시간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기묘하게 느껴졌다. 내게 남은 시간도 천천히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 짧은 인생에서 여섯 시간을 벌다니, 흐뭇하다.

이스탄불 도착 전에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그리스 행 비행기로 갈아타자마자 또 아침식사를 준다. 좁은 좌석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먹기만 했더니, 뱃속에서 음식을 거부했다. 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흰색, 분홍색. 이 작

은 알약이 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약을 끊으면 배터리가 방전된 장난감처럼 그대로 멈추게 될까?

***

럭셔리한 45인승 대형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현지 가이드는 오십 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여성이었다. 키가 크고 늘씬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터키 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다. 살짝 부는 바람에도 파란 스카프가 하늘하늘 날렸다. 그리스인 기사는 영화배우 록 허드슨을 닮았다.

버스에 오르자, 사람들은 좌석을 정하느라 우왕좌왕했다. 노인은 멀미를 한다며 운전석 뒷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그 뒤에 앉았다.

"차가 커서 좌석이 많이 남으니까, 한 사람씩 자리차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신혼부부와 노부부만 둘씩 붙어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창가에 한 사람씩 자리를 잡았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맨 앞자리에 앉았다.

"자, 기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분은 버스회사 사장입니다. 나이가 칠십 세라는 데 버스운전을 즐긴답니다."

기사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운전을 하며 능숙하게 한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일행은 모두 박수를 쳤다.

"나랑 동갑인데, 무척 젊군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말을 인용하는 노인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야곱은 형이 죽일까봐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간다. 수십 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하고 네 명의 아내와 열두 명의 자녀를 이끌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성경의 내용이 떠오른다.

다랑논처럼 구불구불한 주름 사이로 노인의 신산한 세월이 보이는 것 같다. 노인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빼고 나면 내 얼굴과 닮았다. 노인 역시 젊었을 때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 같다. 사실 노인이 된다는 건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살아남았다는 뜻이니 위대한 일이긴 하다.

버스는 천천히 해안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에게 해의 푸른 바다와 그림 같은 전원주택과 요트들,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 대리석 산을 바라보는 일행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현실이 기적 같다.

버스는 피레에프스 항구에 도착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첫 장면에 나오는 피레에프스 항구입니

다. 제가 첫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항구도시 피레에프스에서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나는 그때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말을 조그만 카페 안으로 날렸다.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레타의 이라클리온 공항이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작가지요? 우리도 이제부터 조르바가 되어 봅시다. 카르페 디엠!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이 순간을 즐겨라. 어때요? 여러분들도 모두 카르페 디엠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할까, 이것저것 궁리해 보아도 마음은 쉽게 동요하지 않았다. 여행을 생각하니 움쩍도 않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기운이 떨어져 널브러져 있다가도 여행가방에 소지품을 챙겨 넣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신이 없는 동안 무술 도장 잘 운영하고 있을 테니 맘 놓고 다녀와요. 대신 수술하고 나서 나랑 세계일주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처럼 세계일주를 할 수 있을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되는 건 아닐까?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자. 카르페 디엠.

조르바는 이 많은 선박 중에 어느 배를 탔을까? 우리 일행도 배를 타고 애기나 섬으로 이동하였다. 비잔틴 양식의 성당을 구경하였다. 소품처럼 아주 작은 성당이었다. 애기나 섬에는 아페아 신전과 아폴론 신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 가이드가 삼십 분의 자유시간을 주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흩어져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해변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새까만 피부의 여성이 수영팬티만 입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다. 젖가슴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놓고 아기의 손을 잡고 있다. 그녀의 몸매에 눈길이 갔다.

“비너스가 울고 가겠구먼. 나선생님! 엉큼한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성 삼총사 중 아담하고 통통한 체격의 여자가 다가왔다. 만화 캐릭터 ‘호호아줌마’처럼 생겼다.

예쁜 주택들이 어찌나 많은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다. 어느 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림이다. 사진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결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만 혼자 골목에 남았다. 지금은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라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도 낮잠 시간을 즐기는 이 나라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부럽다. 나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강릉 해변으로 나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구요?"

바다에 대고 소리를 치며 통곡을 했다. 내가 아홉 살 때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다. 아버지 없이 큰 나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테라스에 놓인 베고니아 꽃 화분들이 비누 풍선 속에 든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눈물 때문에 어룽거려 사진을 찍지 못하겠다. 인솔자의 얼굴이 골목 끝에 나타났다.

"나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혼자만 떨어져 계시다가 일행 잃으면, 한국에 돌아갈 때 애먹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게요."

나는 헛기침을 하며 골목 한가운데 섰다.

"잘 나왔습니다. 여기 서계시니 이곳 주민 같으십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건네 받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인솔자님이야 말로 그리스 여신 같으십니다."

다른 골목으로 꺾어 돌자, 유일하게 문을 연 가게가 있다. 따갑게 쏟아지는 햇볕을 피해 들어갔다. 일행이 대부분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다. 신전 기둥과 원반 던지는 올림픽 선수의 모습, 아테나 여신 등을 조각한 작은 소품들이 있어서 몇 개 골랐다.

아테네로 이동해서 산타그마 광장에 도착했다. 달리는 아이의 동상 앞에 모여섰다. 아테네로부터 몇 킬로미터라고 말할 때, 이 동상을 지표로 삼는다고 한다. 올림픽은 제우스의 제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은 전쟁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깔리 말마로(좋은 대리석 경기장)로 이동했다.

"쿠베르탱 남작이 1회 근대올림픽을 시작했지요. 그는 영국군의 워털루 전쟁 승리가 스포츠교육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제올림픽 위원회를 조직했지요. 처음에는 13개국이 참가했어요. 이곳은 말발굽형태의 경기장이며 69,000명을 수용했다고 해요. 104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로마 지배 당시에 모두 이스탄불의 저수조로 옮겨갔어요."

아테네의 산은 대리석 산이어서, 봉우리에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인들은 대리석만 깎아서 팔아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버스에 올라 파르테논 신전으로 향했다. 아테나 여신의 신전 파르테논은 아테네 한복

판에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처녀신의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자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이죠. 이 신전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지었다고 합니다. 자, 크루즈 여행객들이 떼로 몰려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가이드는 그 치렁치렁하게 긴 터키 색 스카프로 머리를 한 바퀴 감싸서 햇빛을 막았다.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셔야 해요. 모자 쓰시고요. 이곳은 자외선이 강렬해서 피부가 나오지 않도록 다 감싸주셔야 해요. 특히 나 선생님! 머리피부도 데이면 아픕니다."

가이드의 지적에 얼른 배낭에서 모자를 꺼내 맨머리를 덮었다. 일행들이 소리 내어 웃는다.

보수를 하느라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서 개미 떼처럼올라가는 관광객들을 보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대열에 끼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떠나 어떻게 사라진 걸까? 내게도 아버지의 DNA가 있을 테니 그 방법을 알게 되겠지. 곤충들이 배우지 않아도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고 교미하고 알을 낳듯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일한 책을 끼고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세계여행기를 읽으며 꿈을 키웠다. 나도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아내와 함께 세계일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꿈을 꾸기만 했지 실천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했다.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밥장사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국을 푸던 국자를 허공에 휘휘 휘저으며 울었다. 한 남자가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나는 오직 너 하나 보고 사는 거야. 너는 아버지처럼 떠나지 마라."

내가 아홉 살 때 떠난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했다. 오일장이 서는 곳마다 톺았다. 파장 후에는 여인숙을 뒤지며, 이 년을 떠돌았다.

"아이고,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제 아비를 쏙 뺐네. 전봇대처럼 긴 다리 하며 역마살이 낀 것까지."

나도 그때쯤에는 내가 잘 생겼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들은 대놓고, 기생오래비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어이없게도 여행 중에 만난 네 살 연상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다. 할 수 없이 만삭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이제는 네 처자식까지 책임져야 한단 말이냐?"

겨우 스물한 살 나이에 나는 가장이 되었다. 일 년 동안 방위 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아내와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눈만 뜨면 고민했다. 아내는 내가 능력이 없다보니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기를 펴지 못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검도가 3단 유도가 3단 합기도가 1단 도합 7단이다. 아내가 나서서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어머니, 이이에게 무술도장을 차려주세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게 대형 면허가 있으니까 승합차 운전을 하면서 함께 일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덜덜거리며 역마살이 끼어 돌아다니는 이 녀석을 고향에 눌러 앉혀줘서 고맙구나. 너를 믿어보마."

엄마는 무술도장을 차려주고, 어린 아들까지 알뜰살뜰 보살펴주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 아내 덕분이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동안, 세월은 줄기차게 이십여 년이 흘렀다. 이제 무술도장은 안정이 되었고 내가 굳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범들이 있어 잘 굴러갔다. 돈도 있고 시간도 많았다.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다는 핑계로 여행에 미쳐 돌아다니던 그때가 그리웠다. 아버지는 아홉 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내 마음에 날개가 돋는 걸 눈치 챘다. 훌쩍 사라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여행을 떠나온 것이다.

노부부가 관광객들의 행렬에 끼어 힘겹게 올라오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오르는 것이 고행을 하는 것 같다. 하루 만에 노인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노인은 헉헉거리며 숨을 토하고는 돌 위에 앉았다. 부인이 생수를 꺼내 노인 손에 들려주었다.

"나 선생님은 젊어서 좋겠심더. 우린 아무래도 이번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심더. 마음뿐이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아입니꺼. 돈이 많으면 뭐합니꺼? 몸이 영 따라주지 않는데에."

내 몸은 파르테논 신전처럼 간신히 뼈대만 남기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노부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보고 젊음을 부러워한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고 나서 나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저기까지 올라갈 자신이 없구먼. 먼저들 올라가시게나."

다들 노인을 격려하며 지나쳐 올라갔다. 가이드의 터키색 스카프가 깃발처럼 나부끼며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 다른 여행지와 달리 동양인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일행을 찾기 쉬웠다. 나는 노인을 부축해서 함께 올라갔다. 우리가 나타나자 일행은 박수로 맞아주었다.

파르테논 북쪽에 있는 에렉테이온 신전은 까르에띠드 상이라는 여섯 개의 소녀상이 기둥처럼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소녀들의 자태가 부드럽고 우아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까르에띠드 상처럼 나를 떠받쳐 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내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들, 떠버리 영감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간다.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과 디오니소스극장을 다 보고 내려오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오고 있다. 크루즈 여행객들이다. 대부분 노인들이다. 노인이 되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부럽다. 나는 노인이 될 수 있을까?

반대편으로 한참 비탈길을 걸어 올라갔다. 파르테논 신전을 멀리 배경으로 두고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가 있어서 독사진을 찍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 소크라테스 감옥이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가죽상인이 고소를 해서 잡혀 왔지요. 죄목은 신성모독과 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의 미움을 사서 24시간 안에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신성한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 안 하기로 한 딜로스 동맹 덕에 이곳 감옥에 있었지요. 제자들은 탈옥을 하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철학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수천 년이 지난 현장에서 들으니, 소크라테스가 홀로그램처럼 감옥 안에 아직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영원히 산다는 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는다는 의미 같다.

다시 버스에 올라 포세이돈 신전으로 향했다. 아폴론 길은 한 쪽이 바다를 낀 절벽이다. 낭만의 거리라는 이름과 달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죽음의 장소를 택할 수 있다면, 단연코 여기 수니온 곶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였다. 사고 지점에는 새집처럼 생긴 작은 십자가 집이 많이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고가 난 지점에 영혼이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작은 모형 집을 지어 사진과 기념품을 놓아둡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벽돌로 예쁘게 모형 집을 짓지요. 모형집 안에 올리브 오일로 불을 켜 놓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깡통에 십자가를 턱 걸쳐놓는 걸 보면, 이곳 남편들도 아내들에게는 별로 대접을 못 받는 모양입니다."

여자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친다.

록 허드슨을 닮은 운전기사가 망원경을 여러 개 갖고 오더니 절벽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가이드는 긴 스카프를 손가락에 걸어 배배 꼬며 웃는다.

"기사분께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여서 제가 난감하답니다."

망원경을 받아들고 절벽 아래를 향해 렌즈의 초점을 맞췄다. 옷을 홀딱 벗은 여자의 모

습이 줌으로 당긴 것처럼 바로 코앞에 있다. 여자의 눈과 마주친 것 같아서 깜짝 놀라 망원경을 치웠다. 기사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껄껄 웃었다. 노인이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망원경을 들고 절벽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늙으나 젊으나 한국남자나 그리스 남자나 동물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게 우스웠다. 노인이 부인에게 망원경을 주자, 뜨거운 불덩어리라도 되는 듯 얼른 여성 삼총사 중 하나에게 넘겼다. 여자들은 망원경에 잡귀라도 붙은 것처럼, 가슴 앞에 두 팔로 엑스 자를 만들더니 버스로 뛰어 올라갔다. 그 모습에 록 허드슨이 배를 흔들어가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수니온 곶의 가장 높은 곳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다. 포세이돈 신전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었다. 짙푸른 하늘과 짙푸른 색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서부터 바다인지 모르겠다.

"아이게우스 왕이 아들 테세우스가 크레타의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면 하얀 돛을 달고 오라고 했지요. 아버지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깜빡 잊고 검은 돛을 달고 오는 걸 본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한 나머지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아이게우스 왕이 빠져 죽은 바다라고 해서 '에게 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포세이돈 신전은 바다에서 육십 미터 높이의 절벽에 세워졌다. 또다시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간다. 일어설 기운도 없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나 선생님, 또 찾아 헤맸잖아요. 일행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인솔자는 내 등을 두드리며 재촉했고, 버스에 올라타며 그곳에 중요한 것을 두고 온 것처럼 계속 눈을 떼지 못했다.

버스는 아테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터치했다. 사진을 보니 나의 분신이 아직도 포세이돈 신전 곁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도로 옆으로 올리브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올리브는 2500년 장수하는 나무지요. 척박한 땅에서 양질의 올리브가 나와요. 나무는 가구로 쓰이고, 잎사귀는 항암제로 쓰여요. 하나도 버릴 게 없지요."

올리브 잎사귀가 항암제라는 말에 솔깃해진다. 산꼭대기까지 각양각색의 별장들이 뒤덮고 있다. 해변의 별장에는 요트들이 정박해 있다. 나무 덧문이 달려 있는 창문이 있는 집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스인들은 낮잠에 빠져들고, 강렬한 태양에 돌아다니는 것은 관광객들뿐이다. 꽃 양귀비 벌판이다. 바람에 붉은 꽃이 불꽃처럼 날름거린다.

"붉게 타오르는 양귀비 벌판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모네의 [아르장티유의 양귀

비꽃]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모네의 아내 카미유와 아들 장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들에 핀 백합화'가 바로 이 꽃이랍니다. 수술과 암술이 십자가 모양으로 양귀비 꽃 속에 들어 있어 예수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여행을 하니 참 좋으시죠? 이국적인 풍경도 보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장례식에 와서도 '깔로 닥시디'라고 합니다. 좋은 여행 되라는 뜻이지요."

그녀의 말은 노래하듯 리듬이 있다. 모네의 그림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이 문득 떠올랐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검지로 하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내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초롱초롱하다. 내게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

산꼭대기까지 멋진 주택들이 각자의 위용을 자랑하며 늘어서 있다.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얼굴을 익히자마자 헤어지려니 아쉬웠다. 가이드의 하늘거리는 파란스카프가 희망처럼 내 마음에 펄럭거린다.

***

그리스 여행을 마치고 터키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미움받을 용기]를 펼쳐들었다.

"트라우마 이론은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하지. 원인론의 노예가 되면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걸세."

책 내용은 곱씹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책갈피가 휙휙 넘어가는 로맨스소설책을 사줄 것이지 자기계발서를 사준 아내가 원망스럽다.

책을 덮고 비행기 안을 돌아보았다. 이틀간 그리스 여행을 함께하고 나니 여행객들 속에서 우리 팀의 얼굴을 만나면 반가웠다. 여성 삼총사는 행복해 죽겠다는 듯 들뜬 표정이다. 내 얼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리스에서는 럭셔리한 45인승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 버스는 25인승에다가 아주 낡았다.

"그리스는 잠깐씩 타는 코스이지만, 터키는 이동 거리가 멀다 아입니꺼? 하루에 여덟 시간씩 버스를 타야하는데, 저 버스로 다닐 수 있겠습니꺼?"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실 나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인솔자에게 낯붉히고 싶지 않았다. 그리스에서 관광을 마치고 온 터라 너무 피곤해서 일단 호텔에 짐을 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부터 한국인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버스가 왜 이 모양입니꺼? 나는 이 차로 관광할 수 없습니더. 서울로 돌아가겠으니 사장 바꿔주시오."

스포츠머리가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중이다. 아침 일곱 시에 관광지로 떠나야하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팀의 여덟 명 때문에 출발이 한 시간이나 늦어지고 있다.

"여행을 하다보면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여행도 못 하고 돌아가면 자기들만 손해지."

노인이 지팡이로 낡은 버스 바닥을 툭툭 쳤다.

"아까 보니까, 호텔방에서 고스톱들을 치고 있더구먼요. 사람들을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꺼? 이러다 오늘 여행 몬 하는 거 아입니꺼?"

노인은 서울 말씨를 쓰는데, 부인은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다. 나이 차가 스무 살은 나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혹시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다른 가정을 꾸며 살고 있을까? 나는 아버지 연배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상상에 빠지곤 한다.

"인솔자님이 가서 설득해 보세요. 이러다 모든 일정이 다 꼬이겠어요."

설득하러간 인솔자도 돌아오지 않는다. 세 명의 여인들이 나더러 다시 가서 설득해 보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들 방으로 향했다. 인솔자는 울었는지, 눈자위가 빨갛다.

"지금 여기는 라마단 기간이라 버스도 기사도 구하기 힘들어요. 제가 본사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버스를 수배해 볼 테니까, 지금은 일정대로 관광을 하시죠."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각자 손에 화투를 펼쳐들고 있다.

"웬만하면 일어나시죠?"

내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스포츠머리가 내게 눈을 찡긋거렸다.

"형씨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세요."

자기들끼리만 짬짜미하고 있어서 왕따가 된 기분이다. 빠듯하게 짜인 일정 때문에 일단 그들 여덟 명을 빼고 관광지로 출발했다. 출발이 늦어지니 관광지에서 표를 끊는 것이 계속 밀려 모든 게 늦어지고 말았다. 인원 중 절반이 빠지고 보니 설명을 하는 가이드도 맥이 빠지고,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도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이스탄불에 왔건만, 첫날부터 영 김이 샜다.

관광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보니 여덟 명의 남자들이 모두 로비에 나와 있다. 아침의 우거지상은 어디로 가고 우리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내일 아침에는 그리스에서 탔던 것 같은 럭셔리한 버스가 온다 캅니다."

호호아줌마가 스포츠머리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침에 언성을 높이고, 울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걸 액땜했다 치고, 내일부터는 좋은 여행을 합시다. 데모튀라스."

농성을 시작한 스포츠머리에게 호호아줌마가 붙여준 그리스 식 이름이다. 웃음이 샴페인의 코르크마개처럼 터져 나왔다. 오십 대 후반의 여자들이 사춘기 소녀들 같다. 웃음은 전염이 되는 모양이다.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일행들도 따라 웃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우울해하자, 일행들에게 그리스 식 이름을 하나씩 붙여준 것이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 살풀이를 해야겠습니더. 이따가 우리 방에 모이는 거 어떠십니꺼?"

데모튀라스의 제안에 모두 박수를 쳤다. 노부부만 피곤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노인은 금방이라도 다리가 접힐 듯 아슬아슬해 보였다.

각자 간식거리와 맥주, 음료수를 가져왔다. 좁은 방에 열다섯 명이 앉으니 어색했는데, 몇 번 술잔이 오가고 나니 바로 가족처럼 편안해졌다.

내 그리스식 별명이 궁금하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어떤 걸까?

"나선생님은 성이나 성당에 도착하면 가이드가 표를 주기도 전에 제일 먼저 달려 나갔지요? 게다가 가는 곳마다 일행과 떨어져 다니는 바람에 인솔자가 찾아다니느라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나선생님의 별명은 나댈리우스!"

그리스식 이름 지어주기 놀이가 다소 중독성이 있었다. 여행경험이 많은 여자가 호호아줌마를 가리켰다.

"이십 년을 알고 지냈어도 함께 여행을 해보니까, 몰랐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거든요. 호텔방 키를 열 때, 번호를 누르고 별표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이고 바보, 별표를 먼저 누르고 번호를 눌러야지 하며 눈을 흘기더라구요. 순간 내가 틀린 줄 알았다니까요? 암만 해도 안 열려서 다시 내 식대로 했더니 열리잖아요. 아무튼 우기는데 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의 별명은 우기리아입니다."

호호아줌마가 박수를 쳤다.

"와우 나랑 딱 맞는 별명이야. 맘에 들어. 그럼 자기는 해외를 쏘다니는 게 취미니까 쏘다니드라로 하지? 그리고 저 친구의 별명은 뭐로 할까?"

우기리아가 눈웃음을 치며 친구에게 다가가더니 요모조모 살폈다. 그녀는 키도 작은데다, 가녀린 몸매여서 터키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서 여러 번 사진 모델 노릇을 했다. 오십 세가 넘었는데도 외국인의 눈에는 아가씨로 보이나보다.

"겉모습은 아가씨 같아 보이지만 말이야. 늙긴 늙었더라. 가방을 뒤죽박죽 해놓고는 물

건 하나 찾으려면 다 뒤지고 난리가 아니야."

"사실 며느리가 가지런히 싸 주었는데, 내 손만 닿으면 뒤죽박죽이 되네요."

"그래서 당신의 별명은 뒤지드라."

"아, 뭐야."

뒤지드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보다 열두 살 많은 여인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을 참지 못해 어쩔 줄을 모른다.

인솔자가 세 여인을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 수발을 십 년이나 들었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유전인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통에 또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서른 한 살이에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들을 보니 결혼하고 싶어지네요."

우기리아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한량처럼 보이지요? 나는 사별한 지 오 년 됐어요. 하나 뿐인 아들을 장가보내고 나니 완전 고독한 여인이 됐지. 쏘다니드라도 시집살이 삼십 년 만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인 세계일주를 목표로 여행을 떠나온 겁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우리가 집에서 할 일이 얼추 끝나잖아요. 몸은 갱년기로 아프고, 마음은 빈둥지증후군으로 텅 비는 시점이지요. 하지만 지금이 꿈을 이루기 딱 좋은 시기죠."

우기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진짜 터키에 오게 된 경위를 말해 주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외화를 펑펑 쓰며 해외여행을 가서 낭비한다고 비판하지만, 우린 새로운 것에 눈 뜨고, 또 일 년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터키에 온 건 순전히 소설가 오르한 파묵 때문이었어요.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충격적인 소설을 만나고부터 터키에 오고 싶었어요. 이슬람 교리에 입각한 세밀화와 베네치아를 넘어온 서양화풍과의 충돌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양쪽의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잖아요. 오르한 파묵은 유럽 쪽 화풍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세밀화가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보여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역사적 이야기들을 추리기법을 써서 전개해 나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죠. 어떻게 하면 독자로 하여금 몰입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던 터라,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감탄했지요."

끼어들리우스가 고개를 내밀었다.

"저도 오르한 파묵 너무 좋아합니더. 누님은 저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습니더. 오르한 파묵은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열 시간씩 글을 쓴다지요? 게다가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글을 쓴다는 말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더.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나만 알아본 줄 알았더니 세계가 그를 알아본 거 아입니꺼. 그의 작품이라면 다 찾아서 읽었습니더.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한 번 다녀보고 싶어 왔다아입니꺼."

신부인 똑또카드라가 눈을 빛내며 다가앉았다.

"작가 한 사람이 좋은 소설을 쓸 때 조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오르한 파묵의 소설에서 아나톨리아, 이스탄불, 다마스커스 같은 이국적인 지명들을 보며 저도 여행을 계획했지요. 우기리아님은 좋은 소설가가 될 것 같아요."

똑또카드라의 말에 이어 쏘다니드라가 참견을 했다.

"이런 도시를 돌아다니려면 이 일정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저도 미리 이희수의 [터키] 여행기를 사서 읽었는데, 작가는 터키에 백 번을 다녀갔답니다."

뒤지드라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저는 고은의 [낯선 곳]이라는 시를 읽고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으로부터."

장황한 그들의 이야기보다 고은의 두 줄의 시가 더 가슴에 와 박혔다. 건강이 허락한다면꼭 세계일주를 하고 싶다. 욕망이 싹트자, 다 파괴되었던 세포들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 같았다.

헤어지기 아쉬운 밤이었다. 데면데면했던 여행객들은 굳게 닫혀 있던 마음 문을 열었다. 내 별명인 나댈리우스를 입속에서 되뇌어본다. 활발하고 발랄한 느낌이 들어서 절로 기운이 솟는다.

아침식사를 하고 챙겨온 약을 한 주먹 삼킨다. 어제 읽은 책 내용이 마음속에서 나를 두드린다. 행복해질 용기를 가지라고…….

버스에 오르자 건장한 청년이 웃으며 반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튜입니다. 자 터키어로 인사를 배워 볼까요?메르하바 메튜? 그리고 여기 현지 가이드 이름은 감제입니다. 보조개라는 뜻이죠. 인사해 봅시다. 메르하바 감제? 기사님 이름은 이블하임입니다."

"메르하바 이블하임!"

모두들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저는 이태원에 살았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일으켰던 문제아였죠. 학점 간신히 따서 대학은 졸업했지만, 당연히 취직자리는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돈이 좀 있는지라, 세계여행을 해보고 장래를 설계해 보라고 떠미는 통에 배낭을 메고 무작정 비행기를 탔어요. 여기저기 일 년쯤 떠돌다가 터키에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게 내가 머물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착했어요. 터기 역사를 공부하다보니까, 터키는 고려를 세운 민족과 동일한 유목 민족이 이주해서 세운 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래 전 고구려와 돌궐은 친밀한 관계였고, 동일한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서 형제의 나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터키역사 공부를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 안착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였다.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지구촌 어딘가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거였다. 매튜가 대견했다.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의 통치자 비자스에게 '눈 먼 땅에 새 도시를 건설하라'는 델피 신전의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눈 먼 땅을 찾던 그들은 흑해와 지중해, 에게해, 세 바다가 만나는 보스포러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누구도 눈이 멀어 미처 보지 못했던 천혜의 요새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비자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비잔티움이라 불렸습니다. 로마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로 정한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 되었구요. 그 후 1453년 오스만 제국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점령하여 이스탄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이 한 지명을 가리킨다는 건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

"터키는 성경 창세기의 무대가 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있던 곳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발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품은 땅이며 그리스 신화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쟁,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십자군 전쟁, 일이차 세계대전 등, 많은 전쟁을 통해 이스탄불에서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했지만, 지금은 여러 문명들이 다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구도심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성소피아성당의 십자가와 모스크의 첨탑이 한눈에 들어온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할 때마다 이스탄불 시내 삼천여 곳의 사원에서 일제히 아잔이 울려 퍼진다. 아잔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접속할 때 매개가 되는 음률 같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아잔은 애타게 신을 부르는 것 같아 애잔하다.

성소피아 성당을 돌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여덟 명의 남자들 보다 여성 삼총사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우기리아가 자기 옆에 딱 붙어다니라는 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분들이 가족처럼 푸근했다.

"유티아누스 황제가 불에 타지 않는 성당을 지으라고 했지요. 성소피아 성당은 1500

년 된 건물이지요. 그런데 메호멧 2세가 점령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라고 했죠. 성상을 파괴하고 모자이크에 화산재로 칠했답니다. 지진이 3000번이나 났기 때문에 수도 없이 보수를 했어요. 20층 빌딩의 높이라고 합니다. 중력을 분배하기 위해 지붕은 돔 형태를 이루었구요. 여기서 출발해 계속 가게 되면 예루살렘인 사우디의 메카방향이 된다고 합니다."

왕후가 마차를 타고 올라갔던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관광객들이 걸어 올라간다. 대리석을 얇게 깎아서 붙인 벽과 바닥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한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손바닥으로 슬쩍슬쩍 쓸어본다.

[최후의 날]이라는 성화가 벽에 있다. 예수가 가운데, 오른쪽에 세례요한,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다. 예수의 눈길이 어느 쪽으로 가나 나를 따라오며 응시하고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생각을 하던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눈빛이어서 두렵다.

"이제 오스만 제국의 첫 궁전인 톱카프 궁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긴 황제의 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신분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요."

궁전은 굉장히 화려하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보내온 보석과 선물들이 장식되어 있다.

"한 때는 주방장이 400명이었고, 하루에 양 1000마리를 잡았고, 2만 명의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백인 내시가 둘 있었는데, 중요한 비밀이야기를 못 듣게 고막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소름이 돋는다며 몸을 떨었다. 궁전 안에는 하렘이라는 금남의 구역이 있다.

"술탄이 발리댄스를 추는 여인의 어깨에 손수건을 올리면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고 하니, 간택되기 위해 얼마나 섹시한 몸놀림을 하려고 안간힘을 썼을까요?"

우기리아가 발리댄스 흉내를 내며 섹시하게 엉덩이를 흔들었다. 친구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웠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행복해지려면 미움 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양식일세."

밤에 읽은 책 내용이 떠올랐다. 우기리아는 자유로웠지만 미워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데도 자연스럽다.

이제 일행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기 위해 움직였다.

"지금은 보스포러스 바다를 제1대교로 건널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제3대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카라쾨이에서 페리를 타고 건너갈 겁니다. 페리는 20

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출발해요. 대륙을 넘나들며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이죠. 왼쪽은 흑해, 오른 쪽은 지중해입니다. 흑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은 민물에 가깝구요. 지중해에서 흑해 쪽으로 흐르는 물은 염도가 높은 무거운 물이라 밑에서 숨어서 흐릅니다. 수만 년을 그렇게 만나며 흐르고 있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가볍게 흐르는 민물이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생각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 몸과 마음이 다르다할지라도 그렇게 안팎으로 어우러져 '나'라는 인물이 만들어져가는 거겠지.

갑판위로 올라갔다. 메튜가 저 멀리 작은 섬을 가리킨다.

"여자들의 섬이에요. 뱀에 물려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피해 뱀이 없는 섬으로 보냈는데, 가지고 간 사과 상자 안에 뱀이 있어서 결국 물려 죽고 말았지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을 피해 터키로 도망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또다시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진다.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려 서 있을 수가 없다. 객실로 들어가 앉았다. 우기리아가 따라 들어와 앉는다. 결국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닌가.

"괜찮아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배 멀미가 좀 나서요."

"운동 많이 했다면서, 그까짓 멀미에?"

우기리아가 스스럼없이 내 손을 잡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꾹꾹 눌러준다. 손이 꽤 맵다. 주책없이 트림이 끄윽 올라온다.

"아이고, 뚫렸네. 자 뒤돌아봐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준다. 우기리아는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떻게 5년을 견뎌내고 있는 걸까?

"당신은 참 독특한 캐릭터야. 아무 생각 없이 나대는 것 같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표정이 진지하단 말이야. 꽤 복잡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다 털어놔 봐요. 소설 주인공 만들어 줄 테니까."

우기리아에게 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려니까,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

"나도 누님처럼 소설을 쓰고 싶어요. 언제부터 글을 쓰셨나요?"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살림만 했지.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아들까지 결혼시키고 나자, 그야말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잡념으로 밤을 꼴딱 새웠지요. 과거를 아

무리 되풀이 회상해 봐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책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어요. 심리학책을 뒤지다 '아들러'를 만났어요. 에네르게아적 인생을 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목적의 완성보다는 '실현해 가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요. 춤을 추거나 여행처럼 과정 자체로 완전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에 기쁨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한 발 한 발 충실하게 '지금, 여기'를 살라는 말에 감전되었지요."

어쩐지 우기리아의 언행에서 아들러의 느낌이 났다. [미움 받을 용기]를 조금밖에 읽진 않았지만, 이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실천하라는 내용이다. 운명론이라고 딱 결정을 내려버리면 인간은 변화할 수 없다. 인생이란 '지금'이라는 찰나의 연속이니까, '지금, 여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기리아와 대화를 나누다보니 명쾌하게 해결점을 찾았다. '여자들의 섬' 같은 운명론에 얽매이지 않겠다.

페리가 하이다르파샤 선착장에 도착했다. 아시아 쪽 항구에서 유럽 대륙을 본다. 돌마바흐체 궁전이 정면으로 보인다. 돌마바흐체의 모든 시계는 9시 5분에 멈춰 있다. 터키공화국을 창설한 케말 아타튀르크가 서거한 시각이라고 한다. 내가 죽더라도 모든 시계는 째깍거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세상은 나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 하나쯤 사라져도 조금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위대한 사람들만이 역사에 흔적을 남긴다. 나도 이 세상에 참새 발자국만한 족적이라도 남기고 싶어졌다.

"유럽의 철도는 여기 시르케시역에서 끝납니다. 시르케시역은 파리에서 출발한 오리엔트 특급이 도착하는 종착역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터키 국토의 97퍼센트가 있는 아시아입니다. 아나톨리아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오리엔트와 같은 말이죠. 아가다 크리스티가 쓴 추리소설 '오리엔트 특급열차'의 배경이 바로 여깁니다."

우리가 여행한 거리가 3000킬로미터나 된다. 한 곳에 머물러서 자고 산책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여행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너무 벅찬 여행이었다.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아고, 나델리우스는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왔네."

우기리아가 다가와 내 기분을 휘젓는 바람에 가라앉았던 기분이 풍선처럼 떠올랐다.

여덟 시간 차를 타고 가다가 관광지에 잠깐 내려 산책하고 사진 찍고, 또 버스를 타고 달린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밀밭과 올리브, 포도밭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반 이상은 잠을 자면서 간다. 땅덩어리가 넓으니 어쩔 수가 없다. 내 체력을 감안하면 이스탄불 한 곳에 정착해서 여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스타파 케말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요. 카다피 세력이 무너진 거죠. 케

말이 피로써 되찾은 나라라서 터키 국기는 빨간 색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인구가 7500만 명인데, 그 중 70퍼센트가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젊은 나라입니까?

자, 소금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수천만 년 전에는 여기가 바닷속이었답니다. 포크레인으로 소금을 푸는데, 1년에 백만 톤을 퍼낸다고 합니다. 제주도 보다 큽니다. 보통 바다는 3퍼센트의 염분 농도인데, 여기는 33퍼센트랍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소금호수 때문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없이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다. 하얀 얼음 같은 막막한 호수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데, 기막히게 아름답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데, 인간은 그 소금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잠시 머물며 사진을 찍는다. 여성 삼총사는 하얀 소금호수를 바탕으로 그림자놀이를 하고 있다. 하얀 소금 위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며 감탄을 한다.

"헬로 헬로?"

열 살 남짓한 사내아이들 네 명이 우리 꽁무니를 따라오며 커다란 눈망울을 빛낸다. 내가 돌아서서 웃으며 헬로우? 했더니 와아 비명을 지르며 놀라 달아난다. 그리고 다시 살금살금 웃음을 머금고 따라온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짚의 꽁무니를 따라 뛰어가며 '기브 미 초콜릿' 하면 미군들이 미제 껌이며 초콜릿을 던져주었죠.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던 비포장도로가 사진처럼 기억에 박혀 있어요."

나는 그들보다 십여 년은 젊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인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모른다.

"어쨌거나 이제 그만큼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군요?"

"저 아이들을 보니 오십 년 전의 우리처럼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기리아가 눈을 아련히 떴다.

다시 버스에 오른다.

"힘드시죠? 하지만 언제 또 터키에 오겠습니까? 자 강행군을 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갈 곳은 세계 10대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카파도키아입니다. 6000만년전 에르지예스산과 하산산의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두들 어린 시절에 파란얼굴의 스머프 라는 만화영화를 본 기억나시죠? 버섯 집에서 살지요. 버섯 모양의 바위를 보면서, 작가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길쭉한 바위 꼭대기에 버섯처럼 지붕이 달려 있다. 길쭉해서 굴뚝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는가 하면 창문을 낸 집처럼 보이는 바위들이 제각각의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구름이 바위 지붕에 걸려 있다.

"다음에는 동물원입니다."

버스가 하차한 곳에는 동물의 형상을 한 바위들이 끝 간 데 없이 서 있다.

조물주의 위대한 조각 작업을 인간이 흉내 낼 재간이 없다. 성모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종교는 없지만, 성모상 앞에서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살고 싶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한 없이 간다. 구릉 사이로 이차선 도로가 끝 간 데 없이 늘어져 있다. 한없이 펼쳐진 구릉이 다 밀밭이다. 씨 뿌리고 가꾸지 않고도 추수하는 땅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여자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카펫을 짜는데, 남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

"위치히사르 기암 동굴입니다. 땅이 모두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물렁한 석회석을 파고 나서 바람에 마르면 딱딱해집니다.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여기 오면 주택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창문 하나만 보이지만, 안에는 50평 정도의 넓은 집입니다. 방 하나 가지고 살다가 결혼하면 하나 더 파고, 아이 나면 하나 더 파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상을 받고 다들 떠나서 비어 있습니다."

기즐리 바흐체 역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도시가 만들어졌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땅 속으로 피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된 시크릿 가든이다.

모두들 버스에서 내리는데, 노인 부부가 가만히 앉아 있다.

"다들 갔다 와. 우리는 버스에 있을게."

"여기까지 여덟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이걸 보러 온 거 아녜요? 정작 중요한 걸 못 보시면 억울할 텐데요."

노인이 빤히 내 얼굴을 바라본다.

"내가 아무래도 꼭지가 말랑말랑해 진 거 같아."

"아휴, 선생님이 무슨 열매에요? 딸 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입술꼬리가 축 처지고 만다.

하루 만에 눈두덩이 쑥 들어가고 쌍꺼풀이 두 겹이나 졌다.

"이이는 지병이 있어서 좀 쉬어야 한다꼬요. 나도 무릎이 욱신욱신 쑤셔서 지하로 내려가는 건 무리라예. 우리는 몬갑니더. 다녀들 오이소."

여자가 자신의 무릎을 양손으로 꾹꾹 주물렀다. 내 몸도 땅 속으로 기어들어갈 것처럼 무거웠다. 내가 뭉그적거리자, 우기리아가 내 팔을 잡아끌었다.

"제일 젊은 사람이 이러면 쓰나? 띠 동갑인 누님들도 강행군하고 있구먼."

지하 도시로 내려가며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버스에 있으려면 뭐 하러 열두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을까? 두 분을 보니까 다리가 튼튼할 때 여행을 다니라는 말이 실감나네."

데모튀라스가 혀를 찼다.

"어머, 여기 너무 시원하다. 저 분들도 들어오라 할 걸 그랬네요. 시원하니까 기운이 막 솟구치는데요?"

나는 동굴에서 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늘에 버스가 서 있다. 부인이 버스 실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나를 보자 반색을 한다. 노인은 맨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다. 노인이 눈을 게슴츠레 떴다.

"나선생이 우릴 챙겨주니 고맙구먼요. 나선생은 참말, 우리 영감 젊었을 때랑 많이 닮았구먼. 지금이야 이렇지만 이 양반도 정말 잘 생겼었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안동이 고향이여. 이 양반은 오일장이 설 때마다 우리 여인숙에 묵었지. 하루는 우리 집에서 쓰러졌지 뭐여. 집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기억을 잃었어. 우리 아버지가 일곱 가지 복이 들어오라고 정칠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그때 난 여고생이었는데 이 양반한테 홀딱 빠지고 말았제."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성경의 말을 인용했나보다. 내가 아홉 살 때 집을 나가 36년째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도 이렇게 된 사연이 아닐까? 이 분이 내 아버지라면 어머니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동해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될 텐데…….

나는 부인과 함께 노인을 일으켜서 부축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시원한 동굴에 들어서니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지하카페에서는 항아리 케밥을 팔았다.

"제가 오늘 와인 한 병 쏘겠습니다."

나는 탁자마다 와인 잔을 돌리며 행복했다.

버스에 오르기만 하면 메튜의 공부시간이다. 다들 눈을 살포시 감고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메튜는 듣든지 말든지 열렬히 강의를 한다.

"터키의 지도자 무스타파 케말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외삼촌네로 가게 됩니다. 군사학교에 들어갔는데, 담임 무스타파가 이름이 같아서 케말이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케말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스탄불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반정부 시위의 핵심이 되는 곳이죠. 그는 참모학교에서 시리아로 좌천됐습니다. 불가리아, 프랑스로 갔다가 1914년 1차세계대전을 겪죠. 콘스탄디누스가 사용했던 좁은

해협을 이용한 방어와 게릴라작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파샤바흐 장군은 다 철수시키라고 하는데, 케말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너희들이 신발 끈을 묶고 일어나지 않으면 투르크인은 사라질 것이다.'

그의 연설에 힘입어 군인들은 일어섭니다. 일 년 동안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군사물자가 떨어지자, 레닌이 지원해 줍니다. 그는 죽어도 그리스 쪽 땅 3퍼센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린다. 몇 시간이고 계속 달린다. 나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면 차창 너머로 긴긴 포도밭과 밀밭이 이어질 뿐이다. 매튜도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잠시 후 마이크 소리가 나더니, 의자에 기대자던 일행들이 몸을 곧추세우고 두리번거린다.

"여기는 킹스로드입니다. 젊은 술탄이 스무 살 때, 실크로드의 종착점을 만들었지요. 실크로드에 30-40 킬로미터 마다 낙타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카라반사라이'는 대상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비단길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원래 요새였는데, 대상들이 쉬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목욕탕, 식당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비단길은 중국 서안에서 출발하여 8000킬로미터나 되는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사자처럼 덩치가 크고 털이 긴 개들이 마당에 축축 늘어져서 자고 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쪽 눈을 뜨고 올려다보고는 다시 게으르게 눈을 감는다. 저 개들처럼 방안에 늘어져서 생을 마감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콘야에 도착했다. 콘야는 양의 가슴을 뜻하는 말이다. 미다스 왕이 아폴론의 연주를 폄하했다가 보복으로 당나귀 귀를 갖게 되었다는 동화가 만들어진 곳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숲을 향해 소리치는 이발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콘야의 상징인 세마젠 조형물 앞에 모여 섰다. 죽음을 뜻하는 흰색의 긴 치마와 흰색 상의를 입었다. 무덤을 뜻하는 검은 망토와 묘비를 뜻하는 원통형의 모자를 썼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한다. 하늘로부터 신의 은총을 받아서 땅의 인간에게 전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신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전통 피리 '네이' 소리가 울려 퍼지며 춤사위가 시작된다. 왼쪽 발을 중심으로 잡고 원을 그리며 회전을 반복한다.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회전속도가 최고조에 이르면 무아지경에 도달한다. 바이올린은 원래 6줄인데 7줄을 만들어서 저음으로 연주하여 더 몽환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한다. 우기리아가 세마젠 조형물과 똑같

은 포즈를 취하더니 한쪽 팔을 들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무아지경에 빠져들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그녀를 젊게 만드나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가 부럽다.

"이동하는 동안 이슬람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천상의 소녀'입니다. 터키는 원래 일부일처제였으나 전쟁 중 과부가 된 여인들을 거두느라 일부다처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줄넘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양쪽에서 줄을 잡아 돌리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들어가 뛰는 놀이로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옛날에 무지개 밑을 지나면 소년은 소녀가 되고, 소녀는 소년이 되었단다. 네 명의 누이가 있는 사내아이는 무지개 밑을 지나면서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일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할머니는 주인공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우리 집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네가 일을 해야 한단다."

할머니는 주인공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자로 변장을 시켰다. 소년이 된 소녀는 빈라덴의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곳 여자들은 탈레반이 오면 모두 부르카를 뒤집어쓰고 숨었다. 남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다. 남자들 틈에서 생활하던 소녀는 남장을 한 게 들통 나고 말았다. 카불에서는 남장을 한 계집에 대하여는 이교도라며 처형하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지역의 명망 있는 영감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니까, 사형 대신에 결혼을 선언했다. 결혼식 전 날, 영감의 아내들은 소녀를 목욕시키고 치장하며 탈레반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른다.

"사랑스런 레일라 피지도 않은 꽃봉오리."

레일라, 그 이름이 입안에 감기며 목구멍이 아파온다. 줄을 돌리며 땅바닥에 탁탁 치는 소리가 계속 마음속에 울린다. 레일라가 무지개 같은 희망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피지도 못하고 스러지는 레일라의 인생에 비하니 나는 살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터키에 태어나고 싶어. 유럽과 아시아를 도보로 맘껏 여행할 수 있잖아."

쏘다니드라의 속삭이는 소리에 나도 그녀의 소망에 슬쩍 무임승차해 본다.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키라지바흐체(체리정원)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지혜로운 호자할아버지이야기가 있다.

자신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당나귀가 자꾸 서쪽으로 가려했다. 그러자 호자 할아버지는 당나귀를 거꾸로 탔다.

"당나귀야, 너는 서쪽으로 가라. 나는 동쪽을 보고 있겠다."

아무리 동쪽을 보고 있어봐야 당나귀는 서쪽으로 가는데 말이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할아버지는 동쪽을 향해 가는 게 아닐까요? 이건 상당히 철학적인 논제 같은데 말입니다."

역시나 우기리아는 이름에 걸맞게 우기기 시작했다.

***

버스에 모두 올라타 자리에 앉자, 매튜가 터키어로 아침인사를 가르쳐 주었다.

"귀나이든!"

사람들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우기리아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인사한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로 하루가 신선하게 시작되었다. 버스는 파묵칼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양옆으로 온통 올리브 밭이다.

"올리브는 5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손의 나무라고 하지요. 터키는 70억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종사하는 사람들만 천만 명입니다."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사오 년 후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도 감질 나는데, 50년이라니? 사실 인간도 50년은 되어야 충분히 익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파묵칼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파묵칼레는 '목화의 성' 이라는 뜻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파묵칼레에서 온천욕을 했습니다. 데니즐리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다 파괴된 것을 네로황제가 다시 복원했는데, 100년 후에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죽을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왔다가 여기서 죽었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온 나라에 따라 무덤의 형태를 만들다보니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은 '약탈해 가는 자는 재앙이 있으리라'는 비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다 객사한 사람들이다. 객사를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했는데,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지금은 객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던 내 눈 앞에 정말 비현실적인 경치가 나타났다. 눈 덮인 남극에라도 온 것 같다.

버스에서 내리며 다들 감탄사를 연발한다. 말이 나오질 않는다. 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천사들의 목욕탕 같아."

뒤지드라의 말에 질세라 쏘다니드라가 소리친다.

"찻잔에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려 굳은 형상이라고나 할까?"

흰 찻잔에 에메랄드 빛 물이 고여 있다. 관광객들이 거대한 신의 찻잔에 발을 담그고 사진을 찍고 있다.

"만사천 년 동안, 염화칼슘이 풍부한 온천수가 흘러내리며 석회석을 녹여 물웅덩이를 만들었답니다."

층층이 다랑논처럼 생긴 하얀 목욕탕에 하늘의 푸른 색깔이 투영되었다. 클레오파트라가 목욕을 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니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다. 모두들 운동화를 벗고 바지를 둥둥 걷어 올렸다. 발목에서 미지근한 물이 찰랑거렸다. 하얀 석회석 바위에 앉으니 나도 절로 풍경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풍경 평생에 몇 번이나 볼까' 라는 김삿갓의 시가 떠오른다.

"정말 멋진 곳이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저 아래에 대고 소리쳤다.

"힘들여 온 보람이 있구먼요."

그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개 한 마리가 저 아래 낭떠러지 절벽을 맘껏 노닐고 있다. 목을 빼고 절벽을 내려다본다.어깨에 멘 가방을 벗어서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운동화를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팔을 붙들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니 하오!"

아가씨가 내 팔을 잡고는 환하게 웃는다. 영문을 몰라서 우기리아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쪽을 가리키며 크게 웃는다.

"한류열풍 덕에 우리 중년 남자들까지 인기군요. 가 봐요."

여덟 명의 남자들이 중국여자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다. 아가씨는 나를 이끌었다. 카메라맨이 '이, 얼, 싼' 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허물어졌다.

중국 여자들의 비명 소리와 첨벙첨벙 물속에서 뛰어 달아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나댈리우스, 나댈리우스"

우기리아의 목소리가 동굴 속에서처럼 웅웅거리며 울렸다. 미지근한 물이 귀까지 차올랐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물속에 잠겨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노 프로블럼!"

"메이꽌시!"

매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한다. 매튜의 목소리가 아주 멀게 느껴진다.

매튜, 데모튀라스가 내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물 밖으로 옮겨주었다. 터키인이 급박한

음성으로 신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노인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내가 지병이 있어서 쓰러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멀쩡하던 자네가 쓰러지면 어쩌나?"

"멋진 경치가 뭐라고 병든 몸을 이끌고 왔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 보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노인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하얀 파묵칼레를 원 없이 바라보았다. 파묵칼레의 목화솜처럼 하얀 목욕탕, 태연히 서 있는 개 한 마리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힌다. 박박 민 맨머리에서 피가 흘러 눈으로 들어간다. 우기리아가 손수건으로 내 눈두덩을 닦아주었다.

"나댈리우스의 눈 속에 파묵칼레가 들어 있네. 정말 아름다워요."

우기리아의 눈동자에는 내 몸이 초라하게 누워 있다.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된 느낌이 든다. 앰뷸런스가 달려와 응급요원들이 내 머리에 응급조치를 하고 이동침대에 내 몸을 눕힌다. 인솔자와 노인 부부가 함께 올라탄다. 이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타는 걸까?

이런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다지고 온 여행이었으나, 이런 사고는 당황스럽다.

응급실에서 머리를 몇 바늘 꿰맸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자네를 잃는 줄 알았네."

노인이 내 오른 손을 꼭 붙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해서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이가 오래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얼굴 한 쪽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굳어졌습니더."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그의 부루퉁한 표정이 이해가 되었다.

"처음부터 나 선생 얼굴이 낯이 익더군. 어려서 잃어버린 내 아들과 어찌나 닮았는지. 나 선생이 쓰러지자 황망 중에 따라왔구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나보다. 사실 그의 표정을 보면 화가 잔뜩 나 보여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다. 나도 혹시 내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정칠복이라는 걸 듣는 순간 바로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버지도 나찬삼에서 정칠복으로 바뀐 건 아닐까?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바닥에 물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했기에 망정이지."

인솔자는 울었나보다. 눈자위가 붉다. 우리 일행이 두 번씩이나 인솔자를 울렸다. 젊은 여자가 열여섯 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링거 한 병을 맞고 나니 힘이 난다. 바닥을 치고 일어난 듯 기분이 상쾌하다. 이제부터

는 내 몸 속의 암을 해독하는 디톡스 여행이 될 것 같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버스에 올랐다. 인솔자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어제 관광은 잘하셨나요? 나 선생님은 머리가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매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인솔자의 말에 우기리아가 토를 달았다.

"여러분, 드디어 나댈리우스가 부활했습니다. 자 자 박수 부탁해요."

모두들 힘차게 박수를 쳐 주었다. 격려는 나에게 힘이 되었다. 심리학자 아들러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라고 했다. 여기 터키에 내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추슬렀다.

인솔자는 메튜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메튜는 또다시 성실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몰입했다.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리아스'를 읽고 아킬레우스의 용맹에 감동 받아서 동방원정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트로이에 와서 무덤에 참배하고 트로이 아테나 신전에 걸린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자기 것과 바꾸어서 인도까지 정벌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에게 트로이는 영웅들의 피와 영혼이 서려 있는 성지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목동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헬레네를 짝지어 준다. 이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파리스의 조국 트로이가 불바다가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알렉산더 대왕 얘기는 처음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너무 예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처럼 생긴 게 훨씬 낫습니다."

여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메튜는 말실수를 수습하느라 쩔쩔맸다.

"트로이 전쟁은 헬레네왕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를 데려가자, 연합군을 모았고, 배가 천 척이나 모이게 됩니다. 헬레네왕비가 파리스에게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알려주었고, 파리스는 아킬레우스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인들이 다 물러가고, 목마만 바닷가에 놓여 있습니다. 적들이 목마를 두고 떠났다고 생각한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에 들였습니다. 다들 잠이 들었을 때, 목마의 배 쪽에 문이 열리며 정예군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성문을 엽니다. 승전 분위기에 취해 오디세우스의 계략인 줄 모르고 목마를 들인 그들은 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트로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트로이의 목마에 올라 사진을 찍었다. 신화를 직접 체험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복숭아 뼈 뒤 쪽을 본다. 아킬레우스의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슬며시

잡아본다.

"이제 다시 아시아 쪽 항구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아타튀르크 대통령이 막아낸 전투로 70만 명이 죽은 한이 많은 바다이지만, 지금은 너무도 고요합니다. 이곳 마르마라 해는 대리석 같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3000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0만 명의 영혼이 잠든 바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너무도 잠잠하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아서 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래, 나는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귀나이든!"

아침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태양처럼 빛난다. 이제 하루 남은 일정이 아쉽기도 하지만,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야소피아 맞은편에 있는 블루모스크에 들렀다. 1616년 술탄 아흐메트 1세가 세웠다.

벽면에 청색 타일을 붙였기에 블루모스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람들이 청색타일을 군데군데 뜯어가서 비루먹은 개처럼 보기 흉하다. 이슬람에서는 인물과 동물 형상을 금지해서 코란서체 예술인 아라베스크 문양이 발전했다고 한다.

이스탄불에는 차도르를 뒤집어쓴 여성들도 있지만, 짧은 반바지를 입은 신세대 여성들도 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예레바탄 사라이였다. 6세기 성 소피아 성당과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지하 저수 궁전이다. 들어갈 때부터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팔다리에 스며드는 것 같아 기분이 으스스했다. 지하궁전은 336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같은 모양의 기둥이 하나도 없다.

로마지배 당시에아테네 깔리 말마로의 경기장에서 104개의 기둥이 이스탄불 저수조로 옮겨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곳이란다. 제일 구석에 있는 기둥은 얼굴을 옆으로 누이거나 거꾸로 누인 메두사의 두상을 누르고 서 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아테네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정을 통하다가 괴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뱀으로 변해버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원래는 소녀였다니? 햇빛으로 나와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원래 그도 아름다운 소년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세월이라는 저주가 흉측한 몰골의 노인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노인이 되고 싶다. 늙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그랜드 바자르에 도착했다. 5천 개가 넘는 점포가 20개의 문을 가진 성 안에 있어 '카팔르차르시'로 불린다고 한다. 콘스탄티노플 상층부에서 유행하던 패션이나 장신구가 6개월 후면 통일신라의 경주 귀족사회에 소개되었다고

한다. 그때의 실크로드 교역을 이은 것이 바로 그랜드 바자르였다고 한다.

터키석, 러시아의 호박, 걸프 해의 진주, 산호, 이란의 에메랄드, 아프리카의 상아,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가 다 이곳에서 거래되었다. 터키에는 터키석이 없다는 말이 재미있다. 터키석은 이집트에서 건너오는데, 흥정을 잘하면 십분의 일 가격으로도 산다. 티벳인들은 터키석이 전염병과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파란 바탕에 눈 하나 그린 '나자르 본죽'은 악마의 눈을 파란색이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악의에 차 바라보는 눈을 몰아내는 구슬이라는 뜻이 있다. 나는 팔찌와 목걸이를 여러 개 사서 가방에 넣었다. 나에게 닥친 암이라는 악마를 나자르 본죽이 막아주기를 기대해본다.

터키청년이뒤지드라를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자르본죽을 흔들었다. 영화배우처럼 잘 생겼다. 자신감 넘치고 자유롭고, 육체적인 남성을 물씬 풍기고 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지다. 터키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뒤지드라가 가슴 앞에서 양팔을 엑스자로 만들며 눈을 흘기고 있다.

"노 땡큐, 노 땡큐!"

뒤지드라가 노 땡큐만 연발하고 있다.

그 청년은 쏘다니드라에게도 나자르 본죽을 흔들었다.

"할머니, 싸게 줄게 와요."

청년의 어색한 한국어에 쏘다니드라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할머니로 보여? 죽을래?"

사실 두 사람은 동갑인데, 쏘다니드라는 체격이 우람하고, 뒤지드라는 소녀처럼 가녀린 몸매를 하고 있다.

우기리아가 뒤지드라를 향해 깔깔거리며 웃는다.

"이 나이에 횡재한 줄 알아. 아가씨 까지는 좋았는데."

"왜요?저 청년이 뭐라고 했는데요?"

우기리아가 청년의 얼굴을 슬쩍 보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가씨? 아이 원트 섹스. 그랬지 뭐야."

"그런데 노 땡큐라니요? 감사하지만 사양한다고요? 아이고, 욕을 해줘야지요. 욕 몰라요? 갓댐."

주먹을 불끈 쥐고 청년을 노려보았지만, 녀석은 그 잘 생긴 얼굴로 다른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여자들은 외출했다가 히야까시 당하지 않으면 집에 와서 운다잖아. 예쁜 거에 끌리는 게 남자의 본능인 걸 어쩌겠어? 뒤지드라가 복권 맞은 거지 뭐."

하여튼 우기리아의 못 말리는 초 긍정이다. 이스탄불에서의 기억에 남는 마지막 장면이다.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가이드 메튜와 작별인사를 했다.

"자자, 가져왔다가 남은 간식은 저에게 다 주고 가십시오. 밤에 친구들과 먹으며, 여러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배낭에서 컵라면을 꺼내 건네주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 먹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먹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혀가 깔깔해서 제대로 먹지 않았는데, 이곳 음식이 대체로 입에 맞았다.

"난 터키가 딱 내 체질이야. 나도 여기 남을까? 매튜?"

우기리아는 아쉬워하며 매튜와 포옹했다.

"난 향내 나는 현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살이 좀 빠졌어."

쏘다니드라가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문질렀다.

나는 메튜의 손을 힘주어 잡고 흔들었다. 외국에 혼자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와서 뿌리박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이 기특했다. 그를 보니 나도 암과 맞설 용기가 생겼다.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 컨베이어벨트에서 돌고 있는 여행가방을 찾아들었다. 열여섯 명의 여행객들은 인솔자를 중심으로 가방을 하나씩 끌어다 놓고 모였다. 한국시간으로 시계를 맞췄다. 6시간이 앞서 갔다. 터키에서 벌었던 시간을 인천공항에서 반납했다. 6시간을 반납했듯이, 대장암수술 받고 치료받는 기간 일 년을 반납할 생각이다. 결국 인생은 본전인 거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다 놓고 빈손으로 갈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조급하지 않다. 일 년 후의 삶을 꿈꾸면 된다. 이것이 이번 여행에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한다.

"꼭 전화 연락합시다."

열흘 간 동고동락했던 만큼 다들 정다운 얼굴이 되었다. 처음 인천공항에서 만나 통성명을 할 때까지만 해도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저 남자 여덟 명, 여자 세 명, 노부부, 신혼부부, 인솔자, 그리고 나는 혼자 여행 온 남자였을 뿐이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한 보스포러스 제 1대교처럼 여행이 우리를 이어주었다.

"나댈리우스, 수술 잘 받아요."

우기리아가 포옹하며 등을 두드렸다. 그녀의 오동통한 살집이 내 앙상한 뼈를 목화솜처럼 감쌌다. 참 포근하다.

뒤지드라는 가방을 다 뒤집어서 뒤적인 후에야 교통카드를 찾아들었다. 별명과 딱 들어맞아서 다들 웃음이 터졌다.

"데모튀라스 덕에 럭셔리한 버스로 편하게 여행했습니다."

스포츠머리인 데모튀라스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내가 내민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인솔자께서 우릴 잘 챙겨준 덕분입니다."

인솔자가 멋쩍게 웃었다.

긴긴 버스 여행에서 별명을 만들며 킬킬거리던 게 곧바로 추억이 되었다. 별명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노인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용기를 내서 그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동해 오는 길에 꼭 연락주세요."

그는 손바닥으로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나 선생 덕분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네."

부인은 내가 준 동해 무술도장 명함을 흔들었다. 노부부는 뒤돌아섰다. 부인은 꽃분홍색 여행가방을 밀며 걸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절룩절룩 걸어갔다. 노인 부부가 동해에 놀러올 확률은 일 퍼센트도 안 된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라고 한들 기억을 잃은 그에게서 뭘 기대하겠는가? 함께 식사라도 하고 헤어졌으면 좋으련만 다들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그들의 얼굴을 내 눈에 담아두려고 눈을 크게 떴다. 우리는 다 안다.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사실을……. 그리스와 터키 여행을 떠올릴 때만, 기억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파묵칼레의 사진을 보면서 나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동해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아직도 집까지 가려면 한 시간 정도는 날아야 한다. 내 인생도 여정에 놓인 거겠지. 어디쯤 온 걸까? 내게 얼마의 시간이 남은 걸까? 갑자기 피로가 밀려들며 몸이 의자에 누룽지처럼 눌어붙었다. 온몸이 충만한 행복감에잠겼다.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심리학자 아들러가 내게 가르쳐 준 말이다. 아내가 이 책을 내게 권해준 이유를 알 것 같다. 나는 파묵칼레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댈리우스다. 이번 여행으로 내 마음은 충분히 해독이 되었다. 앞으로도 남은 내 인생을 디톡스하는 여행으로 채워야겠다.

최우수상

당신 거기 잘계신가요

시 / 이정민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

최우수상 • 시 / 이정민

바람은 구름을 이고 천천히 행진 중이에요
혈관 같은 강과 만년설을 덮고 잠든 산 위로
구름이 꼭꼭 숨겨뒀던 창공의 지퍼를 열며
내가 갑니다 내 방 거울만한 창문을 향해
저 멀리 태양이 말간 얼굴로 손을 흔들어 보여요
땅에 발이 닿지 않아 천년을 떠돌고 있는 바람과
무릎이 시려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별들
이별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름달과 함께 떠오르면
살포시 창문에 귀를 대어봅니다
당신이라는 온도 당신이라는 음정 당신이라는 섬
날개에서 날개로 옮아가 피어나는 감정들
비행기도 그림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겠지요
계절에서 계절로 새들의 항로엔 국경이 없고
지상의 마른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뒤꿈치를 들어 남쪽으로 움직이는 나무들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접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당신이 준 편지로 비행기를 접었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면
태평양 한가운데 띄운 종이배보다
단단한 활자가 되어 영겁을 떠돌겠지요
편서풍이 창문마다 걸린 얼굴들의 엉덩이를 밀어주어
무사히 당신의 어제에 당도했습니다
밤하늘을 반으로 접어 찍어낸 것처럼
찬란한 샌프란시스코의 밤을 가르며
이제는 내일을 살고 있을 당신에게
시차만큼의 편지를 모국어로 씁니다
당신 거기 잘 계신가요

우수상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수필 /한아름

히말라야 로터스
소설 / 권갑점

플라잉 타임
시 / 김형미

엡실론의 창공 이데아
수필 /염동렬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수상 • 수필 / 한아름

어쩌면 그날 아침, 창가에 피어오른 고혹적인 안개를 바라보며 배낭을 꾸릴 때 알아챘어야 했다. 그 안개 뒤로 기나긴 실수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평생 한번 있을 신혼여행의 두 번째 날이었다. 우리는 전날 통통하게 채워진 배낭 두 개와 큰 캐리어 하나를 들고 영국 런던의 변두리 호텔에 도착했다. 신혼여행지는 스페인이었지만 중간에 런던에서 경유해 20시간을 머물고, 다음 날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하도록 비행편을 예약했다. 24시간 안으로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레이오버(무료 경유) 덕에, 잠깐이나마 영국에 들러서 꼭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며 가며 런던 시내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꽤 좋은 계획이었다. 계획까지는.

우리가 런던에서 투숙한 호텔은 사성급이라고는 하나 약간 좋은 모텔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 특유의 낡은 분위기는 이국적인 느낌으로 색다르게 다가왔다. 온통 삐그덕대는 건물 틈새의 잡음은 고풍스러운 클래식처럼 들렸다. 방 안에 짐을 풀고 나니 맥도 함께 풀려 우리는 낡고 큰 침대에 아무렇게나 누워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다. 히드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세 시간이나 걸려 피곤했지만 오는 길에 보았던 런던의 풍경에 흠뻑 취해버렸던 것이다. 나는 딱 20시간이지만 런던을 들르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이런 똑똑한 계획성이라면 우리의 결혼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창창하겠는지 신나게 떠들어댔다.

런던의 풍경은 저녁에 공연을 보러 가는 길의 이층 버스 안에서도 마법을 부렸다. 어쩌면 저렇게 옛 건물을 고스란히 살려 놓았을까. 역사와 전통을 저렇게 아름답게 계승했을까, 쉴 새 없이 풍경을 보고, 느끼고, 사진에 담았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내릴 곳을 한참 지나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층 버스에서 점프하듯 뛰어 내려 택시를 집어탔다. 값비싼 '런던 러시아워 체험'이었다. 다행히 라이더의 영혼을 가진 기사를 만나 공연장 입구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고 입장은 극장에서 정해놓은 시간인 이십분 뒤에나 할 수 있었다. 결국 앞의 장면을 몇 개나 날려먹고 치즈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쥐처럼 고개를 숙이고 좌석을 찾아 파고들었다. 오직 이 공연을 위해 런던 레이오버를 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연은 반 토막이 났지만 그날 밤의 무대는 훌륭했다. 공연이 끝난 후 또다시 시가지를 길게 가로질러 호텔로 돌아왔다. 내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런던의 비와 안개에 반

쯤 홀려서.

정신을 바짝 차린 덕에 새벽에 눈이 자연스레 떠졌다. 여섯시 반. 바르셀로나 행 열한 시 비행기를 타기까지 씻고 아침 식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우리는 호텔 로비와 연결된 카페에 앉아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를 한껏 즐겼다. 창 밖에는 연보라색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을 먹은 후엔 노란 꽃잎이 손을 흔드는 천변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바쁘게 출근하고 있는 런던 직장인들 틈에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뒤, 우리는 배낭과 캐리어를 싸든 채로 빠르게 그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이층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멈춰 서서 사진 찍는 일도 빼먹지 않았다. 인천 공항으로 접근하기 편한 홍대 근처에 살았던 탓일까, 공항이라는 공간이 동네 버스 정류장처럼 친근한 글로벌 시민이 된 탓일까. 인천 공항을 출발할 때 경유지에서 필요한 모든 수속도 미리 밟아주겠다며 몹시 친절했던 외항사 직원의 미소에 방심했던 걸까. 우리는 시간 계산을 완전히 잘못하고 말았다. 수속을 밟았으니 공항에 40분 전 쯤 도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계산에는 수화물을 다시 부칠 시간과 느릿느릿한 런던 지하철의 운행 상황, 긴 도보 환승 구간과 헷갈리기 쉬운 여러 개의 터미널 등이 빠져 있었다. 또한 급한 와중에 터미널 정보를 잘못 준 마음씨 좋은 런던 아저씨의 친절은 미리 생각할 수도 없는 변수였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 출발시간이었고, 바르셀로나 행 비행기의 탑승구가 닫혔다는 표시등이 깜빡였다. 우리는 비행기를 놓쳤다.

외항사의 창구 직원은 나이든 여자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다. 마치 정많은 이모처럼 억울하고 부끄럽고 화가 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자신의 표정에도 담아주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은 여행을 잘 하면 돼' 하며 다독여주었다. 한화로 약 삼십만 원. 다음 비행편을 잡아 티켓을 변경하는 데 든 돈이었다. 나는 깊숙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소리내서 말했다.

– 남은 여행을 잘 하면 돼.

남편도 소리 내서 말했다.

– 남은 여행을 잘 하면 돼.

– 이 비행기 티켓 싸게 구했다고 삼일은 기뻐했는데. 도루묵이네.

– 어쩌겠어. 남은 여행을 잘 하면 다 만회가 되는 거야.

– 잘하자. 앞으로.

–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자.

다짐을 넘어 자기 최면 수준의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그러다 진이 빠지고 말았는지,

지고 있던 배낭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기내에 실을 배낭이었지만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등에 지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캐리어와 함께 그 배낭을 수화물로 붙였다. 공항까지 뛰느라 지쳤기 때문이다. 그것 또한 다른 의도는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실수는 이어져 있다. 삶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실수란 없다. 잃어버리던 사람이 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늘 또 잊어버린다. 공연 시간에 늦었던 사람은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을 수 있고, 평정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건도 잃어버릴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은 아침부터 줄줄이 일이 꼬여있었다. 다음 비행기로 드디어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했지만 조금 전에 부쳤던 배낭은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햇반과 라면, 반찬, 침낭이 든 낡은 캐리어만 찾았을 뿐, 모든 옷, 약, 세면도구와 더불어 신혼여행 때나 입을만한 속옷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지품이 든 내 배낭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같은 런던-바르셀로나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절반 정도가 수화물 코너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뱅뱅도는 컨베이어 벨트 주위에서 사람들은 미어캣 무리처럼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 유감이야. 하지만 우리 항공은 매년 적지 않은 짐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너희들이 출발한 터미널의 분실사고는 특히 빈번하지. 짐을 찾게 되면 집으로 보내줄게. 그러니까 집에 가 있어. 참, 이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화내지는 말고.

직원은 가방을 잃어버려서 아우성인 사람들에게 훈육중인 유치원 교사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친절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심정적으로는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책임자 나오라 그래' 땡깡을 놓고 싶었지만, 직원의 묘한 당당함에 눌려 짧은 영어로 더듬더듬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오렌지 색 배낭은, 내, 신혼여행, 짐인데, 나는, 너무, 당황했어, 꼭 좀 찾아줘, 그리고, 난, 여기, 집이 없는데, 어떡하지.

간신히 그날 묵을 호텔 주소를 적고 공항을 터덜터덜 나왔다. 밤에 예약해 두었던 플라맹고 공연도 날아가고 말았다. 남편은 왜 더 따져 묻거나 화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영어를 못해서. 아는 만큼 화를 낼 수 있는데 아는 게 없었다고. 대신 난 표정으로 화를 냈어, 그때 당신이 내 표정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온 몸으로 화를 냈건만 바로셀로나에 머문 삼일동안 짐을 찾았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배낭 없는 배낭여행이 시작되었다. 3주 동안의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한 숙소에 길면 삼일, 짧으면 하루를 묵었는데 숙소의 카운터에서 혹시 짐이 올지 모르니 오면 꼭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 하는 것으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갈음했다. 한 숙소에서 다른 숙소로 옮길 때마다 주소를 적어두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작문한 절절한 영문 손 편지

를 팩스로 항공사에 보냈다. 내일은 올 거야,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올까, 설마 내일 오겠어, 하루하루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임시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비닐 재질의 손가방에 넣어 다녔다. 짐을 풀고 쌀 때마다 남편은 나를 '봉지 생활자'라고 놀려댔다.

필요한 물품은 얼마든지 현지 조달이 가능했지만, 무턱대고 쇼핑을 해서 짐을 늘릴 수는 없었다. 수화물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도보 순례길이었다. 스페인을 신혼여행지로 결정했던 계기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꼭 걷고 싶었던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끝자락에서부터 완주하자면 대략 800km, 40일 정도가 걸렸겠지만 우리는 일정상 전 코스를 걸을 수 없어서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100km 조금 넘는 거리를 걸을 5일 코스를 선택했다.

도보 신혼여행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앞으로 함께 평생 걸어야 할 결혼 생활의 지침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발 한발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걷자는 다짐으로 택한 여행지였다. 상징적으로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좋은 장비들이 필요했다. 하루에 20km, 짧게는 6시간에서 8시간씩 걷는 데 용이한 초경량의 트래킹화, 초경량의 아웃도어 용품들을 정성들여 구입해 야심차게 배낭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정작 순례길의 초입에 선 내게는 급히 구입한 값싸고 묵직한 트레킹 화, 봉지에 든 속옷 몇 벌, 단벌 추리닝뿐이었지만. 초경량의 아웃도어들이 기억 속으로 공중부양되는 동안, 시간은 어느새 산티아고로부터 110km 지점의 작은 마을, 사리아로 우리를 이끌었다.

순례길 첫날 너무나 흥분해서 걸어야 할 길을 뛴 탓인가, 싸구려 트레킹화가 뒤꿈치를 사정없이 깨물었기 때문일까. 일곱 시간을 걸어 포르트마린에 도착해 누웠을 때, 무릎 뒤의 움푹 패인 근육에 건드릴 수도 없을 만큼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뒤꿈치는 유리 조각이 박힌 것 같아서 게스트하우스의 이층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었다. 페이스조절이고 뭐고 신나게 망아지처럼 뛴 결과다. 왜 오랫동안 걸어온 순례자들이 햇빛 없는 새벽에 출발해 말을 아끼며 무표정하게 경보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에게 30여일 째 걷기만 해온 생활이란, 어렵게 얻은 관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싸움이었다. 종착지에 도달하기까지, 그야말로 계속 걷기위해 걷는 하루하루였던 것이다. 남편이 바르는 약을 사왔다. 말이 통하지 않는 마을 상점에서, 이번에는 그가 극심한 통증을 온몸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고작 둘째 날에, 발을 내딛을 때 마다 괴성을 지르며 걷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콜택시 번호가 나를 유혹했다. 택시를 타든, 걷든, 산티아고에 도착하는데 의의를 두자는 생각도 슬쩍 올랐지만, 신혼 도보여행의 '상징적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걸어야만 했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서 오른 손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산 나무 지팡이를 왼손에 들고, 다른 여행자들이 새벽 여섯시에 출발해 두세 시에

끝내는 도보 일정을 우리는 아침 아홉시에 시작해 밤 아홉시에 마쳤다. 먹은 만큼 걸었기 때문에 먹고나면 금세 배고파졌다. 그날 섭취한 에너지원이 다 고갈되면 쓰러져서 자야만 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의 청사진을 그릴 시간 같은 건 없었고, 아침에 되면 부은 발을 부여잡고 다시 걸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단지 같은 풍경을 볼 뿐이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하루 종일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연의 무한성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즈음엔 어김없이 숙소가 보였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반겼다. 비슷한 거리를 비슷한 시간동안 걷기에, 한 숙소에서 만났던 사람을 다음 숙소에서도 만나게 된다. 여행의 거의 마지막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숙소에 도착하면 습관처럼 잃어버린 수화물의 행방을 체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행자들도 우리가 수화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숙소나 길에서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왔다.

– 코리안 걸, 짐은 도착했니?

아니, 아직. 어쩌면 이 여행이 모두 끝나도록 못 찾을지도 몰라. 하지만 오히려 그 배낭이 없는 게 다행이지 뭐야. 이렇게 아픈 발을 이끌고 걷자면 그게 다 짐이었을 테니까. 사실 지내다보니 배낭이 없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담근 성지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랐다. 산티아고는 그냥 산티아고였다. 서울이 서울이고 인천이 인천이듯이. 환영한다는 인사도, 팡파레도,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찬 빛나는 강도 없었다. 옛 도시의 풍모를 보여주는 곳은 성당 부근의 골목이었다(심지어 성당의 절반은 공사 중이었다). 산티아고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차이나 식당과 일식집에서 자축의 만찬을 벌이면서도 우리는 붕 뜬 기분이었다. 많은 순례자들이 모인 순례 인증소에 도착하기까지.

한 장의 종이로 된 인증서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거나 존재가 갑자기 고양되었다거나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인증소 앞에서 만난, 그동안 길 위에서 마주쳤던 사람들과의 포옹, 눈인사, 짧은 환영과 위로의 말이 그곳을 산티아고로 만들어 주었다. 결혼한 지 사십년이 된 기념으로 산티아고에 왔다는 노부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을 즐겨'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유모차에 갓난아이를 싣고 길을 걸었던 스페인 부부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우러나온 존경을 담아 올린 엄지 인사를 나누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여행의 의미는 도착지에 도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내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을 여행하고, 걸었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한다. 오직, 그 길 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것을 보증한다. 특히 나와 묵묵히 함께 걸었던 그 사람만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배낭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영영 도착하지 않을 모양이다. 에필로그를 덧붙이자면 이렇다. 인천 공항에 도착하니, 그동안 우리에게 감감 무소식이었던 외항사의 작은 사무실이 보여 들어갔다. 한국 직원은 가방이 분실되었는데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 주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다. 보상절차를 밟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분실품의 무게에 비례한 보상 근거 조항을 읽게 되었다. '초경량, 초경량'을 외치며 사모았던 고가의 아웃도어 용품들은 정말 가벼웠던 나머지 산출한 보상금도 지극히 가벼웠다. 다행히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의 신혼여행 사진에는 늘 멋진 관광명소가 가득 담겨 있다. 거기엔 늘 똑같은 단벌 추리닝을 입은 신부가 보였다. 신랑은 신부에게 옷에서 퀘퀘한 냄새가 나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농담을 던졌고, 신부는 뾰루퉁하게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서있다가는 함뿍 웃는다. 배낭이 없어져서 오히려 다행이지 뭐야. 그 긴긴 길 걷는 동안에.

종종 사라진 배낭을 떠올린다.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적어놓은 열 몇 군데의 주소를 따라 우리를 뒤쫓아 오고 있었을까, 아니면 영엉뚱한 비행기를 타고 생뚱맞은 나라에 가 있을까. 이왕 사라진 김에, 아주 독특하고 상상도 못한 곳이나 우리의 발이 닿지 못할 곳을 돌아다녀주었으면, 하고 상상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시골 동네에 어느 날 오렌지 색 배낭이 발견된다. 아이들이 배낭을 뒤져보니,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호피무늬 속옷이나 화장품통이 가득하다. 이상한 괴생물체가 되었을 말린 북어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왕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도 있다.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껏 상상한다. 이 배낭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면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할까, 저 하늘 위를 오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닿을 수 있을까, 이 배낭을 쓰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오렌지 색 배낭이 세계 곳곳을 여행을 떠난 지도, 우리가 결혼한 지도 사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묵묵히 함께 걷고 있다.

히말라야 로터스

우수상 • 소설 / 권갑전

제1장

1. 거짓말 같다. 써니가 이 공항에서 사라졌다니.

첸나이공항을 빠져나오자 남인도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달려들었다. 7년 만에 만나는, 내 오감이 기억하는 바람이다. 수많은 릭샤왈라 사이를 빠져나오는 동안 탁– 탁– 숨이 막혔다.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바람은 인도의 아침을 따끈하게 데워놓았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발가락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푹 삶을 것 같았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처럼 빠른 속도로 걸었다. 인도를 처음 방문한 여행자처럼 두리번거리다보면, 운전기사들의 접근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 공항 앞 택시 승강장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꺼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릭샤들이 지나갔다.

푸른 교복을 입은 인도여학생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써니와 비슷한 여자만 봐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여학생은 기내용 가방에 묶인 네임 태그를 풀었다. 그 옆에 하얀 셔츠를 입은 청년이 여학생 머리에 유리로 된 머리핀을 꽂아주었다. 청년은 커다란 여행용가방에 팔꿈치를 얹고 여학생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여학생이 마중을 나온 것 같았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툭' 여학생 머리에 꽂힌 별모양 머리핀이 떨어졌다. 맑고 투명한 유리가 산산조각이 되어 내 발밑까지 파편이 튀었다. 경적을 울리며 공항터미널로 들어오던 지프차가 급정거를 하더니 두 사람을 태우고 출발했다. 바닥에서 머리핀 별 한 조각을 줍던 내 손가락에 꽃봉오리처럼 피가 솟았다. 선홍빛 손가락을 꾹 누르며 첸나이 공항 밖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7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 써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사립학교 국어선생이 된지도 1년이 지났다. 방학이 한번 있었지만 올 수가 없었다. 써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자신이 없었다.

2.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학기말 성적정리를 하면서 나는 집

중력을 잃었다. 성적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평균을 내고 순위를 매겨야 하는데 계속 오류가 떴다. 커피를 들고 온 은수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강선생! 어디 아픈 것 아니야? 방학 때 건강검진이라도 해 보는 건 어때?"

은수가 더 말을 하기 전에, 머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의자를 돌려 앉았다. 왼손에 만져지는 종이가 부드러웠다. 몇 달을 넣고 다녔던 인도지도였다. 내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했던 원인이기도 했다. 며칠 전, 인도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은수가 펄쩍뛰었다.

"지금 제 정신 아니지? 맞지?"

"…"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확대 해석하지 마. 나는 단지…"

"몰라. 강선생 마음대로 해. 아빠가 이사장실로 호출이야 "

은수가 나가면서 꽝 닫는 문소리에 천정이 무너질 듯 했다. 이사장 입장에서는 큰 배려였다. 그러나 나를 이사장실로 불러 세운 교감은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쏘아보았다.

"강선생! 방학 때 학교를 비운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염치없는 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염치? 나는 모르겠어요. 강선생이 알아서 해요. 후회하지 말고"

오이장아찌처럼 쭈글쭈글해진 교감의 눈매를 피해 고개를 숙였다.

이사장을 등지고 돌아서던 교감이 까칠하게 말을 던졌다.

"요즘 선생들은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야"

"…"

"지금 학교가 어떤 상황인줄 다 알면서 똥고집을 부리다니 원…"

은수 아빠인 이사장은 교감 옆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교감선생! 일주일간만 다녀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학교이사장인 은수아빠도 처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짓'이라며 화를 몹시 냈다. 그러다가 슬며시 조건부승낙을 했다.

"잊지 말게. 가을에는 꼭 결혼식을 올려야하네."

제2장

1. "슈렉? 내가 아는 코다이학생 맞지요?"

칼튼호텔 주인은 학교 다닐 때 나의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곳 학생들과 몇 몇 사람들은 코다이카날을 코다이라고 줄여 불렀다. 주인은 숙박부를 작성하면서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가족들이 코다이카날 도시에 오면 늘 특실을 배려해 주었다. 특실이라고 해야 이층 한가운데 있는 전망이 좋은 방이었다.

호텔주인은 한국산 접이식우산을 좋아했다. 부인이 더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꽃무늬가 화려한 것으로 사왔다. 학교 다닐 때, 개학 선물로 사다 준적이 몇 번 있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코다이는 수시로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 곳 사람들은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우산을 특별한 선물로 여겼다. 색상이 곱고 무엇보다 튼튼해서 좋아했다. 우산을 살피던 주인이 말했다.

"슈렉! 그거 알아요? 이번 여행이 특별한 행운을 줄 거요."

주인은 뜸을 들였다. 안경을 코 근육으로 한번 밀어 올리더니 시간을 끌었다.

"놀라지 마시우? 글쎄, 12년 만에 핀다는 쿠린지가 이제 막 피기 시작했다우"

달뜬 주인의 목소리는 자신의 눈동자까지 흔들어댔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핀다는 쿠린지는 코다이의 자랑이었다.

"옛날부터 이 꽃을 본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지금 여행객들이 코다이로 몰려오고 있지요."

2. 아침에 눈을 뜨니 창문에는 햇살들이 손가락을 튕기고 있었다. 커텐을 걷었다. 코다이학교 교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2층 방이었다. 학교 후문에 있는 이 호텔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꽤 있었다. 입학이나 졸업 때 또는 학기 중에도 가족들이 오면, 학교에서 가까운 이 호텔을 선호했다.

학교 앞 육거리에는 가게가 즐비했다. 잘 익은 파파야와 노오란 망고가 수북수북 쌓여있었다. 써니는 망고를 좋아했다.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맛'이라며, 손바닥크기의 망고를 한 자리에서 두 개 이상을 먹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망고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일가게를 지나면, 친구들이 '티벳식당'이라고 불렀던 '티베탄 브라더스 레스토랑'이 있다. 레스토랑 옆에는 전화가게가 있었는데, 여행자들처럼 나도 자주 이용했었다. 오토바이 두 대가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초록색으로 단장을 해서인지 산뜻했다.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뒤의 여자는 허리에 붙이듯 업고 있는 아이의 머리에 흥건한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따르릉..... 내 짐작이 맞았다. 은수는 학교에

있었다.

"잘 도착했어."

"왜 휴대폰을 정지시켜 놓았니?"

"인천공항에서 도난당했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도난신고는 당연히 했겠지?"

"응. 비행기 출발 전이라 조치하고 왔어."

"…"

전화가 끊어졌는지 은수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뒤에 있던 아기 업은 여자가 사라지고, 검은 터번을 두른 남자가 슬리퍼로 탁탁 문을 치고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은수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기 걱정은 말고 잘 있다 와"

"걱정 말라니?"

"그냥… 왜 그렇게 예민해? "

"무슨 소리야? 지금 학교도서관 사건을 말하는 거야?"

"…"

은수는 대답이 없었다. 두두두 – 발신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수도 날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

3.

여름방학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학교에 사건이 발생했다. 1학년 1반 반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신문기자와 경찰들이 학교에 드나들었다. 학교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교사들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교감선생이 긴급하게 소집한 교직원회의가 끝나자 은수가 우리교실로 왔다.

"학생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

"또, 왜 그래?"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던 은수의 얼굴이 굳어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겁이 없는 게 탈이야. 늦은 시간에 도서실에는 왜 갔느냐 말이야."

"가방을 가지러 갔다고 했잖아?"

"흥,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 뒷문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야? 시험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면 집으로 갈 일이지, 커피 마시러 카페는 왜 갔냐고? 응?"

"…"

"그리고 둘이서 범인하나 똑똑히 못 봤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
"현장을 들키지 않았다면, 1반 반장이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목격한 여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거니?"
"결과가 그렇잖아? 철딱서니 없는 것들 …"

교직원 회의장에 여학생 두 명이 불려왔다. 여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있던 교사들은 하나 둘 고개를 숙였다.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1학년학생이 잠이 온다며, 친구에게 커피를 마시러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 둘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1시가 넘은 줄도 몰랐다.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난 학교는 조용했다. 다행히 도서관 쪽에 희미한 불빛이보였다. 두고 온 가방과 문제집을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건물 뒤에 있는 큰 도로의 가로등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무섭기는 했지만, 둘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도서관 앞에서 손잡이를 돌리는데 열리지 않았다.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데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창문을 뛰어넘은 남자가 상의로 얼굴을 감싸고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울음 섞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살려 주세요"

열린 유리창으로 들어간 여학생들은 충격적인 현장을 보았다. 머리가 헝클어진 학생이 찢어진 교복치마로 자신의 알몸을 가리고 있었다.

목격담을 듣고 있던 교감선생이 여학생들에게 물었다.
"남자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니?"
"머리를 감싸고 어둠속으로 달아나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지?"
"저… 그건 … 당한 학생이 1학년 1반 반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신고를 했지?"
"다음날, 반장이 학교를 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이지 않아서 담임선생님한테 고백했던 겁니다."

학교는 극도의 긴장감이 돌았다. 별별 소문이 운동장에서 교실로, 교무실로 날아다녔

다.

'반장 그 앙큼한 기집애, 얌전한 고양이 같더니' '강간당한 게 분명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납치했나 봐?' '범인은 누굴까?' '덩치가 있고 유난히 큰 손을 가졌더래.'

시간이 좀 지나자 학생들의 수군대는 내용이 달라져 있었다.

'살아만 있다면 좋겠어.' '무서워서 학교를 오지 못하겠어'

경찰들이 수시로 학교를 드나들었다. 현장조사뿐만 아니었다.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학교주변의 CCTV를 모두 조사했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학교에 설치된 기계가 모두 고장이 나 있었다. 학교는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도서관은 교문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다.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있지만,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자습으로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었다. 교감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수시로 교직원 회의를 열었다.

동료교사들은 인도비행기 티켓을 조회하는 나를 방외지사처럼 대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이사장과의 관계도 한몫을 했다

은수는 내가 근무하는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의 무남독녀였다. 은수는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만났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뒤척이다가, 부족한 수면에 깊이 들어간 눈으로 내가 찾아가는 곳이 도서관이었다. 나는 전공서적 대신 시집이나 소설책을 읽었다. '읽었다'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날이 많았다.

대학도서관에는 늘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던 여학생이 있었다. 은수였다. 청바지에 아무렇게나 걸친 티셔츠를 입은 은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어느 날, 건성으로 시집을 읽고 있는 나에게 은수가 쪽지를 보내왔다.

"네가 보고 있는 타고르 시집, 빌려줄 수 있겠니?"

"…"

그 후, 은수는 자주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내 자리에 두고 갔다.

그 후, 전방으로 부대배치를 받자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보내왔다. 물론 책이나 펜 등, 소포가 오기도 했다. 나는 몇 번이나 고백했다. 인도에서 사라진 써니를 잊지 못한다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게 국어교사 기회를 추천해 준 사람도 은수였다. 동료교사들은 우리가 곧 결혼할 거라고 믿었다. 이사장이 나를 대하는 눈빛도, 강도를 높여가는 압력으로 느껴졌다.

4. 코다이에서 졸업을 앞둔 나는 미친 듯 쏘다녔다. 써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

일 수가 없었다.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을 다녔다. 군대 만기제대를 했고, 학교에 취직을 했다. 그 긴 시간동안 써니를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써니를 찾아 봐야했다.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인도로 가야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써니가 왜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써니와의 추억이 있는 학교에라도 가 봐야 할 것 같았다.

제 3장

1.'걱정 말라' 는 은수의 말이 걸렸다. 어느새 육거리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 앞까지 왔다.

육거리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보였다. 호텔주인의 말처럼 코다이에 쿠린지가 피고 있는데, 12년 만에 오는 행운을 놓칠 인도인들이 아니었다.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보다 인도 사람들이 더 많이 높은 도시로 올라왔다.

정문에 고딕체로 쓴 커다란 글자가 보였다. '코다이카날 인터네셔널 스쿨!'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는 모교를 향해 눈인사를 건넸다.

"하이! 코다이!"

"하이! 슈렉!"

나지막한 아치형교문이 반갑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낮고 편안해 보이는 저 아름다운 교문을 통해서 나는 학교를 다녔다. 써니를 만났고, 공부했고, 축구를 했고, 첫사랑을 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금방이라도 장난을 치며, 친구들이 교문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다. 써니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줄 것 같았다.

2.써니를 처음 본 곳이 학교정문 앞에서였다. 코다이학교의 아치형교문은 디자인이 독특했다. 양쪽에 세워진 낮은 돌기둥과 금색으로 새겨진 글자문양은 사진배경으로 훌륭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써니를 처음 만나던 날, 친구 생일파티장인 티벳 식당에 가기 위해 교문을 나서는 중이었다. 이미 마법을 믿지 않는 소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발을 멈추고 말았다.

한 소녀가 교문을 배경으로 서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었는데, 체크모양의 푸른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 단발머리소녀였다. 주름치마를 길게 입은 여성이, 사진기를 들고 있었다. 소녀의 엄마 같았다. 소녀의 엄마는 웃으면서 소리쳤다.

"윤시윤! 웃어봐"

"…"

소녀는 웃지 않았다. 미소에 음계가 있다면, '레'에서 머물고 만 웃음이었다.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될까봐, 교문 뒤에 있는데 소녀의 엄마가 다가왔다. 깊게 패이는 보조개가 미소와 함께 인상적이었다.

"한국학생이니?"

"네"

"미안하지만 안내 좀 부탁해도 될까? 우리 시윤이가 이 학교에 상담하려는데…"

나는 산머루처럼 까만 눈동자를 가진 소녀이름이 '윤시윤'이라는 것을 알았다. '윤시윤! 시윤! 하고 입안에서 불러보았다. 소녀의 엄마가 '윤시윤!' 하고 부르면, 하늘과 땅 사이 가득, 금싸라기처럼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다이의 햇살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찔끔찔끔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태양만 나타나면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나는 소녀의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현기증을 느꼈다. 초록색 코끼리 무늬가 들어간 인도신발을 신은 소녀가 신비롭게 느껴졌다. 나는 코끼리의 코에 시선을 두고 대답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날 '비지터 센터'로 소녀를 안내하고 있을 때였다. 친구들이 창문을 열어 제치고 환호를 보냈다. 단발머리에 보조개가 들어가는 소녀의 등장에 친구들은 일제히 휘파람을 날렸다. 남학생들은 동양에서 온 귀여운 여자아이들을 좋아했다.

친구들을 향해 나는 엉덩이 뒤로 손을 뻗어 브이 자를 날렸다.

우리학교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도시는 인도의 더운 기후와 달리 쾌적하고 시원하다. 여행 중에 방문하는 학생들과 부모들도 많다. 그래서 '비지터 센터'에는 입학상담교사가 상주하고 있다. 소녀는 인터뷰를 했다. 듣기와 쓰기 테스트를 끝낸 교사는 만족한 얼굴이었다. 말하기 테스트만 통과하면 제1차는 합격이었다.

"학생! 지금 여행 중이라고 했지요?"

"네"

"그럼 학교를 못 올 수도 있겠네요? 양쪽부모님 승낙을 받아야 하니."

"저는 이 학교에 반드시 올 거예요."

소녀의 단호한 대답에 모두들 소녀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눈망울에서 간절함을 느꼈다.

"아빠를 설득해서 저는 이 학교를 꼭 다닐 겁니다."

소녀의 엄마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학생은 이 학교에 온지 얼마나 되었나요?"
"일 년 반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은 어때요?"
'이때다' 싶었다. 나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과 소녀의 엄마, 그리고 소녀를 차례대로 쳐다보았다. 배에다 힘을 주고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내린 저음으로 대답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코다이학교를 다닐 겁니다."

3. 소녀를 기다렸다. 주말이면 학교 안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했다. 소녀가 올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윤시윤!' 이름을 불러보았다.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햇살들이 교회유리창에 매달린 채로 속살댔다. 부풀게 움직이는 햇살들도 '써니!' '써니!' 하고 날아오는 것 같았다. '써니!' 나는 소녀의 닉네임을 지어놓고 기다렸다.

그날부터였다. 써니와 나를 중심으로 시간이 흘러갔다. 학교식당 앞, 가로등을 감고 올라간 담쟁이넝쿨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기숙사 건물에 귀걸이처럼 달려있는 풍경도, 풍경은 찾아오는 바람을 위해, 하루치 이야기를 종으로 울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밤, 가로수 아래 서 있는 흰 소를 보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슴이 텅 빈 소도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았다.

가을학기가 시작되자 교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함성도 우렁찼다. 농구를 하고 나오다가 '비지터센터' 계단을 내려오는 써니를 보았다.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다.
"써니!"
시윤이는 고개를 돌렸다. 신기했다. 한 번 더 불러 보았다.
"써니! 정말 왔구나?"
"써니라니?"
"하하! 네 별명을 지었는데... 어때?"
"좋아. 슈렉!"
"슈렉? 내 이름이? 왜 슈렉이니?"
"네 친구들이 수혁! 수혁! 부르는 소리를 엄마가 슈렉으로 들었나 봐."
나는 갑자기 '슈렉'이 되었다. 써니도 자꾸 웃기만 했다.
"오늘은 '미'까지 웃었네?"

써니의 볼우물은 나를 설레게 했다. 웃음에도 음계가 있다면 '도'까지 웃게 하고 싶었다.

4. 학교 앞에서 잠시 옛 생각에 젖었다가 발길을 돌렸다. 7년 동안 그리움을 키운 코다이호수로 향했다.

코다이호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다.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을 가진 펀자비드레스와 전통사리를 입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의 행렬은 바람결에 날리는 긴 스카프 한 장과 같다. 스카프의 배경은 하늘을 담은 파란호수다. 수양버드나무와 작은 배, 어슬렁대는 개, 귓속말로 웃는 연인들, 새집처럼 작은 가게들이 모두 이 스카프 한 장에 들어있는 무늬 같다. 여행자들을 태우던 하얀 말은 실밥스티치처럼 박혀 있다가 금방이라도 힘차게 달릴 태세다.

코다이는 여름휴양지로 유명하다. 인도의 다른 여행지와는 많이 다르다. 2,1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시원하다.

수시로 비가 내렸지만, 비가 개이고 나면, 키다리나무들은 성큼성큼 햇살을 퍼다 날랐다.

인도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했다. 주말이면 영화를 찍으러 온 배우들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별호수로 몰려들었다.

학교에서 100미터 거리에 있는 코다이호수를 학생들은 '별 호수'라고 불렀다. 호수의 형태가 뾰족한 꼭지를 다섯 개 가진 별처럼 생겼다.

별 모양의 꼭지점에서 잠시 쉬었다. 호수위에 떠다니는 작은 배가 보였다.

별 호수에는 온기라고는 없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진 시간, 의자에도 머리가 길어진 찬바람이 앉아 있다.

슈슈의 찻집이 보였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녹슨 리어카 한대가 전부였다. 피부가 검은 슈슈는, 주둥이가 긴 주전자를 높이 올리고 짜이를 따르고 있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슈슈도 제법 나이가 들어보였다. 배낭을 멘 노랑머리 여성이, 김이 솔솔 올라오는 짜이를 들고 후후 불며 마시고 있었다. 리어카 뒤에는, 황토 흙으로 만든 일회용 잔들이 버려져 언덕을 이루었다.

"하이! 슈슈!"

"슈렉?"

슈슈는 주전자를 던지듯 놓고 달려왔다. 뺀을 씹었는지 붉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으이그! 웃지나 말든지... 여전하군"

걸레를 들고 나오던 슈슈의 어머니가 아는 체를 했다. 물 빠진 펀자비 드레스를 입은

슈슈의 어머니는 손과 발은 검은데, 손톱만 하얗다. 빗질을 하지 않은 흰머리가 마른풀처럼 날리고 있었다. 조금 전 수양버드나무에 날아다니던 허연 꽃가루를 보는 것 같았다.

슈슈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했다.

"슈렉! 혼자 왔어?"

'아차!' 싶었는지 슈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호수위로 원을 그리며 퍼져가는 자신의 말을 주워 담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슈슈는 낭패한 얼굴이 되었다. 슈슈가 끓여주는 짜이만 마셨다

5. "슈슈! 나중에 올게. 저녁 같이 먹자?"

나는 일어섰다. 슈슈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타밀어로 눈짓을 해 가며 내 손을 잡아끌었다. 리어카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비닐기둥을 가리켰다. 슈슈어머니 손가락 끝을 따라가던 내 눈길은, 기둥에 딱 멈추고 말았다. 누군가 리모콘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일시에 멈추어 버렸다.

슈슈가 다가와 휘청대는 내 허리를 잡았다. 내 눈동자는 누렇게 변한 코팅 종이 한 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친구를 찾습니다. 18세, 한국인, 이름 윤시윤, 코다이학생, 닉네임 써니, 단발머리, 보조개, 키167,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행방불명 됨.'

한글로 쓴 글씨체가 뭉툭해졌다. 여러 번 글자위에 덮어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아래 희미한 숫자가 보였다. 코다이학교 전화번호였다. 글자는 어린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삐뚤삐뚤했다.

"전단지 기억나니?"

"7년 전 우리가 함께 만들었지?"

"슈렉! 글자가 바래 질 때마다 그 위에 다시 썼어. 1월1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지. 그래서 글씨가 엉망이야. 미안! 글을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어서... "

내 허리를 잡고 있던 슈슈를 끌어안았다. 슈슈도 나를 안고 내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슈슈의 등에서 7년이란 세월이 느껴졌다. 내가 없는 동안, 써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끄러웠다. 슈슈는 나보다 한 살 많았다. 써니가 행방불명이 되자 전단지를 만들자고 했던 슈슈였다.

"슈렉! 사실 나는 글을 쓸 줄 몰라. 한 장만 써 줄래"

지금처럼 슈슈가 울고 있던 나를 안고서 했던 말이다.

"써니가 살아있다면, 별 호수에 반드시 올 거야. 졸업하는 슈렉 대신 내가 꼭 기다릴

게.”

슈슈어머니가 다가와 내 손에 휴지를 쥐어주었다. 나는 슈슈의 눈물까지 닦았다.

추억들은 모두 시간의 먹이가 되어버렸다. 햇살이 비칠 때나 바람이 불때마다 무리를 지어 반짝이며 별호수로 날아가 버렸다.

6. 나는 어느새 도서관을 향하고 있었다. 행정실과 상담실을 지나 그 끝에 광장이 있다. 광장에 붙은 도서관 외벽에는 담쟁이넝쿨이 멋지게 어우러졌다. 초록드레스로 단장을 한 숙녀의 자태 같았다.

실내는 밝았다. 유리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 때문이었다. 또한 빛이 모이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햇살은 물론 별빛, 달빛이 모두 들어오도록 설계를 했다고 들었다.

겨울에는 태양을 따라 의자를 옮겨가며 해가 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나와 써니의 관계도 그럴 줄 알았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것처럼, 나도 영원히 써니의 축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믿었다. 원형으로 된 도서관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학생들이 많았다

“에-에취!”

부탄 전통복을 입고,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른 남학생이 재치기를 했다. 미안했는지 ‘으쓱’ 눈동자를 코믹하게 굴리자 여자 친구는 허리를 젖히고 웃었다.

바람의 율동으로 다져진 근육의 계절, 파리만 날아가도 웃음이 쏟아지는 계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부러웠다. 나무그림자가 길어진 시간까지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다. 외진 이 자리는 사서선생의 시선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원형테이블 너머에 있는 사서선생 시선을 피해 써니랑 처음으로 입맞춤을 했었다.

써니는 〈어린왕자〉를, 나는〈헤리 포터〉를 읽고 주인공에 대한 에세이를 쓰던 주말이었다. 써니가 연필 끝으로 내 팔을 툭 쳤다.

“슈렉! 저 나무 꼭 망토를 두른 것 같지 않아?”

내 눈에도 라임나무 이파리는 망토 같았고, 나뭇가지를 받쳐놓은 굵은 막대는, 어린왕자가 오른손에 들었던 지팡이처럼 보였다.

“정말이네? 어린왕자랑 똑같네?”

그때부터 라임나무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었다.

써니도 없이 청년이 된 어린왕자를 혼자 만나고 있는 내가 슬펐다

코끝이 찡해오며 두 눈에 눈물이 돌았다.

"많이 컸구나? 행복하니?"

7.의자에서 일어서자마자 현기증이 일었다. 한국판 도서를 꽂아둔 서가까지 책상모서리를 잡고 걸어갔다. 한국학생들이 가지고 온 책이 두 칸이나 늘어나 있었다.

나는 3시 방향 위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책꽂이에는 여름햇살에 노릇하게 익은 바람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눈을 감고 왼손장지를 높이 올렸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 일렬로 꽂혀있는 도서의 왼쪽부터 차례차례 훑기 시작했다. '차르르 차르르르르'

옛날부터 써니가 했던 책 고르는 동작이었다. 나도 써니를 따라했었다.

책의 크기와 종이의 두께, 그리고 표지의 질감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마시다가 흘렸을 차의 향기까지 음미했다. 눈을 감고 손가락 끝으로 리듬을 타며, 온 몸으로 책을 고르던 써니 모습은 흑백기억의 한 장면이었다.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부드럽고 투박하고 향기롭고 너덜대는 책표지가 내 손끝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책 한권이 손가락에 걸렸다. 툭 튀어나온 표지가 넓다는 느낌이 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이 책을 쓴 저자와 제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금서를 잡듯, 첫사랑 손을 잡듯, 떨렸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여전히 코다이에서 써니를 기다려준 책이었다. 책장을 넘겼다.

〈소년의 인디아〉
2009년 2월 6일 1판 1쇄 펴냄
글. 그림. 사진 슈렉

나는 코다이를 졸업하기 전 책 한권을 출판했다. 일반도서보다 큰 사이즈로 만들어 도서관 한국도서진열장에 꽂아놓고 굳게 믿었다. 이 책이 써니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책 속에는 숨도 쉬지 못하고 엎드려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함께 영화보고, 밥 먹고, 공부했던 친구들 얼굴이 스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 써니가 있었다. 써니는 123페이지에서 17살로 멈추어 있었다.

123쪽의 사진 속에 써니가 웃고 있다. 디왈리 축제일이었다.

디왈리 축제의 유래는 인도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락슈미 여신이 악을 물리치고 승리를 한 후, 지구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래된 공통점이었다. 디왈리 축제에서 경배하는 대상도 지역마다 달랐다. 힌두 달력 여덟 번째 달,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5

일 동안 불을 밝히고, 신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여성들은 집 안팎에, 전통문양인 랑골리를 그려서, 환하게 장식을 했다. 축제의 셋째 날은 '빛의 축제'라고 했는데, 먼 길을 오는 여신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환하게 불을 밝혔다.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의 신들을 맞이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큰 축제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모여 축제를 벌였다.

이날은 써니의 17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나비넥타를 빌려서 메고 무스를 한껏 발라 머리를 세웠다. 그러나 사진 속 나는, 여드름도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생이었다.

친구들은 평소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 운동장으로 가느라 서둘렀다. 나도 써니를 기다리며 케네디기숙사 앞 돌계단에 서 있었다.

낮은 창문을 장식하던 엔젤 드럼펫 향기가 공간을 에워싸고 있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팔을 불어주는 것 같았다.

기숙사 문이 열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쟈스민 생화를 머리띠로 꽂은 써니가 나타났다.

"하이! 슈렉!"

"…"

인사를 멋지게 하지 못했다. 악을 물리친 락슈미 여신이 걸어오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불꽃잔치였다. 지구로 귀환하는 락슈미여신을 맞이하기 위해 전교생이 다 모였다. 교장선생과 학생대표가 운동장에 준비한 글자에 접속하자, 불꽃은 쏜살같이 어둠을 뚫고 환하게 타들어갔다. 높은 하늘에 선명한 글자가 나타났다.

"축! 디왈리 축제"

"축! 코다이카날 인터네셔날 스쿨!"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코다이주민들은,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함성이 쏟아졌다. 여신이 길을 잃지 않고 우리 학교로 올 것 같았다.

"써니! 생일 축하해"

써니 손등에 뽀뽀를 하는 순간, 하늘높이 올라간 축포가 펑펑 터졌다. 학교건물과 나무들, 학생들의 얼굴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다. 기쁨이 충만한 표정들이었다.

나는 또다시 써니에게 속삭였다.

"써니! 잊지 마. 언제나 내게로 올수 있도록 불을 켜 놓을게"

졸업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졌다. 나는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 가야했기 때문에 서둘러 책을 냈다. 오자가 멀뚱멀뚱 쳐다보았지만 고개를 돌려버렸다. 매끄럽지 못한 문장

도 있었지만 외면했다. 글도 다듬고, 내용도 보완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탈고를 했어야 했다.

사진 속 내 어깨에 머리가 닿는 써니가 서 있다. 그날 써니는 드레스 속으로 높은 구두를 신었다. 사진 속 써니는 열일곱이지만, 드레스를 입은 자태는 성숙했다. 디피카와 써니 사이에 서 있는 사진속의 나는, 생크림을 바른 유령같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써니야! 어디 있는 거니?"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다. 도서관에 학생들이 몰려왔다. 책을 펼쳤다. 목차에 등장하는 추억들이 태엽을 풀 듯, 천천히 시간을 돌려놓았다.

두통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다가 천천히 팔 아래로 쓸려오는 압력, 그러다가 가슴께로 오는 감각을 가라앉히려고 심호흡을 크게 했다.

나는 행운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유는 알고 싶다. 써니는 왜 사라졌을까?

졸업을 앞 둔 그때처럼, 한없는 미궁으로 빨려 들고 있었다. 미궁 끝에는 늘 슬픔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써니 아버지 말처럼 써니는 이 세상에 없는 걸까?

8.코다이 학교 다닐 때였다.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코다이 다니는 한국학생들의 미팅이 있었다. 홍대 앞 '붉은 원숭이' 카페에서다. 개학 때 챙겨갈 책이나 준비물 등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는 중요한 모임자리였다.

약속장소로 걸어가는데 길가에서 오리처럼 생긴 오카리나를 팔고 있었다. 갈색이나 검은색 오카리나 사이에 하얀 오카리나가 눈에 띄었다.

써니에게 주려고 포장을 해서 '붉은 원숭이' 카페로 갔다. 얼굴 턱 선이 갸름해진 예은이는 스트레이트파마가 잘 어울렸다. 인도여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의 찰랑대는 머리를 부러워했다. 수목이는 프린스턴 어학원에서 '토플'과 '에세이' 공부를 했다며 쑥스러워했다. 모두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써니와 연락된 사람?"

"지리산에서 온다고 했는데? "

친구들과 헤어질 때까지 써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무슨 일 있니? 연락바람"

"…"

"나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 중"

"…"

서울까지 오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문자를 다시 보낼까? 하다가 발신음을 눌렀다. 계속해서 신호는 가고 있었다. 가로수아래 세워둔 자전거 바구니에 마로니에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노인이 느릿느릿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파리가 떨어지는 나무를 올려다보는데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이힐 신은 여자가 자전거에 부딪혀 엎어졌다.

하마터면 써니의 목소리를 놓칠 뻔 했다. 수화기 너머 써니가 있었다. 캄캄한 밤하늘을 날아가는 종이새처럼 바스락대는 목소리였다. 써니는 '붉은 원숭이' 까페가 보이는 길 건너에 있다고 했다.

방학 때 길어진 머리를 묶지도 않고 나타난 써니가 낯설었다. 얼마 전에 지리산에서 만났던 써니가 아니었다.

"어디 아팠니?"

"아니"

샌들을 신은 맨발에 힘줄이 도드라져 발목까지 푸르게 보였다.

벤치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싸늘한 써니의 손가락을 내 허벅지에 올려놓고 따뜻해지도록 비볐다. 써니는 멍한 동공을 하늘에 두고 있었다. 써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카페 갈까?"

"피곤해."

써니는 두 눈을 힘없이 감으며 대답했다.

"슈렉 얼굴이 보고 싶었어. 이제 갈래."

오래 있는 것은 무리였다. 세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온 써니가 고마웠다. 지리산고속버스를 탄 써니가 손을 흔들어주었다. 하얀 오카리나를 든 손이었다. 오카리나를 직접 전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샤워를 하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써니의 표정 없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도착하는 대로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넣었더니 답장이 왔다.

써니의 문자를 보다가 놀란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전화를 걸었다. 새벽까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써니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며칠 전,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 때문이야."

다음날 지리산으로 찾아가려고 했다. 몇 번을 해도 써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

"슈렉! 나는 이틀 후 코다이로 출국할거야. 준비하느라 바빠. 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만나자"

9.코다이는 개학을 했다. 학생들은 개학을 이삼일 앞두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개학을 하자 교정은 쏘다니는 학생들로 다시 활기가 넘쳤다. 써니가 보이지 않았다.

케네디기숙사를 찾아갔다. 룸메이트인 디피카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써니의 방은 말끔히 비워져 있었고, 검은 드렁크만 침대 밑에 누워있었다.

기숙사 사감은 오히려 내게 물었다.

"써니가 행방불명이 되었대. 혹 슈렉은 소식을 모르니?"

"행방불명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

"써니 아빠가 다녀갔어."

"그럴 리가 없어요. 써니는 꼭 올 겁니다"

서울에서 본 써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불안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써니의 문자도 나를 못 견디게 했다.

써니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캠퍼스는 탄력있는 웃음소리에 비명을 질러대는데 그 어디에서도 써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숨도 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히말라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스민 꽃을 피우는 계절이 왔다. 마지막 학기를 맞이한 친구들은 진학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디서 써니를 만날까? 온 몸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입학원서를 들고 도서관으로 갔다. 방학 전 써니와 진학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써니! 넌 어느 대학으로 갈 거니?"

"산티니케탄"

"왜? 한국으로 가지 않고?"

"타고르가 세운 예술대학으로 갈 거야"

지금도 그 때처럼 써니랑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서를 쓰는데, 남학생이 지나가다가 내 오른팔을 툭 쳤다. 학생이 들고 있던 책이 내게로 떨어지더니 흩어졌다.

책을 줍는 순간, 운명처럼 일어나는 생각하나가 있었다.

"그래! 책이야!" 책을 써서 학교도서관에 진열을 해 놓고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비행기탑승자 명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코다이졸업을 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와 지리산 근처 써니의 집을 찾았다. 다행이 전화연락이 되어 써니 아빠가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러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는 분명 이름이 있었어. 그래서 인도로 날아갔지. 첸나이 공항에서부터 코다이까지, 그리고 다시 뉴델리까지 갔었지.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곳을 다 찾았어. 바라나시까지 갔어. 바라나시 강가에서 사람시체 태우는 것을 보고, 그 충격에 이틀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

석 달 동안 찾아다녔지만 흔적이 없었어. 공항에서부터 사라졌는지, 아니면 공항 밖 어딘가에서 사라졌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파트 거실은 깊고 음습한 숲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웠다. 창문 앞에는 일인용 검은 소파가 덩치 큰 불독처럼 앉아있었다. 온기라고는 없는 거실의 벽난로 위에 가족사진이 보였다. 써니는 엄마 쪽으로 어깨가 기울어져 있었다. 나뭇가지 하나를 툭 꺾어놓은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했다. 반쯤 열린 벽난로 안에 오카리나가 보였다. 내가 선물한 하얀 오카리나였다. 목에 걸 수 있는 끈이 보라색이라 기억을 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서 청년이 나왔다. 사진 속에서 본 가족이었다. 인사를 하려고 반쯤 일어서는데, 그가 몸을 돌려 옆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찬바람이 휙 지나갔다.

“신경 쓸 것 없다. 시윤이 오빠야.”

“오빠가 있었습니까?”

“그렇단다.”

잠옷바지를 입은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개학을 삼일 앞두고 인천공항에 시윤이를 데려다 주었지. 짐을 부치고 난 우리는 던컨도넛을 시켜놓고 있었어. 탑승시간이 두 시간이나 남아있었거든. 그때까지 시윤이는 가만히 손톱만 깨물고 있었어. 써니아빠는 안경을 벗었다.

“불쌍한 우리 딸! 엄마를 잃고 울가 정신을 놓기도 했었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이라 ... ”

써니아빠는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공항에서 내가 먼저 돌아섰지. 두어 걸음을 떼자 '아빠!' 하고 부르는 시윤이 목소리가 들렸어. 또다시 '아빠!' 하는 땅이 꺼지는 듯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 눈물을 보이게 될까봐. 공항을 빠져 나와 차에서 통곡을 했지.

가족사진을 보는 써니아빠의 눈에 눈물이 흥건했다.

"이제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모든 불행이 순식간에 일어났어. 갑자기 아내를 잃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시윤이가 사라지다니... 이제 가족이라고는 시윤이 오빠밖에 없는데... 저렇게 문을 잠그고 쳐 박혀 있으니 내가 더 미칠 노릇이지."

11.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다시 책을 펼쳤다. 〈소년의 인디아〉 뒷표지 글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 친구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나 대신 써니를 기다려 줄 것입니다.

나는 곧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만나야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책을 냈습니다. 침묵도 이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전 우주를 찾아 헤매더라도 써니를 꼭 만나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써니 얼굴이 있는 페이지에서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다. 써니는 옛날 얼굴 그대로였다. 매끈한 이마에 빛나는 빈디가 락슈미여신을 보는 듯 아름다웠다.

고개를 들고 흐르는 눈물을 들이켰다. '눈물 맛이 짜다' 고 생각하며 책을 덮으려는 순간,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둥글게 몸을 말고 앉은 눈물방울을 바라보는데 현기증이 났다. 이상한 기류에 다시 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는 숫자 한 줄이 살아서 움직였다.

7851 1456 4077 48217 2158 2136 6611

학생이 장난을 쳤을까? 또박또박 정성담긴 글씨체가 낙서는 아닌 것 같았다. 숫자들은 위아래로 흔들며 내게로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뭐지? 글씨체로 봐서는 한국학생 같았다. 외국친구들은 아라비아숫자 7자의 중간에 가로줄을 긋는다. 그리고 8이나 9도 외국인들이 쓰는 모양은 다르다.

〈소년의 인디아〉는 한국어로 된 책이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한국출신 학생이 읽어보았을 가능성이 컸다. '누가 이렇게 써 놓았을까?' '저 숫자의 의미는 뭘까?'

7851 1456 4077 48217 2158 2136 6611

책에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운명을 지배할 비밀인지도 몰라' '피식' 나오는 웃음을 거두고 여권을 꺼냈다. 순서대로, 크기대로 정확하게 옮겨 적었다. 숫자의 형태와 높낮이까지도, 그림 그리듯 똑같이 베꼈다. 공항에서 도난당한 휴대폰이 아쉬웠다. 나는 물에 젖지 않는 특수재질의 케이스에 여권을 잘 넣어서 숙소로 돌아

왔다.

침대에 누웠다. 동그라미를 그리며 돌아가는 천정의 선풍기에 몸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갑자기 선풍기가 떨어져 발가락을 다친 기억이 떠 올랐다. 바로 오로빌에 살고 있는 써니의 이모 집에서였다. 나는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생각났을까?'

제4장

1."남인도 타밀나두 주를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써니를 보며 룸비니큰스님은 말했다.

"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줘야겠다."

써니가 엄마를 잃고 갠지스 강 대신 룸비니로 왔을 때, 스님은 말했다.

"기와공장에 가 있거라.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만들어야 하지만, 여행자들이 붐비는 절보다는 나을 것이다."

룸비니 절에는 기와를 손수 만들었다. 써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흙으로 오카리나를 만들었다. 적당하게 흙이 말랐을 때, 구멍을 뚫어 음을 골랐다. 써니가 오기 전에는 큰스님이 했던 일이었다. 오카리나는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중요했다. 학교 다닐 때 플롯을 연주했던 써니는 음감이 뛰어났다.

써니는 공장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몇 년 동안 룸비니 밖으로 나가 본적이 없는 써니였다. 그런데 갑자기 남인도를 다녀오라니 겁부터 났다.

룸비니 식당에서 오카리나를 만지고 있던 아이는 열두 살 소년이었다.

"저 소년이 인도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래. 방학이 끝나자 엄마랑 같이 왔어. 인도에 있는 학교를 한 학기 다녔대.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네팔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아이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린 거야."

써니는 눈물이 쏟아질 뻔 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 '엄마'였다. 누군가가 부르기만 해도 엄마가 생각났다. 스님은 써니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대상포진이 심해서 얼굴까지 덮어버렸어. 한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뇌까지 전이되면 손을 쓸 방도가 없대. 무리한 여행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나 봐."

"학생!"

오카리나를 만지고 있던 소년이 돌아봤다. 머리에 노랑염색을 부분적으로 한, 귀여운

소년이 머뭇대며 왔다.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더니 합장을 했다. 스님 앞에서 신도처럼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써니가 웃었다.

"씩씩하게 생겼네? 학교이름이 뭐니?"

"남인도에 있는 코다이카날 인터네셔널 스쿨"

써니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코다이 말이니?"

"어떻게 아세요? 학교이름을 줄여서 '코다이'라고 부르는 것을?"

2. 써니는 오래전 룸비니에 엄마랑 왔을 때가 그리웠다.

그때, 룸비니 한국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도시마다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한국여행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어린 써니에게 말했다.

"분위기 있게 생겼네? 몇 학년이니?"

지리산 억양이 묻어나는 것도 부끄러운 데, 언니들은 자꾸 말을 걸었다.

"인도로 유학 올 생각 없니? 남인도에 가면 코다이카날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 곳에 학교가 있는데, 네가 간다면 분명 반할 걸?"

"…"

"헤리 포트 알지? 책에 나오는 마법학교 같은 곳이야"

"에이!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정말이야.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그 학교에 가고 싶어."

엄마가 바싹 다가와 관심을 가지며 물었다.

"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써니는 코다이카날 학교에 가보고 싶었다. 엄마를 졸랐다. 그런데 써니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

룸비니 절에 온지 다음날 아침이었다. 써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리를 했다. 당황했지만 더 놀란 것은 엄마였다. 엄마는 게스트 룸에 묶고 있는 한국여행자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생리대를 구했다. 그날 비구니스님과 언니들이 함께 써니 방으로 왔다.

"축하해요! 진짜 여자가 되었네요?"

비구니 스님은 자작나무 캔들에 성냥불을 붙이면서 웃어주었다

3. 코다이카날에 도착한 써니와 엄마가 먼저 찾은 곳이 학교였다. 일요일이라 학생들

은 보이지 않았다. 교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꼭 대학교 캠퍼스 같았다. 오래된 나무사이로 크고 작은 유럽풍 건물들이 보였다. 교회의 돌담을 타고 오르던 농염하게 능소화꽃이 일부 떨어져 붉은 카펫으로 깔려 있었다. 써니는 오로빌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왔다. 어쩌면 상상했던 학교와 너무 같아서 신기하기만 했다.

코다이국제학교는 책 표지로 자주 나올 만큼 고풍스럽다. 정문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인도 여학생들이 보였다. 기다렸다가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시윤! 웃어봐"

엄마는 학교정문에 써니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몇 번이나 '웃어봐' 소리쳤다. 학교 안에서 작은 문을 통해 남학생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써니는 교문에서 두어 발 앞으로 나와 있었다.

"수혁!"

누군가가 학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작은 소리로 써니에게 말했다.

"한국학생이 슈렉처럼 배경을 막고 있네?"

"엄마! 슈렉이 아니라 수혁이랬어"

'한국학생을 여기서 만나다니?' 써니는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았다.

'슈렉은 무슨?' 전혀 슈렉같지 않은 남학생이 보였다. 엄마가 당황해서 말했다.

"한국에서 왔나요?"

"네"

체크남방 안으로 보이는 초록 티셔츠와 물 빠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학생은 듬직하게 대답했다. 써니는 전혀 슈렉을 닮지 않은 학생이름이 처음부터 '슈렉' 인 것 같았다.

에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미녀를 사랑한 〈슈렉〉을 자주 봤다. 최근 슈렉의 캐릭터는 순정한 영혼을 가진 주인공처럼, 신뢰감이 최우선인 화장품 모델까지 하고 있었다.

"한국학생을 만나다니 행운이네. 학교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시윤이가 오고 싶다 해서"

엄마는 처음 보는 학생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고 있었다.

"우리 시윤이는 중학교 2학년이란다."

"저랑 같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시윤이랑 기념사진 한 장 찍을래?"

남학생이 얼마나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지 '슈렉 맞네?' 하고 써니가 돌아보았다. 써니보다 슈렉의 키가 한참이나 더 컸다.

후에 써니가 눈을 감은 슈렉 사진을 보며 놀렸던 적이 있었다.

"왜 눈을 감았니? 나랑 찍기 싫어서?"
"아니야. 그날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너무 눈이 부셨기 때문이야"

4. 입학식이 있던 날, 써니는 엄마하고 인도로 왔다. 책과 옷 그리고 이불 등 짐이 많았다. 엄마는 입학식 날 입기 위해 새 옷을 장만했다. 치마정장을 하고 매직으로 머리를 감아올려 단정했다. 써니 눈에는 인도의 전통사리를 입은 학부형들이 품위가 있고 돋보였다.

써니는 기숙사가 마음에 들었다. 여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케네디 기숙사에 배정되었다. 붉은 지붕과 하얀 창으로 아담하게 꾸며진 단층이었다. 네모난 건물 구조 한 가운데는 방에 비해 다소 넓은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었다.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규모 있는 구조였다. 침대와 책상과 책장, 그리고 옷장 가구가 방의 반을 차지했다. 정리를 시작했다. 일기장과 책들을 단정하게 꽂았다. 화장품과 속옷은 종이상자에 담아 침대 밑으로 넣었다. 책상 앞에 가족사진을 놓았다. 써니는 엄마 아빠랑 메밀밭에서 찍은 사진을 벽에 붙여놓았다. 코바늘로 짠 흰 모자를 쓴 엄마와 초록 원피스를 입은 써니가 아빠를 서로 안으려고 다투는 기분 좋은 가족사진이었다.

써니는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입학식이 끝나자 한국으로 가기 전 엄마가 포옹을 했다. 그리고 편지 하나를 건넸다.

"우리 딸! 엄마 가고나면 보렴."

써니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일기장 앞장에 편지를 붙여두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읽는 경전이 되었다.

"착한 우리 딸! 그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그리고 코다이 학교 입학을 축하해. 오늘은 엄마가 네 오른쪽 어깨에 날개하나 달아주었구나. 왼쪽어깨의 날개는 네 스스로 달고 맘껏 날아보렴. 지금부터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제5장

1. 나는 용수철처럼 일어나 배낭을 싸기 시작했다. 호텔 뒤에 있는 투어리스트 사무실로 달려갔다. 밤 10시 10분 오로빌행 심야버스가 있었다. 물론 자리가 없어서 웃돈을 얹어주었기 때문에 버스표를 살 수 있었다.

마음이 바빠졌다. 일주일간 인도를 다녀온다고 했지만, 한국으로 가기란 불가능

했다.

지금 한국은 오후 5시다. 방학이지만 은수는 학교에 있을 것이다. 교무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일반전화가 통화음 상태가 좋을 것 같아서였다. 예상대로 은수가 받았다. 그런데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은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멀리 끊어졌다가 다시 들려왔다.

"나 며칠 더 연장 해야겠어"

"뭐라...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지?"

"미안"

"그렇다면 ... 빨리 와. 아직도 ... 아직도.. 1반 반장 행방을 못 찾아서 ... 수사... 확대 ...지금 학교가 .. 엉망... 말이야"

2. 인도에 온 지 9일째였다.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 어떡하지? 12년 만에 피었다는 행운의 꽃! 쿠린지'를 보지 못하고 오로빌로 와 버렸네?'

쫑알대는 새소리에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2층 창가에는 오로빌 새가 다 날아 온 듯 지저귀고 있었다. 하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방이 새집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 맞겠다.

써니 이모는 마더의 사진 앞을 꽃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오로빌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싱싱한 꽃을 따다가 마더에게 바쳤다. 그 이유를 이모한테 들었다.

"오로빌은 스리오로빈도라는 스승이 정신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의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부부처럼 말이야. 오로빈도 곁에는 그의 영적 파트너인 미라알파사가 있었어. 사람들은 그녀를 마더라고 불렀지. 마더는 사막이었던 오로빌에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었지. 사람들은 마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어. '종교가 없어도 신에게 이르는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이모부가 크로와상 빵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여전히 부지런하시네요?"

"하하. 일찍 가지 않으면 빵이 없다니까"

써니 이모는 따끈한 빵은 내 앞으로, 갓 짠 산양 젖은 이모부 앞으로 두었다.

망고를 곁들인 아침식사는 먼 우주에서 지구로 소풍을 나온 듯 했다. 바나나 이파리 덕분에 발코니에는 초록바람이 일렁거렸다. 그늘 아래로 불어오는 참파 꽃향기가 강렬했다.

3. 써니의 소식을 물어보기에는 이모부가 나을 듯 했다.

"오늘 이모부님 따라 갈까요?"

"리어카 밀어봤어?"

"지난번 써니랑 왔을 때, 벽돌 쌓는 일을 했는데요?"

이모부는 그때도 명상센터에 일을 하러 다녔다. 벽을 타며 위험하게 벽돌을 나르던 이모부를 도와주면서 무척 힘들었다.

"그랬지? 요즘은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얼른 리어카 손잡이를 끌고 앞장서서 걸었다. 작은 리어카에는 괭이처럼 생긴 연장이 얹혀있었다. 이모부는 오로빌의 중심에 있는 마트리만드리 명상센터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명상센터 외벽을 따라, 돌을 치워내고 꽃을 심고 잔디를 가꾸는 일이었다.

"오늘은 소똥 수집하는 날인데 괜찮겠어?"

"소똥을요?"

"그래. 이곳은 원래 사막이었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도 잘 크지를 못했지. 그래서 소똥 썩은 거름이 제일 필요해. 하하! 놀라기는"

"...."

마을의 남쪽으로 갔더니 목동들이 모여 자치기를 하고 있었다. 나무마다 인도인들이 신성시한다는 소를 메어두었다.

인도 사람들은 소똥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연료로 만든 소똥에 먹는 빵을 굽기도 했다. '신발에 소똥이 묻을까?' 조심조심 담고 있는데 목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소똥을 거두어간다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노오 프라블럼"

이모부는 아이들을 향해 어깨를 올리며 바보처럼 오래 웃었다. 머리 한번 제대로 깎지 않은 듯한 아이들이 마주 웃어주었다.

"아직도 소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단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소똥으로 오로빌 정원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나는 마른 것만 골라 집게로 담았다. 이모부는 젖은 똥을 맨손으로 집어서 리어카에 담았다. 얼굴을 찡그리는 내 얼굴을 보며 크게 웃었다. 이모부 웃음소리에 자치기하던 아이들이 돌아봤다.

"한국에서 약국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더러운 똥을 맨손으로 담을 수 있죠?"

"세상이 너무 병들었어. 땅에게 명약을 처방하는 이 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야 하나요?"

"그럼. 약 4개월이 지나면 발효된 거름에 모래나 흙을 섞어서 정원이나 밭에 사용하면 꽃과 나무들이 잘 자라지. 가끔 소똥에 묻어온 씨앗이 꽃을 피울 때면 경외감마저 들어. 축변이 발효되지 않고 썩었더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는 여기 와서 알게 되었지. 사람도 죽으면 썩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도..."

겨우 체면치레 정도 수집을 해 올 수 있었다. 이모부는 부족하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 나가 소똥을 더 사 왔다. 모아놓은 나뭇잎과 풀 위에 수거한 소똥을 부었다. 나는 물을 적당히 넣고 섞어주느라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 다음날 한 번 더 통째로 뒤집었을 때에는 속이 울렁거려 종일 구토를 해대고 말았다.

4. 이모를 따라 반야트리 아래로 나왔다. 바람은 후덥지근했고 이모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 동안 써니 소식은? 들은 적 있니?"

"전혀요"

나는 침을 꼴깍하고 이모의 표정을 살폈다. 어쩌면 써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만 잊어야 해. 이 세상에 없는 아이니..."

"왜요? 죽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나도 몰라. 다만 찾을 수가 없다는 것 밖에"

"왜 모두 써니가 없다고만 하세요? 어딘가에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소식도 없었어."

멀리서 이모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모를 향해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나는 7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리더라도 써니를 기다릴 거예요.'

이모를 태운 오토바이가 멀어져갔다. 나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길에 망연히 서 있었다. 숲에 버려진 아이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숲길을 걸어 이모 집을 향해 걸어갔다. 슬리퍼를 신은 맨발은 흙먼지가 잔뜩 묻었다. 여러 갈래로 난 숲길은 비슷비슷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나무도, 길도, 꽃도, 하늘도 먼지도 흡사하다. 가다가 돌아오고 원점에서 또다시 가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렸다. 나무의 그림자가 짧은 것을 보니 해가 많이 남은 시간이었다. 반야나무 기둥 사이로 눈에 익은 집이 보였다. 외벽에 그려진 만다라 그림이 사라시자 선생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문에 노란색 쪽지가 펄럭거렸다.

"만다라 수업하러 갑니다. 5시 귀가 예정
나는 발가락이 아파서 다리를 뻗고 계단에 잠시 앉았다.
"아직도 선생님이 살고 계셨네?"

5. 그 옛날 써니의 이모를 따라 만다라 워크숍에 참여 한 적이 있었다.

롱 위크엔드 때, 써니와 오로빌에 왔었다. 그때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가 기억났다.

"서울이 고향인 사라시자 선생은 건축을 공부하러 인도에 왔었대. 어느 날 오로빌 사람들이 애용하는 쏠라키친 식당에서 만다라 그림을 보게 된 거야. 순간, 그림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대. 그때부터 오로빌에 살면서 만다라만 그렸다는데 이십년이 넘었구나."

사라시자 선생의 집에는 오로빌에 살고 있는 여성들 열 명이 모여 명상을 하고 있었다. 고래 숨 쉬는 소리 음악을 들으며 사람들은 헤엄치듯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명상이 끝나자 사라시자 선생은 도화지를 나눠주었다. 얼굴은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지만, 깊은 눈매가 오랫동안 명상한 수행자 같았다.

"명상 중 떠오른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만다라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만다라의 본래 의미는, 본질이 여러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어로 '만다'는 '진수' 또는 '본질'이라는 뜻이며, '라'는 '변한다'는 뜻이지요.

써니와 나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써니의 그림을 한참동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써니! 네 그림에 대해 설명 해 줄 수 있겠니? 안 해도 괜찮아."

"엄마랑 처음 인도 올 때, 네팔을 거쳐 룸비니로 왔어요. 한국에서 오신 스님이 절을 짓고 있었는데 엄마 아는 분이었지요."

"룸비니? 그랬구나? 그런데 이 설산은 뭐지?"

"명상을 하는 중에 히말라야가 보였어요. 사실, 내게는 룸비니가 특별한 곳이었죠. 첫 생리를 했거던요. 한국인 여행자들이 코다이학교를 적극 추천해 준 곳이기도 하고요.

써니의 이야기에 모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다.

"큰 스님은 대웅전 앞에 핀 연꽃 한 송이를 꺾어 축복해 주셨어요. 이 그림은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에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만다라를 그려놓고 차를 마시던, 한국에서 온 오로빌리언 두 명은 아예 써니를 향해 의자를 돌려놓았다. 사라시자 선생이 재촉을 했다.

"'히말라야 로터스'가 되어라."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명상 중에 스님이 말씀하신 히말라야 설산과 연꽃이 떠올랐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신기해요."

써니가 나를 돌아봤다. 뭔가를 말해주길 기다리는 표정으로 내 두 눈을 보고 있었다.

써니의 눈망울 안에 한송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맞아! 히말라야 로터스! 써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갑자기 정신이 든 나는 마음이 급해져서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6. "이모님! 내일 떠날 겁니다."

"잘 생각했어. 모두 잊고 한국가면 빨리 결혼해라. 알겠지?"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 예정대로라면 학교에 복귀를 해서 방학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래야 은수나 이사장님한테 면목이 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룸비니를 가야했다. 그 곳에서 써니의 소식을 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모부의 오토바이를 타고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가게 ISD를 찾아다녔다.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화기 상태가 아주 좋았다.

수화기를 더욱 바짝 귀에 대고 있는데, 은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당분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다는 말이지?"

"룸비니를 거쳐 히말라야로 가야해"

"강선생! 잘 들어. 반장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 사건은 장기화 될 거래. 학교에 수사반을 차려서 진을 치고 있어. 그리고 파손된 CCTV를 복구해서 범인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전국에 이미 배포했어. 김형사라는 작자가 말이야. 은근 강선생이 궁금한가 봐?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학교를 비우고 휴대폰까지 꺼져있냐며 ...

"나 한 학기 휴학하면 안 될까?"

"완전 정신이 나갔네? 김형사가 인도로 찾아 갈 태세야"

제6장

1. 켈커타에서 코락푸르 가는 열차는 5일 후에 있었다. 나는 바라나시로 가기로 했다. 그 곳이 지도상으로는 코락푸르를 경유해서 룸비니 가는 길이 더 빠를 것 같았다.

너무 이른 바라나시의 새벽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일찍 나왔더니 갠지스강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때 멀리서 시카라(작은 배)가 다가왔다. 노인이 강 너머 숲에서 아침일출을 보여주겠다며 타라고 했다. 노인은 강 위쪽으로 노를 저어가더니 청년을 태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몰려오고 있었다. 아니, 흘러가고 흘러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비가 멎은 강에는 붉은 황토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순례를 온 인도사람들과,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곧 태양이 떠오를 것 같은 분위기였다. 마침내 어머니의 강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경건한 자세로 태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강으로 들어가 머리와 가슴을 씻는 노인,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자세로 앉은 긴 머리의 사두, 물속으로 잠수하는 아이들도 보였다. 양초와 꽃을 팔기 위해 나온 소녀들, 검은 소가 지나가자 사리를 입은 여행자가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며 물속에 주저앉았다.

강을 건너 숲 가까이 갔을 때였다. 노인이 급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작은 배가 기울여졌다. 노인이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무심코 잡았다가 노인이 확 밀치는 행동에 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배 난간에 부딪혀 쓰러지자 노인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청년도 함께 왔다. 다시 배가 심하게 출렁댔다. 두 사람은 나를 배 밖으로 밀어버렸다. 얼떨결에 강에 빠져버린 나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다. 작은 배 뒤의 난간을 겨우 잡을 수 있었다. 노인이 신발로 내손을 지그시 밟고 있는 동안, 허리를 더듬던 청년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번에는 노인이 내 팬티 안까지 손을 넣고 더듬었다. 두 손으로 배를 잡고 있어 반항할 수가 없었다. 중요부위까지 한참을 뒤지던 노인이 크게 화를 냈다.

"에이! 재수 없어. 가자."

발로 내 손을 밀쳐낸 노인과 청년을 태운 배가 멀어져 갔다. 정신을 차려야했다. 물에 빠진 개미처럼 허우적대며 수풀을 잡았다. 갈대보다 키가 크고, 더 날카로운 수풀이 팔에 스쳤다. 그걸 한손으로 잡았다. 목과 얼굴에 피가 흐른 자리마다 아프고 쓰라렸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갈대를 건드리고 갈대는 호수의 수면을 건드렸다. 작은 물결이 발목을 건드렸다. 마지막 힘을 내어 물밑을 휘저어 보았다. 왼발에 물컹한 것이 닿았다. 짐승의 시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큰 짐승이었으면, 그것도 체온이 남아있는 짐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써니의 행방도 모르고 죽는구나."

지상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와진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2. 웅성대는 사람들 가운데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움직이는데요?"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이마 위로 올라 온 손이 따뜻했다.

"아! 숨소리가 들리는군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음..."

누군가가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학생이 있었다.

"괜찮아예? 형! 형이라 부를께예. 나는 '부산사투리'라고 해예.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불러 준 닉네임이지예."

나는 그 후 또 의식을 잃었다.

"형! 많이 아파예? 아이고, 땀 좀 봐. 큰일 나 뻤네"

고열이 나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방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 힌디어로 쓴 신문지가 접시를 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제 일들이 어렴풋 생각났다. 바라나시에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한기가 느껴졌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형! 뭐라도 좀 묵어야겠는데... 뭐 묵고 싶어예?"

"닭볶음 탕"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다시 곤하게 자고 있는 나를 흔드는 소리에 깨어났다.

"형! 어서 일어나예. 식으면 맛이 없당께예"

사실 며칠 전부터 매콤한 것이 먹고 싶었다. 부산사투리가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들고 오는데, 감자와 닭을 넣은 닭볶음탕이었다.

"어서 묵어봐예"

기가 막혔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맛있는 닭볶음탕은 난생처음이었다. 한 숟갈을 뜨니 매운맛에 마른기침이 먼저 튀어나왔다. 부산사투리는 내 숟가락 위에 닭 날개 하

나와 국물을 끼얹어주었다. 밥은 식당에서 사 왔다는데 기름기가 없어 폴폴 날아가는 쌀알갱이었다. 한 자리에서 한 접시나 되는 닭을 먹고 나니 살 것 같았다.

"죽을 것처럼 아프더니 이제 살 것 같네. 고마워"

"형, 그게 인생 아닌가예?" "짜식"

그날 밤 부산사투리와 게스트하우스 옥상위로 올라가 짜이를 마셨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곤했는지 부산 사투리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잠꼬대를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죽을죄를…

별 하나가 길을 잃고 지구로 떨어져 지금 내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부산사투리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특이한 디자인이었다. 모자 옆쪽에 글자가 박혀있었다. '내부수리 중'

부산사투리가 '무엇을 수리하고 있는 중일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반바지를 입은 다리에 어른주먹만한 알통을 드러낸 부산사투리는 볼수록 정이 갔다. 그런데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를 해대며 땀을 심하게 흘렸다.

"아!아! 미안해. 정말… 으아악… "

얼굴을 닦아주는데 갑자기 부산사투리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형! 무서워요?"

나는 내부 수리중인 부산사투리를 안아주었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축축했다.

"무슨 일이야?"

"형! 나는 진짜 나쁜 놈이라예"

부산사투리는 내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있지예, 우리학교 축구선수라예.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던기라예.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 했지예. 체육관 샤워 실에서 씻고 있는데예 그 여학생이 급히 뛰어오더만 자기를 숨겨달라고 했어예. 자신을 겁탈하려는 축구부선배가 쫓아오고 있다고예. 나도 그 선배를 잘 알아예. 팔에 문신하고 나쁜 일은 도맡아 하는 선배라 우리가 무척 겁을 내던 선배라예

나는 급한 김에 청소도구 보관하는 창고에 여자애를 밀어 넣었지예. 곧이어 달려온 선배한테는 교문 쪽으로 달아났다고 거짓말 했어예. 창고 안에서 그 여자애가 내게 기대고 소리죽여 우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듯 했지예. 그런데예. 겨드랑이가 찢어진 교복사이로 하얀가슴이 보이는기라예. 마음이 이상해지데예. 아랫도리가 잔뜩 부풀어 올라 여자애를 끌어안고 말았어예. 그그러러지지마 말을 더듬던 여자애를 …입술이 다가가자 여자애는

내 뺨을 때리고 달아나데예. 내가 미쳤지예? 상처받은 여자애한테 …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예?"

부산사투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부산사투리는 계속 이야기했다.

여자애는 다리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예. 그런데 축구부 선배가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예. 내가 악몽을 꾸었는지…"

그때부터였다. 부산사투리의 모자에 쓰인 '내부수리 중' 글자에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부산사투리는 진지했다.

"나는 한꺼번에 수면제를 먹었지예. 그 전에도 약을 먹어야 잠이 들었거던예. 나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겠어예? 엄마한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했어예.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예.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이 지구상 유일한 장소는 바라나시다고예.

부산사투리의 방황을 이해할 것 같았다. 예측할 수 없는 지구별에서, 생리현상을 조절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렸던 '어린별'이었다. 나는 바라나시에서 만난 어린영혼의 친구가 되었다.

3. 저녁식사 후 인더스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푼 여행자들이 옥상으로 몰려들었다. 멀리 가로등 아래를 스쳐가는 저녁안개를 보면서 쨔이를 마시는데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사자 눈을 하고 멀리 살피느라 옥상 끝에 있던 부산사투리가 뛰어왔다

"놀라지 말아예. 사람시체 태우는 냄샌기라예."

강가의 가트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건물옥상에서 시체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형이 왜 인도까지 왔는지 알 것 같아예"

"하하! 왜?"

"형이 몹시 아픈 날, 중얼중얼 이름을 불렀어예. 써니! 라고예"

"그랬어?"

"오늘밤 나는, 저 장작 위에 나를 태울 거라예. 형도 해 봐예"

"…"

"나는 다시 태어날거라예. 엄마한테도 전화 했어예. 내일 출국한다고 말입니더"

부산사투리는 내 허리를 번쩍 안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더니 내 머리위에 씌어주었다.

"선물입니더. 나는예, 이제 '내부수리'를 다 끝냈거던예"

부산사투리는 떠났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룸비니로 가야했다.

제7장

1.써니는 소년을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었다. 슈렉이 있었던 기숙사였기에 써니에게 익숙했다. 코다이학교의 남학생 기숙사가 학교밖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졸업도 하지 않고 행방불명 된 써니를 기억하는 교사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써니는 별호수를 향해 갔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별호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공원입구에는 카메라 장비와 사다리차가 설치되어 있었다. 영화를 찍는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초록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빌려 타고 페달을 밟았다. 슈슈네 가게가 보였다. 가슴이 콩닥거렸다. 리어카로 만든 가게 앞에서 김이 피어나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 틈으로 슈슈가 보였다. 붉은 스웨터를 입고 검정털모자를 쓴 슈슈는 멋이 있었다. 슈슈는 결혼했을까?

흙으로 만든 잔이 뜨거워 어쩔 줄 모르는 써니를 위해 대신 들어주던 슈렉이 보고 싶었다. 슈슈가 볼까봐, 걸음을 돌려야했다. '아! 모든 걸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슈슈의 친척아저씨가 일했던 저택 앞에까지 왔다. 안은 조용했다. 능소화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담장을 넘었는데, 가드너의 가위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멋진 대저택은 슈슈 친척아저씨가 일하는 집이라고 소개했다. 별 모양의 호숫가에는 그림 같은 집들이 많다.

써니는 옛날, 슈렉과 함께 저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갔던 추억을 떠 올렸다. 슈슈의 친척아저씨는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택의 가드너로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 주인들은 영국에 있는데 가끔씩 온다고 했다. 슈슈의 친척아저씨는 투박한 손으로 홍차를 끓여 왔다. 꽃그림이 그려진 고급스런 잔이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아저씨는 긴 가위를 들었다. 주홍색 멜빵바지를 입은 아저씨는, 정원에서 꺾어온 흑장미를 써니에게 주었다. 슈렉은 '타고르' 시를 암송했다. 시낭송 실기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해 왔다.

써니는 평소 별호수에서 시를 낭송해 주던 슈렉의 모습을 좋아했다. 슈렉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흑장미를 높이 들고, 슈렉이 읊었다.

"갇힌 자여! 나에게 말해 다오. 그대를 가둔 자, 그는 누구인가?"

써니가 다음 구절을 낭송했다.

"나의 주인 슈렉입니다."

장난기 가득 찬 얼굴로 써니는 마지막 문장을 패러디했었다.

2.저택 앞에서 옛날을 회상하는 써니 앞에 카메라를 든 남자가 왔다. 영화관련 사람 같았다.

배우들을 보기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야했다.

'삶이 영화라면, 슈렉의 대본에 더 이상 나는 없을 거야'

써니는 지금 '영화를 찍기 위한 이별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에서 '이별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이고 싶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나면 슈렉을 만나러 빠르게 달려가고 싶었다.

스텝들 사이에서 머리와 수염이 긴 남자가 다가와 써니 앞에 손을 내 밀었다.

"아가씨! 친절을 베푸세요"

"당신도 연기하는 중인가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중이지"

써니는 수염이 긴 남자가 분장을 한 배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신은 성자인데 히말라야로 가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는 루피를 받아 넣으며 써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젠가 '레'로 떠나는 역할을 꼭 맡으세요."

"'레'라구요?"

성자의 길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써니는 햇빛이 뭉글뭉글 얽혀서 시야를 가로막는 현기증으로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다.

3.써니는 인도로 유학을 간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학이 있었지만 한국에 오지 않고 오로빌에 있는 이모 집에서 지냈었다. 10살 아래인 조카의 한글공부를 가르치며 요가와 악기공부를 했다. 가끔은 이모네가족들과 인도의 최남단 깐냐꾸마리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시윤아! 보고 싶다. 이번 방학에는 꼭 오면 좋겠구나"

전화기속에서 거의 울고 있는 아빠를 견딜 수 없도록 보고 싶었다.

"오빠도 군대 가고 없어서 집이 텅텅 비었단다."

써니는 인도로 유학을 간 후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4.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갈 때 딱 한번 써니가 사는 시골로 슈렉이 내려왔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지리산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이나 걸렸다.

지리산계곡은 서늘한 공기가 다른 세계였다. 등산길까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파편이 날아와 시원하고 상쾌했다.

써니는 운동화를 신고도 잘 걸었다. 등산화를 신고도 힘들어하는 슈렉을 놀렸다. 돌이 많은 산길은 처음이라던 슈렉이 가내쏘 폭포가 보이자 주저앉았다. 슈렉의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다.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 바위를 발견하고 신발을 벗었다. 써니는 따끈하게 데워진 바위에 팔을 벌리고 누웠다.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파리 위에서 팔랑대고 있었다. 옆에 누운 슈렉이 팔베개를 해 주었다. 오른쪽 손가락을 넓게 펴서 써니 얼굴위로 그늘도 만들어 주었다.

"어! 얼굴에 별이 있었네?"

써니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흉터였다. 그럴수록 슈렉은 자세히 보려고 했다.

"슈렉! 흉하지?"

"무슨 소리? 신비하기만 한데?"

슈렉에게는 별모양인지, 벌집모양인지, 써니의 흉터가 커다란 매력으로 보였다.

써니는 왼쪽가르마를 타고 머리카락은 오른쪽 광대뼈가 덮이도록 내렸다. 머리가 날리는 체육시간이 가장 싫었다. 써니의 흉터를 본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만나지도 않았다.

써니에게는 이 세상에 없는 바람이 되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다. 다리미로 가해를 해야만 했던 사연을 슈렉에게 고백해야한다고 결심했다. 오른쪽 광대뼈 옆에 선명하게 그려진 써니의 과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악몽이 또렷했다. 다리미가 보였다. 써니는 자신의 얼굴을 괴물처럼 만들기 위해 코드를 꽂았다. 다리미를 오른쪽 광대뼈에 짓누르고 있는데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뜨거워진 다리미를 써니는 놓지 않으려 하고, 엄마는 뺏으려 하면서 오열했다. 그 날도 오빠가 써니 몸을 건드리고 달아난 후였다.

허리를 뒤척이는데 슈렉은 저려오는 팔을 빼려고 힘을 주었다. 그러다가 써니의 가슴위로 엎어졌다. 허리를 빼 내려는 써니를 힘을 주며 안았다. 슈렉의 입술이 다가왔다. '아! 오빠와의 이야기를 고백해야 하는데...' 가까이에서 등산객들의 인기척이 들렸다.

지리산을 내려오면서 슈렉은 많이 아쉬운 눈치였다. 읍내에 있는 〈더 숲〉 까페에 앉아 써니를 졸랐다.

"자고가면 안될까?"

"큰일 날 말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코다이친구들 모임 때 서울서 만나자. 잘 가"

슈렉의 은근한 태도에 써니는 집으로 와 버렸다. 후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싶었다.

지리산에서 흘린 땀으로 속옷이 다 젖었다. 써니가 샤워를 하는 동안, 계속 슈렉이 생각났다. 백무동 계곡의 바위에서 다가온 슈렉의 숨결이 생생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된 원시의 바람이 배려한 청량한 키스였다. 슈렉의 아랫도리가 신경 쓰였던 순간을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져 샤워기를 최대한 강하게 틀었다.

5. 써니의 꿈나라에도 지리산 바람이 불고 있었다. 써니 곁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다. 써니는 슈렉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을 감았다. 슈렉의 키스는 아쉬웠다. 어둠속에서 침대가 조금 움직였다. 써니는 슈렉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눈을 뜨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았다. 꿈속에서도 꿈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문 흔들리는 소리가 덜컹댔다. 갑자기 한기를 느꼈다. 설핏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써니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눈을 떠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써니의 방 앞에서 격하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써니 목을 감고 있던 손을 풀고, 황급히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써니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어둠속에서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써니 몸에서 떨어져 방을 나가는 사람은 오빠였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 써니 방을 향해 돌아서있는, 하얀 잠옷을 입은 엄마를 보며 써니는 쓰러졌다.

써니는 억울했다. 살고 싶지가 않았다. 오래전에 사라져야 할 목숨이었다. 써니가 인도유학을 간 후 집에 오지 않은 이유가 오빠 때문이었다. 그런데 군대 갔다던 오빠가 휴가를 온 것이었다. 써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사라져야 끝이 날 운명이야'

써니는 베란다 문을 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달려들었다. 화분을 밟고 창틀로 올라섰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로 사라지리라.' 오른발을 창틀위로 올렸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몸이 떨렸다. 그 때였다. 오빠 방에서 악을 쓰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가 악몽을 꾸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분명 보았을 것이다. 이 세상을 끝낼 사람처럼 피를 토하는 엄마의 절규에서 다 알 수 있었다. 써니가 '뛰어내려야 하나?' 생각한 짧은 순간, 오빠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최후의 순간에 악마만이 낼 수 있는 피울음에 써니는 은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창틀에 올린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오빠를 질타하는 엄마의 목소리와 거칠게 창문을 여는 소리, 와장창 깨지는 유리창소리, 순간이었다.

"안돼!"

"아아악!"

오빠의 비명소리가 엄마의 비명소리를 삼켜버렸다. 창틀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로 몸이 굳어버린 써니는 어둠속으로 떨어지는 물체를 보았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캄캄한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엄마가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렸던 그날 새벽, 바람도 불지 않았다.

6. 세상은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이 없어보였다. 태양도 그대로였고 아침도 한 치 오차없이 밝아왔다. 그러나 써니에게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있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견딜 자신이 없었다.

"아빠! 인도로 갈래요. 방학도 다 끝나가고..."

"시윤아! 엄마를 잃은 지 일주일밖에 안되었는데 ..."

써니는 엄마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다.

공항을 가는 중에도 써니는 아빠를 향해 자주 웃었다. 다행이었다. 영원히 몰라야 했다. 써니는 아빠까지 잃을까 두려웠다. 엄마를 따라 아파트에서 뛰어 내릴 수가 없었다. 엄마영정 앞에서 약속을 했다.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빠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인천공항을 두 바퀴나 돌고나서야 주차를 한 아빠는 한 손은 여행 가방을 밀고, 한 손은 써니 손을 잡고 걸었다. '던컨도넛'을 시켜놓고도 아빠는 써니 손을 잡고 있었다. 영원히 손을 놓지 않을 것처럼, 인도첸나이 탑승을 위한 안내방송이 나왔다.

"잘 가라. 우리 딸!"

"몸 건강히 잘 계세요."

아빠는 돌아보지 않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아빠 어깨 위에 얹힌 괴로움의 무게에 써니는 눈물이 터졌다. 써니는 빠른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아빠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빠! 안녕!”

7. 비행기에서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가 설핏 잠이 들었다. 엄마가 나타났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곁으로 갈게요."

엄마는 말이 없었다.

“미안해요. 살아갈 힘이 내게는 없어요."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비행기 창밖을 주시하더니 사라졌다. 엄마를 따라 가는데 허공에서 발이 미끄러져 눈을 떴다. 비행기 안이었다. 여름방학 때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깬 후의 외로움처럼 슬픔이 밀려왔다.

써니는 엄마가 바라보던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높은 설산이 보였다. 써니는 히말라야 산맥을 떠올렸다. 룸비니가 생각났다. 그 옛날 엄마랑 같이 갔었던 룸비니의 스님말씀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잊지 말아라.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룸비니에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너는 축복을 받고 태어난 ‘히말라야 로터스’란다.”

첸나이공항에 내린 써니는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다. 타밀문화의 중심지인 첸나이는, 타밀영화의 본산지답게 영화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써니는 공항의 수많은 것들을 무심하게 지나치며, 한 치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책가방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 룸비니로 향했다. 룸비니에 있는 한국절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첸나이도착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써니는, 바라나시 갠지스 강으로 가서 ‘어머니 품에서 영원히 잠 들리라’ 다짐했었다. 오로빌에 살고 있는 이모가 떠올랐지만, 오빠가 찾아 올 것 같았다. 이모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써니는, 이 세상에 없는 바람이 되어야했다.

8.큰 스님은 써니를 기억했다.

“졸업은 안했겠지?”

“네”

스님은 엄마가 써니를 데리고 룸비니에 왔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본래 끝이 없지만, 마음이 절망스런 사람에게는 이곳이 바로 세

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법이지. 지구가 본래 끝이 없듯, 사람의 인연도 끝이 없이 살아야 하느니"

제8장

1. 밤새 뒤척이다 목탁소리에 잠을 깼다. 룸비니의 새벽은 한지에 먹물 입힌 것처럼 깜깜했다.

숙소 2층에 있는 임시법당에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날 밤 맞이해 주었던 여성신도가 스님 뒤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나는 108배를 하지 못했다. 갠지스 강에 빠졌던 몸이 불편했다.

예불이 끝나자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된장국이었다. 삼삼하게 풀어 넣은 된장에 땡고추와 상치만 넣었을 뿐인데, 나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 그릇을 씻어놓고 절 주위를 걸었다. 흙이 묻은 리어카와 각종 공사용 장비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룸비니 한국 절을 10년째 짓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후원금으로 조금씩 공사를 하다 보니 아직도 일이 많아 보였다. 이 절의 큰스님이 기와 굽는 방법을 직접 가르쳤다고 했다.

현지인들이 기와 만드는 공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다. 한국절 뒤에 공장이 보였고, 그 옆에는 임시건물이 더 있었다.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는 작은 건물로 갔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전기포트에 물이 끓고 있었다. 수북하게 접시가 쌓여 있는걸 보니 식당 같았다. 베니어판이 통째로 올려져있는 식탁에는 흙으로 빚은 오카리나가 몇 개 놓여있었다. 아직 물렁한 오카리나를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는데, 여성신도가 나를 불렀다.

"한참 찾았네요? 룸비니동산에 함께 가실래요?"

"고맙지만 큰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조금 전 출타하시면서 같이 다녀오라고 당부하셨어요."

2. 저녁식사 시간에도 큰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커피를 한잔 들고 대웅전으로 올라갔다. 산 마루에 걸터앉은 태양이, 노을이 되어 있었다. 슬픔에도 빛깔이 있다면 바로 저녁 무렵이리라.

써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다. '어디에 있을까?'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난간에

주저앉았다. 어깨에도 힘이 빠졌다.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어깨에 닿았다.

"친구를 찾는다지?"

큰스님 목소리였다.

"스님! 7년 전 … ?"

"통일신라시대 룸비니를 다녀가신 혜초스님은 왕오천축국전을 쓰셨지"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힘이 다 빠지면서 스르르 다리가 풀렸다.

"스님은 윤시윤을 알고 계시지요?"

"물에 비친 설산은 바라볼 수는 있어도 퍼 올수는 없는 법"

그 때 죽비처럼 내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써니를 찾는데 급급해서 그녀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왜 그녀가 사라졌는지? 그녀의 행방불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어찌해야하는지? 룸비니에 오기만 하면 답답함이 풀어질 줄 알았다.

3. 큰 스님이 숙소로 간 후에 슬픔이 복받쳤다. 나는 다시 무릎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룸비니 숲을 스치고 온 바람소리가 들렸다. 바람결에 또 다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눈물도 닦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오카리나 소리였다.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의 음색이 나를 통째로 흔들어댔다. 고개를 들었다. 기와 굽는 공장 쪽이었다.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었다. 아직은 완전 어두워진 시간이 아니었다. 어깨에 스쳤는지 쌓아놓은 공사판 기왓장 한 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깨어지지 않은 기왓장을 가려내고 있는데, 오카리나 소리는 아까보다 더 잘 들렸다. 공장에는 나무로 얽은 대문이 굳게 닫혀있었고, 희미한 불마저도 꺼져있었다. 기왓장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오카리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곳에서 늑대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짐승들이 마당까지 내려오니 밤에는 다니지 말라'고 당부하던 여자신도의 말이 생각났다. 손끝에 묻은 흙을 문질러 냄새를 맡으면서 숙소로 돌아왔다.

제9장

1. 별호수를 돌아 온 써니는 학교로 갔다. 6년 만에 온 코다이 학교는 여전히 안녕해 보인다.

혹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목을 스카프로 감쌌다

도서관 입구에 걸려있던 간판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나무였는데, 동판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서관 안에는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입구에서 9시 방향의 창가로 갔다.

"어린 왕자! 잘 있었니?"

반야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파리로 온 몸을 덮은 나무가 망토를 걸친 사람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원사가 긴 가위를 들고 나무모양을 만들 때면, 학생들은 밖을 내다보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나무의 실루엣이 망토가 아니라, 기다란 자루를 입은 뚱뚱한 아저씨처럼 정리가 되어있질 않았다.

써니는 한국책장으로 갔다. 눈을 감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웠다. 책장에 나란히 꽂혀있는 책을 고르기 위해 한권씩 오른쪽으로 훑어 나갔다. 손톱 끝의 촉은 최고조로 예민해졌다.

써니의 책 고르는 방법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 슈렉도 자주 따라했다.

"써니가 책 고르는 방법은 경건한 의식같아."

'툭' 가운데 손가락에 책 한권이 걸렸다. 눈을 떴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는 써니의 마음을 붙드는 책은 검은 바탕에 빨강과 초록, 주홍빛이 감도는 책이었다. 마치 인도국기로 책을 감싼 듯한, 디자인이 강렬한 책이었다.

〈소년의 인디아〉!

소년의 인디아? 써니는 책 표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소년의 인디아〉 제목 아래, '슈렉! 써니를 찾아 세상을 뒤지다' 라는 부제가 있었다. 써니 손에서 책이 떨어지고 말았다. 책을 줍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털썩 주저앉았다. 책 표지의 반 이상이 슈렉 얼굴로 채워져 있었다. 숨을 길게 들여 마시고 나서 첫 페이지를 넘기던 써니의 눈이 흐려졌다.

M 엔드 K 출판사, 슈렉 사진 찍고, 글을 쓰다. 2010. 2. 6.

써니는 덜덜 떨렸다. 해가 넘어가는 들판에서, 염소의 말랑말랑한 목울대를 잡은 아이처럼 책을 잡고 있었다. 슈렉이 보고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슈렉이 입은 블루셔츠는 별호수에서 자전거 탈 때 입었던 옷이다. 선명한 입술선 안으로 고른 치아가 보였다. 입은 웃는 것 같은데, 눈망울은 울고 있었다.

써니는 책장을 넘겼다. 목차였다. 익숙한 이름들, 친숙한 얼굴들이 정렬되어 있

었다.

'시니어 공연의 밤' 사진이 있었다. 무대 위에는 금석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피아노 옆에서 시니어 대표로 써니가 오카리나를 불고 있었다. 핑크빛 사리를 입은 써니 눈썹 사이에, 금박이 달린 빈디가 반짝이고 있었다.

슈렉이 선물해 준 1회용 빈디는 학교정문 앞 가게에서 샀다. 모든 기억들이 너무나 또렷했다.

써니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책을 덮었다.

"어쩌면 좋으니? 어린왕자!"

어린왕자를 받치고 있는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라면, 모든 것을 돌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불행에 노련한 세상은 침묵하고 있었다. 어둠속 고요는 더욱 숨죽이고 있었다.

2. 써니는 책 표지에 있는 슈렉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슈렉! 나를 기다리고 있었니?"

질문의 답은 책의 뒷 표지에 있었다. 써니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보리라고 믿었던 슈렉이었다. 책의 뒷 표지에 잘 보이도록 편집을 했다.

"영원히, 너를 찾을 때까지"

써니는 〈소년의 인디아〉책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나는 곧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책을 냈습니다. 침묵도 이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전 우주를 돌아서라도 써니를 꼭 만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써니는 책을 가슴에 품었다. 코다이학창시절은 꿈이었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믿을 수 없는 학창시절이 분명 있었다는 것을, 슈렉의 책이 상기시켜 주었다.

써니는 눈을 감았다. 슈렉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금방이라도 책 속에서 걸어나와 써니 손을 잡고, 별호수로 달려갈 것 같았다. 눈을 떴다. 다시 목차를 보는데 페이지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숫자로 된 문장하나가 그림처럼 그려졌다. 써니는 책장을 넘기면서 숫자를 조합해 글자를 만들어보았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문장이 완성되었다.

7851 1456 4077 48217 2158 2136 6611

써니는 볼펜을 눌러가며, 한 줄을 완성했다. 문신을 한 것처럼 선명한 숫자가 새겨졌다.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슈렉이 찾아낼 수 있는 암호라고 믿었다. '그래서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만나는 것이 운명이라면...' 써니는 큰스님 말씀이 생각났다.

"이 세상의 인연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다."

써니는 뛰었다. 어둠은 의외로 유리창보다 얇은 검은 막일뿐이었다. 학교에서 호텔까지 5분 거리를 허방다리 위를 달리는 것처럼, 숙소로 와 침대에 쓰러졌다. 영하로 떨어지는 호텔에서 써니는 잠이 들었다가 깨고, 다시 꿈꾸기를 반복했다. 엄마가 나타났다.

"엄마 슈렉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

엄마는 말이 없었다. 단지 연꽃 한 송이를 건낼 뿐이었다.

"엄마! 엄마만 왜 죽었어요? 나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오래전부터 아셨잖아요? "

제10장

1.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도 낮에는 덥기가 마찬가지였다.

도시마다 여행자들이 가는 숙소가 거의 정해져 있다. 중요한 여행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게스트하우스마다 한국여행자들을 쉽게 만났다. 카트만두는 대부분 여행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들리는 도시였다.

게스트하우스의 숙박자들이 옥상에 모였다. 코이카 소속으로 네팔오지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아가씨, 친구가 온다고 해서 로컬버스를 타고 삼일 걸려 나왔다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방학 때 자전거를 타고 인도와 네팔을 여행했다는 대찬 여중학생도 있었다. 여행자들의 자기소개가 끝나갈 때, 여중학생이 내게 물었다.

"여행을 오셨나요?"

"행방불명된 여자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코이카 소속의 여자가 고개를 갸웃대며 말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얼마 전, 호주 여대생 두 명이 바라나시에서 사라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성폭력을 당하고 강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세계가 경악했지요."

중학생이 또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자전거로 한 달간 여행을 했지만, 인도만큼 여자들이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도 없었어요. 어디든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타를 가져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숙소로 내려왔다. 유리창이 심하게 덜컹댔다. 히말라야 설산이 가깝기 때문에, 밤의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갔다. 오리털 잠바를 꺼내 앞으로 입고 누웠다. 내일은 서울로 가야한다. 방학이 시작된 지 26일이 지났지

만 여전히 써니의 생사를 모른 체 귀국해야 하다니 기가 막혔다.

2.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했다. 룸비니에서부터 동행한 젊은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바라나시에서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나를 배려해 큰스님이 소개해 준 스님이다.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작은 책장이 보였다. 한국인들한테 꽤 알려진 숙소라 만화책과 월간지를 비치해 놓은 것 같았다. 백 권도 채 안 되어 보였다. 그것도 만화책이 반 이상을 차지했고, 월간지 몇 권이 있었다.

익숙한 책이 보였다. 놀랍게도 〈소년의 인디아〉가 있었다. 힘든 여행에서 돌아와 지친 소년처럼 책은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책 표지의 선명한 칼라와, 약간 큰 사이즈의 책은 쉽게 눈에 띄었다. 어떻게 이 책이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까지 왔을까?' 책장을 넘겼다. 접혀있었던 것처럼 123쪽이 펼쳐졌다. 디왈리 축제 때, 흰 드레스를 입은 써니가 웃고 있었다. 책 속에는 밑줄 그은 곳도 있고,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낙서도 보였다. 갑자기 코다이 학교도서관에서 본 숫자를 기억해 냈다.

7851 1456 4077 48217 2158 2136 6611

숫자와 낙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방문손잡이가 흔들렸다. 젊은 스님이 비닐봉지에 과일을 들고 들어왔다.

"망고를 먹고 싶다했지요? 타밀거리를 뒤졌어요."

"네?"

"그런데 그 책은 뭐죠?"

펼쳐놓은 책 속 사진을 보던 스님의 눈썹이 올라갔다.

"찾는다는 여자 친구인가요?"

"네"

"기와 만드는 공장에서 본 보살 같은데... 그러니까 룸비니에서..."

"정말이세요?"

나는 젊은 스님을 와락 끌어안았다.

"볼우물... 눈썹... 단발머리... 광대뼈 옆 별모양 흉터? 맞아요. 확실해요. "

제11장

1.써니가 코다이를 다녀온 지도 일 년이 지났다. 매사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코다이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슈렉이 쓴 〈소년의 인디아〉를 보지 않았더라면...

써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오카리나를 만들었다. 써니가 만든 오카리나는 스님도 칭찬했다.

사람들은 써니가 만든 오카리나를 신기해하며 만드는 방법을 메모해 가기도했다.

써니는 누구보다 쉽고 예쁘게 만들었다. 먼저 오리형태로 흙을 주물러서 대충 만든 다음 흙의 양을 조절했다. 처음에는 손으로 너무 만져서 표면이 갈라지기도 했었다. 반 건조 상태에서 숫가락으로 매끈하게 문질러 건조시켰다. 유액은 바르지 않았다.

피리와 달리 오카리나 구멍의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없었다. 손의 모양이나 손가락의 크기에 맞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G 키면 대략 8mm 의 소리구멍을 뚫었는데, 음량이나 음색에 따라 구멍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흙의 종류에 따라서도 음색이 달라졌다. 써니는 룸비니 절에서 기와 굽는 흙으로 만든 오카리나의 음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써니에게 오카리나가 없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었다. 오카리나를 불면 룸비니 숲에 저녁놀이 내렸다. 완공되지 않은 대웅전 2층 난간에서 엄마를 위해 오카리나를 불었다. 이 세상에서 짧았던 엄마의 소풍! 써니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2.저녁을 먹다가 한국 절에 말려둔 오카리나가 생각났다. 큰스님이 당분간 손님이 많으니 공장식당을 활용하라고 했다.

보통 오카리나는 기와 굽는 공장에서 만드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초보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아버렸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부엌 벽을 뚫고 들어왔다. 식탁위에 말리고 있던 오카리나가 반은 깨져 버렸다. 써니는 온전한 것만 골라 한국절 식탁으로 옮겨놓고 말렸던 것이다.

흙이 다 마르기 전 구멍을 뚫기 위해 갔다가 한 남자를 보았다. 진흙으로 만든 오카리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둡지 않은 시간, 써니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알맞게 큰 키에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오리엉덩이 걸음걸이, 슈렉이 분명했다. 1년 전 코다이 도서관에서 슈렉의 책을 발견하던 순간보다 혼란스러웠다.

종이컵을 들고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슈렉을 뒤따라갔다. 슈렉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동안 그대로 있었다. 분명 눈물이 많은 슈렉은 울고 있을 것이다. 써니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 대웅전 뒤에서 큰 스님이 나타났다. 슈렉이 써니의 소식을 묻고 있었다. 울면서 절규하듯 묻는데도 스님은 침묵으로 답했다.

뒷걸음으로 내려온 써니는 선반에서 오카리나를 꺼냈다. 오카리나를 불면서도 귀는

대문밖에 걸어두었다. 어두워진 공장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슈렉이 와 있다.

써니는 담 안에 있고, 슈렉은 담 밖에 있다. 그렇게 멀고도 가까운 거리에 슈렉과 써니가 있다. 밤이 늦도록 룸비니의 늑대는 길게 울었다.

다음날 큰스님 가까이 갔지만 말씀이 없으셨다. 게스트 룸도 조용했다. 슈렉이 그냥 떠났을 리가 없는데, 이미 룸비니에 어둠이 내렸다. 써니는 빨래를 걷어오다가 낯선 남자를 보았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공장을 기웃대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무스를 발라 뾰족하게 세우고, 가죽을 덧댄 조끼를 입고 있었다. 공장안까지 머리를 들이밀고 살펴보는 것이 수상했다. 마침 큰스님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이 보였다. 낯선 남자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담 뒤로 사라졌다. 써니는 큰스님을 향해 합장을 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올 인연이니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터."

스님은 슈렉이 다시 올 거라고 했다. 스님의 낮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써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슈렉이 다시 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이 답답해졌다.

써니는 오카리나를 챙겨서 대웅전으로 올라갔다. 캄캄한 밤 하늘에 샛별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써니는 어젯밤 슈렉이 있었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슈렉처럼 무릎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방울이 소금처럼 툭툭 떨어졌다.

3. 어둠은 룸비니 숲을 점령했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녔다. 룸비니의 침묵을 깨고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써니는 오카리나를 움켜쥐었다. 공장을 기웃대던 그 낯선 남자는 아니었다. 어두운 계단을 소리도 내지 않고 올라오는 그를 써니는 단번에 알았다.

"어... 어떻게 알고... 여기를...?"

"죽으라면 죽을게. 집에 가자.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니?"

오빠는 한국으로 가자고 했다. 써니는 소리쳤다.

"이 악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미안해"

"내가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어.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니?"

오카리나로 위협을 가하자 오빠가 재빨리 빼앗아버렸다.

써니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다. 버튼만 누르면 길어지는 호신용 칼이었다. 날카로운 칼이 번쩍했다. 하늘에 뜬 아주 날카로운 그믐달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다. 오빠가 칼을 뺏으려고 써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오빠가 두 눈을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다. 써니는 오빠를 외면한 채, 캄캄한 어둠속으로 뛰어내렸다. 찰나였다.

써니는 이 세상에 없는 바람이 되고 싶었다.

응급차에 실려 가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어머니 강 갠지스로 가서 어머니 품으로 가야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래전 별 호수에서 만났던 히말라야 성자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언젠가는 '레'로 가는 역할을 맡으세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큰스님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에서 우선순위 중 으뜸은 자신이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룸비니는 가지 않을 것이다. 큰스님은 써니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두 레– 로 떠나는구나"

제12장

1.룸비니 한국 절은 조용했다. 여행자들이 떠난 아침이었다. 마당 앞 보리수 잎만 살랑댔다.

큰스님은 연못에서 물고기먹이를 주고 있었다. 다시 온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다.

"스님은 알고 계셨지요?"

"…"

물고기가 제법 높이 뛰어올랐다. 옷고름에 물이 튕겼는데도 스님은 먹이만 던졌다.

"스님…"

큰 절을 하며 엎드렸다.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건져 올 수는 없느니라."

스님은 소매 자락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주었다. 종무실 보살이 오더니 한국에서 온 전화를 받으라고 한다.

2."강선생! 너무하는 거 알고 있지?"

"김선생 미안"

"도서관 사건의 범인이 잡혔대. 정문 수위아저씨래. 글쎄, 반장과는 먼 친척이래. 반장이 아르바이트하던 학교 앞 통닭집 말이야. 그 통닭집 아주머니가 수위아저씨 고모라는데, 그녀의 양심고백으로 밝혀졌대. 세상에! 아아! 손이 떨려. 말하기도 힘이네.

수위실 안의 반 지하가 있는데, 보일러실에서 1반 반장의 시체를 찾았다나 봐. 아! 무서워."

"…"

"개학 때까지 꼭 와야 해? 명령이야.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김형사가 서울 오면 연락하래. 아참! 김형사가 스님께 편지하나 맡겼다고 꼭 읽어보라고 했어"

3. 큰스님이 주신 편지를 들고 보리수나무 아래로 왔다.

" 서울에서 사건이 해결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소. 강선생을 의심해서 미안하오

강선생 정보를 받아 룸비니로 왔는데, 이미 강 선생은 네팔로 떠난 뒤였소. 나는 강선생이 수상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사로 들었는데, 수위가 범인이었소. 범인을 눈앞에 두고 인도까지 오다니…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소.

그보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소. 어제 저녁에 한 아가씨가 자살을 시도했소.

절 뒤에 있는 기와공장을 살피던 나는 소피가 마려워 담 밑에 있었소. 그런데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청년을 보았소. 축 쳐진 어깨위로 묶여진 머리가 길게 내려왔소. 긴 팔을 떨어뜨리며 올라가는데 꼭 몽유병자를 보는 것 같았소. 잠시 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람소리가 아니라 꼭 짐승소리 같았소. 가까이 갔더니 젊은 남. 녀가 크게 다투고 있었소.

내가 들은 이야기는 강선생과 관련이 있어 보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소, 아가씨가 '왜 찾아 왔느냐?'고 울면서 청년한테 따졌소. 청년은 '강선생을 움직여서 너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소. 혹, 강선생이 오로빌에서 한국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소?. '룸비니로 간다'는… 그 때 걸려온 전화를 우연히 알고 추적하여 뒤따라 왔다고 했소.

아가씨가 청년을 향해 다가갔소. 밑에서 보니 청년과 포옹을 하는 것처럼 보였소. 하지만 희미한 빛에 섬뜩하도록 날카로운 것이 보였소. 순간, 아가씨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소. 계단을 올라가는 내 발자국소리에 청년은 달아났소. 대웅전 어둠속에서 청년을 놓치고 말았소.

추신: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소. 나는 왜 홀린 듯 인도를 왔을까? 분명한 것은 인도가 나를 불렀다는 것이오. 사실 이 편지도 쓰지 말아야 옳은지 잘 모르겠소. 스님께 맡기겠소.

제13장

1. 만년설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바라나시에서 치료받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아침도 거르고 큰 스님을 찾았다. 예상대로 미완성된 대웅전 앞 연못가에 앉아있었다.

"스님!"

"물속에 뭐가 보이는가?"

"연꽃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는가?"

연못 속에는 히말라야 봉우리가 보였다. 바람이 불자, 작은 물결이 일었고 설산의 형체는 사라져버렸다. 스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느냐?"

"어젯밤 편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꼭 잡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우주공간을 채울 만큼 크기도 하지만, 소소한 바람에도 흩어지는 환상 같은 것이지."

나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다리가 저렸지만 큰절을 했다.

"서울로 가는가?"

"네."

"연못에 바람이 분다고, 히말라야 설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네."

히말라야 만년설이, 사진을 보듯 선명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연꽃 한 송이가 은은하게 피어있었다. 사르르 기어드는 물결무늬를 보자 갑자기 〈소년의 인디아〉책에 적혀있었던 숫자가 떠올랐다.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졌다. 신으로부터 어떤 문이든 열수 있는 열쇠하나를 받은 느낌이었다. '히말라야 로터스!' 책을 펴놓고, 숫자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펼친다. 위에서 숫자만큼 내려온 행에서, 숫자만큼 옆으로 가서, 글자 하나를 따온다. 분명 그 글자들을 조합하면 '히말라야 로터스'가 될 것이다. 책 속의 숫자들을 대조하지 않아도, 분명 그럴 것이다. 혹, 틀려도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2.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꼭 29일만이었다.

공항을 가기 위해 서둘렀다. 허벅지에 메어두었던 복대를 풀고 비행기 표를 꺼냈다. 복대를 허리에 찼다면, 이미 바라나시에서 시카라 노인한테 뺏겼을 것이다. 여권은 특수케이스 속에 잘 보관되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나를 천장의 도마뱀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반쯤 들고 인사를 건넸다.

"노오 프라블럼!"

룸비니에서 카트만두 트리뷰반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는 작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여명 속에 긴 강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대부분 인도의 강들은 히말라야에서 발원한다. 저 강물도 어머니의 품으로 흘러갈 것이다. 끝없이 흘러왔고, 또 다시 끊임없이 흘러갈, 시간의 강처럼.

비행기는 카트만두를 향해 방향을 잡더니, 히말라야 설산 위를 날았다.

옛날부터 히말라야를 거쳐 간 수많은 교역로들이 저 아래 있다. 군인들은 비옥한 인도 평원을 약탈하기 위해, 상인들은 장사를 위해 저 산을 넘었을 것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넘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히말라야설산은, 하얀 도포를 입은 신들이 듬성듬성 둘러 앉아 차를 마시는 것처럼 보였다. 신들이 선택한 차 향기에 따라 산 아래에는 바람이 불거나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쓰나미같은 독한 사랑이 휘몰아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에는 아지랑이가 피거나, 부드러운 연우가 몰려올 것이다.

지구 위 작은 도시에 사는 연인들은, 히말라야 신들이 아침에 마신 차를 바람결에 느끼고, 카페에서 주문을 할 것이다. 물론 자신이 스스로 차 종류를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헛헛한 웃음이 나왔다.

3.해가 뜨기 직전이었다. 에베레스트 설봉은 피지 못한 꽃봉오리처럼 차가운 몸통을 잔뜩 오므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최고도로 올랐다. 세계의 지붕답게,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위로 위엄을 갖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우주로부터 받은 조광을, 세상을 향해 공손하게 올려놓고 있었다.

꽁꽁 언 몸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태양의 미소에 만년설은 꽃물을 품은 한지처럼, 일제히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히말라야로터스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티켓을 돌돌 말아 히말라야 귀에 대고 약속했다.

"사랑해. 써니야! 아무리 많은 생이 걸릴지라도."

산 아래 지구사람들은 알까? 지구가 둥글고, 연인들 눈동자가 둥글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둥글게 아픈지...

태양을 중심으로 솟아난 수많은 만년설 봉우리들이 연꽃처럼 겹겹이 피어나 동그란 만다라를 이루고 있었다.

플라잉 타임

일반부 우수상 • 시 /김형미

하늘은 받들고만 사는 줄 알았어요
권태의 계단을 딛고 올라 내려다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맹에 시달리던 어느 날인가,
새들은 꽃피는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크게 몇 번 손뼉을 치고 나니
떨리는 손에 건네받게 된 것은 불면의 허공뿐
더는 견딜 수 없었죠

잃어버린 잠을 찾아야 했어요
폐업신고를 알리는 입간판 사이로
펄럭이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둥근 시간을 품고 포란하듯 한동안 엎드려있었죠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살아오는 동안
메아리도 사라져 버린 헌 집 같은 나에게
퇴화된 날개 하나 겨드랑이에서 돋아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올랐죠

이국의 밤은 황홀했어요
날 모르는 사람들, 익명으로 행복한 거리는
비밀이 담긴 선물 같았죠
몇 뿌리 양파를 놓고 흥정하는 사람들
사라지지 않는 해를 두고 밤에 드는 적도의 사람들
먼 곳에 날아와 알게 되었어요
두고 온 것들은 언제나 그리움의 질료가 된다는 것을
떠나야 내가 보인다는 것을요

아슴아슴 꽃잠이 밀려오는데
아득한 곳의 어둠을 지우며 새벽이 오고 있네요

엡실론의 창공이데아

일반부 우수상 • 수필 / 염동렬

– 엡실론의 정의 : 수학에서 ε(엡실론)은 임의의 작은 양수를 의미한다. –

공항에 간다.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내가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간다. 무거워진 눈꺼풀을 덮는다. 몇 년 전의 일들이 지하철 노선 위를 타고 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

엡실론인 나는 임용고사에 4번 떨어진 매우 작은 존재. 매우 작은 임의의 인간이다. 지방에서 노량진으로 올라와 힘겹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작은 엡실론이다. 매일 푸른 새벽 5시에 일어나 졸음을 씻고 학원의 일등석에 앉기 위해 빨리 빨리 더 위로 간다. 비행기에서의 일등석이 맨 앞에 있듯이 학원에서의 일등석도 맨 앞에 있다. 비행기 일등석은 많은 돈을 내면 탈 수 있지만 학원 일등석은 많은 아침잠을 지불해야 앉을 수가 있다. 학원의 일등석에 앉아 강사님의 안내 멘트를 듣고 교육학과 전공수업 코스를 비행한다. 만약 하늘로 향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면 나는 매우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다. 나는 매일 이른 아침 아침잠을 지불하고 노량진에서 제일 높은, 제일 하늘과 가까운 층으로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하늘로 갈 수는 없다. 무한을 논하는 수학을 지상에서 공부해야하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성과 꿈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노량진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나의 꿈을 향해 이륙한다.

오전수업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다. 엡실론인 나는 외롭게 혼자 점심을 해결한다. 노량진의 명물인 컵밥을 먹으러 허름한 삼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컵밥 노점상으로 터벅터벅 수렴해 간다. 벌써 자리를 잡고 컵밥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북적 북적인다. TV에서는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와서 즐겁게 컵밥을 먹고 가지만 현장에 있는 나는 결코 즐겁지가 않다. TV속의 그들은 '함께'이지만 이곳 노량진에서의 나는 늘 '혼자'이기 때문이다... 혼자 벤치에 앉아 컵밥을 먹다 노량진 하늘의 구름을 본다. 그리고 사치스런 콜라 캔으로 구름과 건배를 한다.

학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가게가 보인다. 가게의 유리창 메뉴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하와이의 맛! 파인애플 햄버거!' 청년실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너무나도 작은 나에게 하와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행복해보이고 화려해보여서 슬퍼지는 단어이다.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인 나에게 하와이는 너무나도 먼 이데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우리는 동굴에 있고 이데아의 빛이 동굴벽에 만든 그림자

를 쫓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햄버거 가게의 광고가 나에게는 그림자이고 하와이가 이데아이다.

갑자기 눈물이 난다.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의 현실이 뭔가 슬퍼 학원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슬픔이 눈물로 흐른다. 그러다 번뜩 생각이 난다. '하와이가 아니면 어때? 인천공항도 한번 못 가봤는데 오후 수업을 땡땡이치고 인천공항으로 가보자!' 이렇게 혼자 생전 처음으로 소심한 일탈을 꿈꾸며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 갑작스레 몸을 실어본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지하철에 같이 싣는다. 지하철에 타 보니 다른 사람들은 캐리어에 멋진 공항패션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삼선슬리퍼에 누가 보아도 고시생이다. 하지만 기죽지 않는다. 나는 오늘 무려 '인천공항'을 가는 사람이니깐!

공항철도에서 내려 드디어 태어나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가본다. 남들은 잘만 다니는 이곳을 나이 삼십 먹도록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니! 공항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오른발부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또 한걸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또 눈물이 나려고 한다. 내가 상상했던 공항의 모습이랑 눈앞의 풍경이 같아서 좋았고 생각보다 더 환하고 멋져서 더 좋았다. 웅장하고 다채로운 인천공항! 다양한 음식점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멋진 분위기! TV로만 보던 모습들이 나의 눈앞에 다가왔다.

시선이 풍경에 머무르다 사람들에게 머무르기 시작한다. 저 멀리 캐리어를 들고 가는 승무원들과 기장이 보인다. 나에게 그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신인류처럼 보인다. 하늘을 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을 진짜 이데아로 데려다주는 그들이 너무나도 멋져보였다. 그리고 티케팅을 하며 신이 나서 들뜬 여행객들의 모습.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들이 수렴하는 지점으로 같이 수렴해 본다. 거기서 엡실론은 또 이데아와 동굴을 느낀다. 비행기 티켓과 여권이 없는 엡실론은 출입국심사장으로 갈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여도 좋다. 충분히 기분이 환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 다짐을 한다. 다음 이곳에 갈 때는 손에 하와이행 티켓을 가지고 동굴을 벗어나겠다고!

어느새 주변이 황금햇빛으로 물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후 4시의 이 빛깔. 나른함과 나에게 위안을 주는 색깔. 늘 푸르고 어두운 내 일상에 밝은 따스함을 주는 시간. 엄마의 포근한 품 같은 이 황금햇빛을 나는 너무나도 좋아한다. 이 좋은 빛깔을 맞으며 다시 나의 비행기 노량진으로 향한다. 공항 내에서 산 하와이 관광안내 책자 한권과 파인애플 쥬스를 들고서...

공항철도 내에서 아내의 목소리에 눈을 뜬다. 결혼식이 피곤했는지 잠시 졸았나 보다.

나의 뇌가 꿈에서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했던 일탈을 재생했나보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인천공항에 내린다. 몇 년 전에 가졌던 설렘이 더욱 부풀어 오른다. 이제 진짜 이데아인 하와이를 갈 수 있다니! 입구에서 회군했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이제는 무려 비즈니스 티켓도 들고 있다! 너무나도 벅찬 심정으로 티켓팅을 한다. 아내의 강력한 주장으로 우린 비즈니스 티켓을 샀다. 인생에서 한 번인 결혼인데 한번 타보자는 권유 반 협박 반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덜컥 동의를 했다. 나의 사정에서는 상당한 무리이고 사치였지만 지난 8년의 보상이라 생각하고 결정하였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빛나고 반질반질한 얇은 종이. 신기했다. 이 종이가 이데아로 데려가주는 티켓이라니! 그리고 친절한 항공사 직원의 도움으로 짐을 붙이고 드디어 오랫 동안 머물던 동굴을 벗어날 준비를 한다. 보안검색대에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이제 동경하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원시인이 문명인이 되는 기분으로 유레카! 하며 들어간다. 신기했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입국심사장으로 진격한다. 거침없는 행보에 감격스러움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흥이 난다.

화려하고 신기한 면세점을 배회하다 드디어 비행기에 탄다. 나의 자리는 비즈니스 석이라 비행기의 앞쪽에 있다. 매일 푸른 새벽에 학원의 비즈니스 석에 앉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하루하루 떠올라 갑자기 찡해진다. 앉기 전에도 엡실론인 내가 과연 자리의 주인인가 한번 생각하고 둘러보다 앉았다. 비즈니스의 푹신함과 안락함이 느껴진다. 내가 늘 앉았던 앞자리들은 차갑고 딱딱한 의자였는데 이렇게 포근한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에 또 코끝이 찡해진다. 이렇게 자리에 대해 생각하고 즐기는데 승무원이 "알로하!"하며 웰컴 드링크를 가져온다. 아내와 같이 달달한 환영인사를 마시며 이륙을 기다린다.

비행기가 화가 난 황소처럼 활주로를 질주한다. 어디에 투우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침없이 내달린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도 나고 황소에 탄 흔들림도 느껴진다. 드디어 황소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던 비행기의 느낌은 이렇게 황소의 등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황소의 등에 올라 정신을 차릴 때 쯤, 비행기의 기장이 인사를 한다. 영어로 한번 하고 한국어로 한번 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앞에서 들을 때 집중이 잘 되었는데 앞에 앉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는다. 안내 멘트를 들으며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주변의 사물들이 조금해지면서 장난감으로 변한다. 고도가 올라가니 성난 황소가 진정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좀 실감이 난다. 그토록 궁금하고 가고 싶었었던 이데아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컵밥을 먹을 때 봤었던 노량진의 구름과도 조우하게 된다. 그때는 굉장히 멀어보였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무척 반가웠다. 동거동락한 오랜 전우를 만난 것 같아 더욱 반가웠다. 지난날 덕분에 덜 외로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서

계속 첫 비행을 즐긴다.

이렇게 황소는 나와 아내를 9시간동안 힘차게 태워 호놀롤루 국제공항으로 내려주었다. 처음 와 본 외국의 풍경은 너무나도 이국적이다. 뜨거운 태양, 열대 식물들, 그리고 외국인들, 새로 맡는 공기의 냄새...이데아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우리는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탄다. 비행기 좌석에 큰돈을 지출해서 호텔은 다소 저렴하고 합리적인 곳으로 선택했다. 저렴한 곳이면 어떠하랴, 나에게는 이미 이곳이 이데아인데!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일정을 체크한다. 지난날 소심한 일탈을 했을 때 구입했던 하와이 관광안내 책자를 펼쳐 본다. 첫날의 스케줄은 결혼식과 여독을 풀며 쉬어가는 날로 정했다. 우선 오하우의 햄버거 맛집을 가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일몰을 본 뒤 숙소에서 쉬기로 하였다. 이렇게 일정을 정하고 밖으로 나와 하와이의 하늘을 본다. 너무나도 푸르고 높다. 이것이 이데아의 하늘. 지금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고 구름을 벗 삼아 이데아를 향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더욱 겸손하고 노력해야지...그리고 지금은 '혼자'가 아닌 '우리'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벅차다. 아무리 좋은 이데아라도 혼자라면 외로움의 연장선일 테니까!

노량진에서 본 유리창광고의 영향으로 하와이에서 첫 번째 식사메뉴는 파인애플 햄버거로 정하였다. 하와이의 맛이라는 파인애플 햄버거를 너무나도 먹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햄버거 집을 가서 햄버거를 서투른 영어로 주문한다. 조금 있다 굉장히 크고 두터운 패티, 싱싱한 하와이의 파인애플이 듬뿍 들어간 파인애플 햄버거가 나온다. 한 입 베어 물때마다 소스가 입주위에 묻어나고 상큼한 열대과일과 고소한 햄버거 패티가 서로 입안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다. 고소하고 묵직한 패티가 남자라면 상큼하고 날씬한 파인애플이 여자이다. 둘의 멋진 춤을 감상하다보니 접시도 점차 비워지고 배도 채워진다. 그토록 먹어보고 싶었던 하와이의 파인애플 햄버거! 첫 끼로 손색이 없다. 하늘을 날고 하와이로 와 다시 하늘을 날게 하는 맛이다. 이렇게 소소한 위시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추억도 하나하나 채워진다.

맛있게 밥을 먹고 그 후로 하와이에서의 9일을 아름답게 마음속에 쌓았다. 어느새 벌써 다시 한국으로 갈 시간. 아내와 결혼 10주년에 다시 오기로 약속을 하고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나선다. 다음에는 둘이 아닌 넷이길 빌며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다 줄 황소에 탄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는 꿈을 이룬 뿌듯함과 그 다음 꿈인 4인의 가족이 다시 방문하겠다는 꿈도 실었다. 그리고 비행기 자리에서 하와이 관광안내 책자를 보는데 예전에 책 구석에 써 놓은 메모를 우연히 발견했다. 몇 년 전 혼자 인천공항을 가는 모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책에 써 놓은 메모였다.

'폐구간에서 단조증가인 수열은 수렴한다. 오늘 오전에 배운 내용 해석학 정리이다. 나는 노량진이라는 폐구간에 속하여 있지만 꿈은 계속 커지므로 창공이데아로 수렴할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멀리 비행하며 멋진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데아인 하와이로 반드시 갈 것이다. 임용고사 4번 떨어지면 어때? 난 해낼 것이다. 하와이로 가는 그날 까지 힘내라 엡실론!'

종이에 쓰는 데로 이루어진다는 자기계발서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메모를 보니 새삼 놀라웠다. 한 번 더 그 책을 믿으면서 밑에 한 줄 더 적어 본다.

'조그만 엡실론 드디어 그리던 창공이데아로 오다. 그리고 10년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방문할 것이다. 엡실론의 비행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더 멀리 더 오래 꿈을 향해 비행할 것이다.'

중 고등부

최우수상	수필	옆자리	조유리	125
우수상	시	여름으로 떠나요	이다겸	133
	소설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 (이탈리아 여행)	진 규	134
	수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	김찬휘	146
	시	비행기의 삶	이소현	152

최우수상

옆 자리

수필 /조유리

옆자리

중고등부 최우수상 • 수필 /조유리

우리는 일 년에 한 번씩 가난한 여행을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약속이었고 내가 태어나자 우리 세 사람의 약속이 되었다. 가난한 여행에서는 사소한 것을 포기하곤 한다. 다음 장소까지 5km를 걷는다든지, 물이 안 나오는 숙소에서 자게 되는 것들을 말한다. 그 가난함이 꼭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차를 얻어 타고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우린 좀 더 넉넉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변인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지만 사실 그것의 보답으로 아무도 우리 세 명을 귀찮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베트남에 갔다. 엄마의 여권 갱신이 간신히 끝났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갔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많았다. 나보다 좋은 옷을 입은 그 애들한테는 해외여행 같은 게 하나도 특별해보이지 않았다. 주제넘게도 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쟤네 다 기억 못할 텐데! 그런 내 눈과 마주친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빽 울기 시작했다. 그 애의 주변에 짐은 많았지만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슬슬 짜증어린 표정을 지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샌드위치를 사러간 엄마에게 달려갈 생각이었다.

그때 웬 할머니가 걸어오더니 아이에게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었다. 아이는 손바닥에 뭐가 있나 보느라 잠시 우는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이내 할머니는 갈색 봉지의 사탕을 꺼내주었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곧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났고 할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옆 게이트 쪽으로 갔다. 다들 할머니 덕분에 편해졌지만 할머니는 괜히 나서서 남의 아이 머리를 만진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사탕 한 개도 거저 준 셈이다. 답답한 내 마음과 다르게 할머니는 그냥 아이가 앉았던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나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신기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이 있다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고 기내에 걸어 들어갔을 때, 내 옆자리는 바로 그 할머니였다. 아이를 쓰다듬던 손이 생각났다. 그녀가 연륜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어른은 언제나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편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 할머니만 곁에 있다면 나도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예감이 생각보다 빠

르게 산산조각 나리라는 것을 나는 몰랐던 것이다. 이륙을 안내하는 방송이 들리고 주변이 부산해지자, 무릎에 가지런히 모아진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약간 돌려 표정을 훔쳐보았다. 도저히 아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얼굴. 나와 마주친 아이의 기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거기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물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답이 없었다. 식은땀이 할머니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몇 번을 다시 물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냐고 물었다. 심각하다고 생각한 내가 승무원을 부르기 직전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내가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라……. 조금 무섭네요."

할머니는 서울말을 했고 나에게 존댓말을 썼다. 한참 나이가 어린 나에게 예의를 지켰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보였다. 나는 공항에서부터 그를 지켜보면서 대충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건 그래서였다. 진심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아, 그, 사고 안 나요. 이거 비싼 비행기라……. 아니, 제가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친구가 그랬는데……."

배려도 자주 해봐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의 행동에 너무 당황했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내가 당신을 안심시켜주고 싶다'라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얼굴이 빨개진 채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잡아 드려도 괜찮겠냐고 먼저 물어봤어야 했나? 불쾌해하면 어쩌지? 나 같으면 어떨까? 나 같으면 불쾌했겠다. 지금이라도 놓을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몇 초를 더 기다리자 할머니는 놀란 기색을 지우고 손을 뒤집어 내 손을 맞잡아주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전혀 다행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불안한 떨림이 내 몸까지 그대로 전해졌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손을 힘껏 쥐어 잡았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떨림이 잦아지는 것처럼 느꼈고 조금 뿌듯해졌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좀 자연스럽게 말을 했다.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정말 궁금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여성 혼자 여행할 정도로 안전한 데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아직 떨리는지 심호흡을 한 번 하고서는 말했다. 사정이 좀 길어요.

곧 말하기 곤란하다는 뜻이었다. 그럴 때는 물어본 사람에게 잘못이 있었다. 내가 사과하려는 찰나 할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긴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는 아픈 남편, 다 큰 아들까지 셋이서 목포에 함께 살았다. 변변찮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아들은 영 취직을 하지 못했고 심약하기까지 해서 밤마다 술을 먹고 울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베트남 행을 선언했다고 한다.

"왜요?"

"친구가 좋은 사업이 있다고 했대요."

나는 거기까지 듣고 작은 탄식을 뱉었다. 한때 우리 가족을 우울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이름이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영영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기도 한다. 그것은 사랑하던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기도 하고 화목하던 가족을 갈가리 찢어놓기도 하며 죄 없는 사람을 가두기도 한다. 할머니의 아들에게도 사업은 기회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웠던 모양이다. 오랜만에 꿈에 벅차 반짝거리는 아들을 흔쾌히 베트남행 비행기에 태워 보냈고 할머니는 그 후 몇 년간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한 달 전에 영환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 년 만에 한다는 소리가 당장에 삼천만원만 보내 달라, 죽도록 죄송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너무 놀랐고 그 길로 은행에 달려가서 입금하는 것밖에는 방도가 없었지요.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울면서 물어봐도 끝까지 죄송하다, 죄송하다, 잘 끝내고 돌아가겠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놈이 무언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며 아무 계획도 없이 직접 베트남에 가보겠다 하셨어요. 영환이에게 전했더니 질색 팔색을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다가, 걔도 아버지 고집을 아니까, 나중엔 결국 아버지 오시면 이것 말고 다른 전화로 하라고 번호를 새로 알려주더라고요."

"아."

"영환이, 잘못되고 있는 게 틀림없겠지요?"

"불길하네요. 그래도 나쁜 선택 안 하고 부모님께 전화한 게 다행이에요."

"아니. 저한테는 이제 걔하고 통화하는 게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걔 목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쿵 떨어져요. 늘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전화하니까. 남편 떠나고서 두 번째 전화도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갑자기요."

"네?"

나는 놀라 되물었다. 여태 침착하게 말을 잇던 할머니도 입을 꾹 다물었다. 쌓인 것들이 당장에 터져 흐를 것 같은 두 눈, 무언가 눌러 담듯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목울대만 나는 볼 수 있었다. 잦아졌다고 생각한 손의 떨림이 손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전부터 그리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베트남에 아주 따라가진 못하고 공항까지만 배웅 갔었지요. 나중에 내 허리 다 나으면 부부끼리 멋진 데 다니자고도 했어요. 남편이 겁도 없지요? 전에 한번 비행길 타고 와서는 얼마나 허세를 부리던지. 비행기가 무섭지는 않고 오히려 버스보다 편안하다고. 나는 이렇게 무서운데."

"아."

"많이 다친 게 맞나봐요. 병원비 할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다 쓴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을 수 있대요."

"아."

"학생, 우리 남편 안 죽겠지요?"

"멋진 데 많이 간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나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진짜 바보 같은 상담사였고 할머니는 불쌍한 내담자였다. 기구한 사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털어놓게 된 사람이 나라는 것 자체로 나는 미안했다. 내가 알고 있는 위로의 말들이 그녀의 두려움에 비해 너무나 얇고 투명하여 아무것도 감싸줄 수 없었다. 대답도 제때 잘하지 못했지만, 이야기가 끝나고서의 침묵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웠다. 나한테 베트남은 설렘이었지만 할머니에게 그곳은 위태로운 남편과 원망스러운 아들만이 기다리는 곳이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떨고 있는 편보다 낫기 때문에 떠나오신 거겠지.

할머니는 구름뿐인 창밖을 계속 쳐다보았다. 그녀가 무서워하는 것은 귀를 쥐어짜는 고통과 시끄러운 이륙 소리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우리의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저 광활한 데에 혼자 남게 될까봐. 더 이상 손을 잡아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자신이 그곳에 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봐 그녀는 무서워하였다.

내게 얘기하면서 잊고 지냈던 세세한 것들이 모두 할머니의 마음속에 다시 나타난 모양이었다. 빠르게 변하는 그 표정 중에서 후회나 걱정처럼 쉬운 감정들만 나는 겨우 읽어냈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어린 학생에게 벅찬 얘기만 늘어놓았다며 사과했다. 손을 놓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우리는 몇 가지의 심각하지 않은 화제를 더 나누었다. 위로하는 데는 재능이 없지만 누구보다 맛깔나게 남을 험담하는 건 자신이 있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야길 했는데 할머니는 몇 번을 소리 내서 웃기도 했다.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떨고 있지 않았다. 얼굴색도 밝아지고 흔들리던 눈이나 차갑던 손까지도 원래의 편안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내게 고맙다고 사탕을 꺼내주었다. 공항에서 우는 아이에게 전해준 것과 똑같은 사탕이었다. 허리를 숙여 받았다.

우리는 곧 헤어져야 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 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가난한 여행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그랬기에 한 번도 이상함을 느껴본 적 없었다. 할머니는 대가 없는 도움이나 아주 작은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게 처음 알려준 어른이다. 꿈 같았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을 느끼고 하나가 된 꿈이었다. 안전 벨트를 풀어헤치기 전까지 나는 그에게 기대고 싶어 했다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했고, 손을 잡아주고 싶어 했다. 그걸 다 했는데 끝까지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곧 당신의 유일한 사람이 건강한 두 팔로 당신을 안아줄 것이다. 설령 그분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내어주는 여유와 온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난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행기를 타야만 할지, 어느 곳으로 가는 비행기에 혼자 오르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누군가 구름뿐인 그곳에서 떨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당신께서 그를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옆자리를 비워둔 채 아직도 나의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다.

우수상

여름으로 떠나요
시 / 이다겸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
소설 / 진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
수필 / 김찬휘

비행기의 삶
시 / 이소현

여름으로 떠나요

중고등부 우수상 • 시 /이다겸

밟는 곳마다 지글거리는 아스팔트 조각
머리칼 휘돌아 감는 감감한 공기 한 움큼
랭보의 시 한 구절 캐리어에 싣고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매미 소리도
뭉그러진 샛노랑 빛 하드도 모자에 쑤셔 넣고
나는 38도의 회색 거리를 빠져나왔다

나무 가득히 꿈이 열리는 그곳으로
도착한 땅마저 보드라운 분홍빛 도시로
푸른 꽃에서 바다향이 나는 섬에서
파란 종소리가 가슴 언저리를 두드리는 나라로
지도 한 장 없는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발걸음이다

창 밖의 활주로도 벌써 바닷가 모래마냥 쨍쨍하다
오늘의 기내식은 구름을 가득 담은 그릇과
짭짤한 설렘이 두어 번 휘적이는 물바람 수프
비행기가 내 손을 잡고 함께 떠오를 때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어느 날의 갈맷빛 여름이
한순간에 내 뺨을 부벼온다

어느 스튜어디스의 이야기
– 이탈리아 여행

중고등부 우수상 • 소설 / 진규

나는 스튜어디스다.

나에게 한 번의 비행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다. 딱히 비유적인 표현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난 승객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여행 준비 과정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오른다. 승객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다. 어째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힘들게 살아온 나를 위한 선물일까. 덕분에 긴 비행이 무료하지는 않다.

나는 지금부터 일화 중 하나인, 이탈리아행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승객들의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한다.

20XX년, 가을

이번 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으로 가는 것이다. 비행은 언제나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륙 후 안전벨트 사인이 사라지고 음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걸어가는 나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것 같이 유쾌한 기분이 든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승객은 역시 맨 앞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보통의 승객들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어, 보는 내가 다 행복해졌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하다. 맨 앞의 젊은 여자는 얼굴에 생기가 없어 마치 시체 같은 모습이다. 나는 동굴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 간다.

– 김시현, 29세

죽자.

화창한 가을날 김시현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죽음을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다. 즐거움이 없고 무기력하다. 그럼 죽자. 김시현에게 이 판단은 꽤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 느껴졌다. 그러나 김시현은 자살 충동이 잠깐 들었다고 바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미련한 여자는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죽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본다.

'세상에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다. 못 먹어본 음식도 많다. 하지만–애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죽을 때까지도,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자살을 하면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가야 한다. 하지만–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이다. 그 시기가 앞당겨질 뿐이다. 그렇다. 애초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이별이 전제되어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과 옷, 물건들과 집도, 언젠가는 나와 이별을 고할 존재들이다. 그것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라도 말이다.'

김시현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린다. 그날 이후로 김시현은 죽음이 항상 몸의 일부처럼 사람의 곁에 머무르는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엄마랑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내가 독립을 한 날부터 일체 연락이 없었다.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죽든 말든 말을 해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 것이다.'

김시현은 외동이고, 다른 친척과의 교류도 없었다. 한 마디로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다.

'친구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더 쉽다. 앞으로 연락이 잘 안 될 거라는 말 한마디만 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걔랑 요즘 연락 안 되더라–에서 금세 걔랑 연락 끊은 지도 오래야–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애초에 난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도 아니었으니 더 수월할 것이다. 아, 인간관계를 없애는 것이 이렇게 쉽고 단순한 거였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

김시현은 다시 한 번 인생이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동시에 자살을 하자는 생각도 확고해졌다. 김시현은 자살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고민해보기 시작한다. 몇 시간 후 머리가 복잡해진 김시현은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죽음 전 마지막 여행이라. 낭만적이다. 머리도 식히고, 쉬면서 다시 계획에 대해 찬찬히 고민도 해 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없이 힘들게 살아온 자신을 위해서, 김시현은 여행을 가기로 한다.

김시현은 휴가를 낸다. 어차피 죽으려면 퇴사를 해야 하니 사표를 낼까도 고민했지만, 마지막 여행은 당당히 '마지막 휴가'로 가고 싶었기에 회사의 탐탁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신청한 것이다. 목적지는 이탈리아였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여행 정보를 알아보다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한 김시현은 주위를 둘러본다. 공항 안은 굉장히 보기 좋게 꾸며져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았던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던 날 이후로는 한 번도 공항에 와 본 적이 없었다. 그날의 김시현과 마찬가지로, 공항 안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

김시현은 아련한 향수를 느끼며 벤치에 앉는다. 동시에 한 남자가 김시현과 한 칸 떨

어진 옆자리에 앉는다. 김시현은 무심코 그 남자를 쳐다본다. 그러자 남자도 김시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남자의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목만 인형처럼 돌아갔다. 남자의 행동이 너무도 기계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김시현은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남자의 눈은 구슬로 만든 인형의 눈과 같이 검고 생기가 없었다. 전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남자였다. 한편으로는 어딘가 김시현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다고 김시현은 생각한다. 김시현은 오묘한 감정을 느끼며 시선을 거두었고, 남자도 방금과 같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고개를 돌린다.

기묘한 남자에 대한 생각은 비행기에 오르자 잠시 흐릿해졌다. 여행에 대한 설렘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뒤섞여 김시현의 머릿속은 오묘한 감정으로 가득 찬다.

'나는 이렇게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니 살짝 아쉬운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다. 한국을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내 자살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니.'

– 나는 당혹감을 느끼며 김시현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온다. 솔직히 말해, 자살 전 마지막 여행을 가는 사람을 본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적응이 되려고까지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 여자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저 여행을 하며 생각이 바뀌어 새롭게 삶을 살아가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첫 승객의 이야기부터 이런 울적한 내용이라니 내 마음도 무거워진다. 그러나 김시현의 뒤에 앉아있는, 김시현이 공항에서 봤던 인형 같은 남자를 발견한 순간 뇌가 정지하는 기분이다. 그도 김시현과 같이 시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 한수용, 31세
이젠 지쳤다.
난 무얼 위해 태어났으며 무얼 위해 살아가는가.
인생이 허무하다.
죽고 싶어졌다.

– 놀랍게도 한수용은 김시현과 똑같은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한수용 쪽의 인생이 조금 더 불행했으며 가족 여행에 대한 추억마저 없었다는 것이었다.

– 자살 전 마지막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한수용은 어릴 적 자신의 꿈을 떠올린다.

'한때는 비행기의 기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의 나에게,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멋지고 황홀한 일

이었다. 그 꿈이 사라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무엇이든 꿈꿀 수 있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던 시절. 무엇이 나의 꿈을 사라지게 했을까.'

한수용은 자신이 꿈을 잃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했다. 창의적이고 다채롭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이 커가면서 현실적으로 바뀌듯 한수용의 꿈도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수용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신을 들볶던 부모님부터 노골적으로 우등생들을 편애했던 학창시절의 선생님들까지. 그의 원망은 곧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가장 큰 벽은 세상 그 자체다. 인간은 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없는 걸까. 어째서 돈과 학력이 직업 선택의 폭을 결정하는 것인가.'

한수용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는다. 그 순간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여자가 자신을 보는듯한 기분을 느낀다.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린 한수용은 흠칫 놀란다. 시체처럼 생기 없고 어두운 눈동자가 한수용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간이 아니라 인형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데 그 여자는 어딘가 낯이 익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했다. 분명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한수용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낀다. 어딘가 동질감이 느껴졌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는 여자의 모습은, 몸은 고정되어 있는데 머리만 부자연스럽게 돌아가, 마치 기계장치가 움직이는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여자에 대한 생각은 이륙 후에도 이어졌다. 한수용은 창 너머의 슬플 정도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여행이 끝나면 난 후회 없이 죽을 것이지만, 그전에 아까 그 여자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아무 정보도 없는 여자에게 왜 그리움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사랑의 감정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그 여자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 자살 전 마지막 여행을 가는 승객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런 승객이 한 비행기에 둘씩이나 타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그 두 명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일 것이다. 그럼 김시현과 한수용이 서로를 알아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하다 삶의 희망을 되찾을 확률은 얼마일까. 만약 이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 펼쳐졌다면 십중팔구 그런 로맨틱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었을 것이다. 하나 안타깝게도 이건 드라마가 아니다.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김시현과 한수용은 끝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행을 할 것이고, 한국에 돌아가 원래 계획대로 죽음을 택할 것이다. 하늘이 도와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살날이 늘어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사이좋게 동반자살을 택할지도 모른다. 이 불쌍한 남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

였다.

나는 걸음을 옮긴다. 한수용의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다. 한수용이 하도 생기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그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 보일 정도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 임정근, 85세

여행 한 번 다녀오시죠.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임정근의 아들 임강희가 한 말이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호강 한 번 하셔야죠."

임강희는 외동으로 태어나 버릇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엄격하게 키운 아들이었다. 다행히 임강희는 사고 없이 잘 컸고 며느리까지 데려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임정근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 때문인지 칭찬 한 번 해 주지 못 한 것이 임정근의 한이었다. 그런 임강희가 자신에게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었으나, 임정근의 입에서는 거절이 먼저 나왔다.

"나는 괜찮다. 늙은이 혼자 여행 가서 무슨 재미를 보겠나."

임정근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뜬 아내를 생각한다. 평생 고생만 하면서도 불평 하나 없었던 바보같이 착한 여자였다.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임정근은,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으나 외로웠다. 그런 와중에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고독하고 괴로운 일이었다. 적어도 아들과 함께 가고 싶었다. 부자(父子)의 여행은 으레 그렇듯 굉장히 어색할 것이며 서로에게 힘든 일이란 걸 알았지만, 외로운 것보다는 나았다.

"저희가 가이드를 붙여드릴게요.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다니면 적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이나 한번 가거라."

"전 일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소영이도 –임정근의 며느리, 임강희의 아내이다–맞벌이를 시작해서 시간이 없고요."

어색한 정적.

임정근은 차마 임강희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 내 몸도 점점 죽어가는 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 아들놈 데리고 셋이서 놀러 간 적 한번 있었던가. 마누라가 떠나기 전에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떠난 후에 혼자 가는 여행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정근은 이대로 임강희를 보내고 나면 영영 그를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언제까지나 앳되고 귀여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의 얼굴은 어느새 피로와 고생으로 주름이 져 있었다. 사이좋게 가족 여행을 가기에 임정근은 너무 늙었으며, 임강희는 너무 많이 커 버린 상태였다. 임정근은 젊은 날의 자신에게, 지금 당장 아들의 손을 잡고 여행을 떠나라고 꾸짖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임정근은 아들이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뻤다.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도 미안한 일이었다.

"혼자 가시는 게 싫어서 그러세요?"

임강희의 옆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소영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임정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영은 눈치 좋게 임강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기야, 우리 아버님 모시고 여행 한 번 가자. 휴가 안 쓴 거 남아 있잖아."

"뭐?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휴가 간다고 하면 부장한테 욕 엄청 먹을 텐데."

"자기 부장님이랑 사이좋잖아. 정 안 된다고 하시면 내가 가서라도 설득할게. 응?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어 할 거야."

소영은 남편이 아이들 얘기에는 맥을 못 추린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임강희를 설득했다.

몇 주 후, 임정근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올라타 있다.

'부장을 설득하는데 간신히 성공했어요. 하지만 마땅한 좌석이 안 남아 있어서 저희보다 하루 일찍 출발하셔야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좋았다. 아들과 함께 가는 첫 여행인데 하루 일찍 가든 이틀 일찍 가든 상관이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에 신기해하며, 임정근은 다시 한 번 아내를 생각한다.

'내가 아들을 잘 둬 비행기도 타 보고 외국도 다 가봅니다그려. 조금만 더 견뎌보지 그랬어요.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못다 한 말도 많은데. 생전에 여행 한 번 못 보내준 게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저승에서 만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다 얘기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주시오. 다음 생에 만나면 꼭 여행도 자주 보내주고 호강시켜 드리리다.'

– 임정근이 '이 여자가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쳐다볼까'하고 생각하기 직전,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온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여행 갈 여유 하나 없을뿐더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효도 여행, 효도 관광이다. 부모를 부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더는 것이다. 하지만 늙은 부모에게 정말로 필요

한 것은 호사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괜히 눈시울이 붉어진다. 휴가 나오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한 번 가야겠다.

진지하게 감정을 잡고 있던 나의 둔부를 누군가의 손이 훑는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일을 당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적응을 못 하겠다. 벌레가 기어가는 기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스튜어디스가 아니다. 열받지만 이런 걸 버티는 것이 서비스업의 기본이다. 나는 위선적일 정도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본다. 한 중년 남성이 태연하게 손을—아마 내 몸을 만졌던 손을—들고 웃어 보이며 말한다. "물 좀 주시겠어요?"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상당히 잘생긴 남자다. 언뜻 보면 30대 후반이라 해도 믿을 것 같다. 스튜어디스에게 뻔뻔하게 성추행을 하는, 그 끝내주는 매너만 아니었으면 첫눈에 반했을지도 모른다. 물을 건네주는 나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 잘생긴 눈 너머로, 난 그의 이야기를 본다.

– 강선호, 51세

키 187. 나이에 맞지 않는 이기적인 비율.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안 꿀리는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잘생긴 동안의 외모. 모든 여자들이 넘어가는 위트 있는 멘트와 매너. 논리적이며 명석한 두뇌에다가 예술적 감각까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한 남자다.

나는 아내가 있다. 잘 나가는 남자답게 애인도 있다. 아내와 애인은 다르다. 애인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아내는 그냥 아내다. 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재산이다. 남이 들으면 욕할 말이지만, 정말이다. 결혼도 돈 때문에 한 것이다. 오히려 청혼을 받아준 나에게 아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나 같은 멋진 남자가 한 여자에게만 잡혀 있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애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난 양심적으로,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지는 않는다. 아내는 눈치가 없고 둔하기까지 해서, 나의 외도 사실을 알 리가 없다. 게다가 난 아내에게—라기보다는 모든 여자들에게—항상 친절하게 대해준다. 외도를 들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멍청이들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애인 중 한 명인 이유경이 말했다.

"모스카토 다스티가 마시고 싶어요."

모스카토 다스티. 이탈리아 포도 품종 중 하나인 모스카토로 만든 와인. 달콤하고 은은하며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 중 하나.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탈리아에

가자는 말이다. 이유경은 항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외여행을 요구해왔다. 물론 경비는 내가 거의 다 낸다. 하지만 괜찮다. 그만큼 사랑스러우니까. 20대의 탱탱한 몸은 나에게 하여금 이유경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게 만든다.

이유경이 어디로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항상 아내와 먼저 가 본다. 일종의 사전 답사다. 이유경의 마음에 들 만한 식당과 볼거리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다. 아내와 함께 가는 이번 이탈리아 여행도 이유경을 위한 사전 답사다.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를 테니, 내가 자기를 사랑해 여행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내는 사랑받는 기분을 받아 좋고, 이유경은 완벽한 일정을 보낼 수 있어 좋고. 이 어찌나 행복하고 서로에게 좋은 외도 방식인가. 나는 이렇게 멋진 남자다.

다른 곳은 몰라도 베네치아엔 꼭 갈 것이다. 카사노바의 고향인 베네치아. 보통 사람들은 '카사노바=바람둥이'라는 생각밖에 안 한다. 하지만 그는 희대의 바람둥이인 동시에 희대의 천재이기도 했다. 문학, 예술, 철학, 수학, 법학 등 모든 분야에 능통했다. 넉넉지 못한 삶을 살다 귀족을 만나 풍족하게 지내기도 했다. 그의 인생은 나의 인생과 닮았다. 비록 종교재판관에게 찍혀 불우한 말년을 보내긴 했지만, 그전의 카사노바는 너무 멋진 남자였다. 현재의 나는 카사노바의 전성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베네치아에 도착하면 카사노바가 투옥될 때 건넜다는 '탄식의 다리'를 지나며, 나의 말년만은 카사노바와 닮지 않기를 빌 것이다.

– 내 시선은 다시 카사노바보다 불우한 말년을 보낼 법한 남자에게로 향한다. 강선호는 아직도 날 보고 있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보아 내가 이미 자신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이런 남자는 질색이다. 슬쩍 옆을 보니 그의 '아내'로 보이는 아줌마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 빨리 물만 주고 가라는 표정이다. 남편의 나쁜 손버릇은 눈치 못 채고,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거슬리기만 하는 모양이다. 강선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할까. 나는 그녀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한다.

– 백진아, 49세

'아줌마가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축 처진 젖가슴, 흉하게 튀어나온 배, 푸석푸석하고 거무죽죽한 피부와 날로 늘어가는 흰머리까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세월이 원망스러워진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을 보면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해진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백진아는 남편에게 애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이해가 가기까지 했다. 50의 나이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잘생긴 얼굴과 몸.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아도 바로 꼬실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 그런 남편이 백진아에게 눈길을 줄 리가 없었다. 백진아는 남편이 종종 자신을 데려가는 해외여행도 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내 취향과 맞지 않는, 젊은 여자가 좋아할 법한 곳에만 데려가는데 모를 리가 있나. 이번에 제안한 이탈리아 여행도 분명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겠지.'

백진아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의 영롱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백진아는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낀다.

'당연한 거지만, 나는 남편의 외도가 죽을 만큼 싫다. 하지만 남편만은 나무도 좋다. 나를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지만 좋다. 거짓된 사랑이라도 좋다. 호스트 클럽에 빠진 여자나 마찬가지다.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 잘생긴 남자의 다정하고 위선적인 매력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강선호가 젊고 예쁜 여자와 놀아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백진아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앞선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졌던 것이 언제였던가. 더 이상 백진아를 사랑해줄 남자는 없었다. 텅 빈 머리를 숨기기 위한 촌스러운 파마와 후줄근한 옷을 입은 여자를 어느 남자가 보고 아름답다 말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백진아에게는 남편의 위선적인 사랑이 너무도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아직 여자이고 싶다. 설레고 싶다. 나는 남편이 필요하다. 그가 아무리 외도를 하더라도 말이다.'

– 부부는 사랑으로 엮인, 아니 엮어져 있어야 하는 사이다. 그 사랑이 위선적인 혹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면 그게 부부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부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백진아의 질투심으로 가득 찬 눈빛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나는 이 사랑에 굶주린 여자에게 연민을 느낀다. 나는 백진아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그녀의 앞에서 사라져준다.

그 후로 여러 개의 평범한 이야기를 지나친 후, 나는 맨 뒷좌석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어린이처럼 들뜬 표정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청년 네 명이 앉아 있었다. 남자들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풍경은 오랜만이라, 나는 그들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 고현수, 30세

"피사의 사탑은 인간적으로 한 번 봐야지."

"난 로마밖에 모르겠다."

"야, 고흐가 마셨다는 그게 뭐냐? 압생트였나?"

"그건 프랑스야, 병신아."

"야, 야. 이거 봐라. 폼페이, '루피라레'. 온갖 야한 그림과 낙서가 즐비한 창녀들의 방이 있는 2층 건물."

"뭐?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와, 씨, 맛있겠다. 이거 봐라."

"넌 숙소 찾으라니까 왜 음식만 찾아보냐?"

"잠은 어디서 자냐?"

"호텔."

"아이, 씨, 싫은데."

"왜."

"여자하고도 못 가본 호텔을 너희들이랑 가야 되냐."

"미친 새끼."

방 안은 웃음소리와 별 쓸데없는 말들로 소란하다. 여자가 셋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데, 남자가 넷 모이면 방이 부서진다.

말이 나온 것은 불과 몇 달 전이다. 노정우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다. 이 네 명의 남자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노정우의 말을 선두로, 그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단지 '여행 간다.'라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여행을 가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돈이 모이고 뿌듯해하고 있을 때, 그나마 똑똑한 고현수가 말을 꺼냈다.

"근데 우리 어디 갈 거냐?"

그로부터 며칠 후, 여행 가이드 책을 뒤적이던 김인규가 갑자기 이탈리아 음식에 꽂혔고, 그들의 여행지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탈리아로 정해졌다. 계획 짜는 것은 젬병인 데다가 서로를 믿을 수 없었던 네 남자는 이성도의 집에 모여 일정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야, 우리 우피치 미술관도 가보자."

"거기가 뭔데."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 여기 있단다."

"에이 씨, 그런 데는 여자들이나 가는 거고."

"야! 그건 성차별이지."

"근데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그림을 굳이 찾아가서 봐야 되냐."

"쳐서 나온다고 안 갈 거면 여행은 왜 가냐? 그냥 인터넷에 '이탈리아' 검색해서 사진

구경이나 하지. 그리고 말이야, 이런 곳을 다녀와야 나중에 자랑할 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야."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몇 시간째 전혀 진전이 없었으나, 어느 순간 답답함을 느낀 고현수가 중재를 해 주는 덕분에 서툴게나마 계획이 다 정리되었다. 고현수는 자신이 과연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무사히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알고 지낸지도 20년.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질긴 인연들이었다. 성격은 나쁘지 않지만 입이 거칠어 남들과 다툼이 잦은 이성도,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며 몸이 비만한 김인규, 착하지만 답답한 성격이라 남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게 특기인 노정우,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나 마찬가지이지만 다소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고현수. 상극의 자석이 서로 달라붙듯, 전혀 맞아 보이지 않는 네 명의 남자는 누구보다도 끈끈한 우정을 유지해 왔다. 물론 싸우는 날도 누구보다 많기는 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그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관계가 되었다.

'보통 남자들끼리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PC방, 술집, 노래방, 당구장, 가끔씩 농구나 낚시. 아무리 멀리 가도 동네를 벗어나진 않는다. 남들보다 특히 더 귀찮음이 심하고 생각 없이 사는 우리 네 명이 여행을, 그것도 이탈리아라는 거창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등재돼도 좋을 정도로 신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그곳에 왜 가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사실, 다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새로움이 필요하다.'

고현수는 입 밖에 꺼냈다가는 친구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감성적인 생각에 빠진다.

'우리의 만남과 놀이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다들 바빠서 얼굴도 자주 못 봤었다. 만나봤자 술집 아니면 당구장이었다. 누구 하나 불만을 표출하진 않았으나, 수레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다들 질려 있었을 것이다. 정우가 말을 꺼낸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우린 이 여행을 통해 새로워지고 삶의 생기를 되찾을 것이다.'

고현수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새삼스레 멋쩍어진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고현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현수의 옆에는 20년 전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순수한 설렘의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었다. 나는 같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바라본

다. 누군가에게는 설렘으로, 누군가에게는 슬픔으로 가득 찼을 긴 비행이 끝난다. 여행의 끝은 곧 시작이기도 하다. 나는 다음 비행을 준비할 것이고, 또다시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다. 이 능력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난 그저 최선을 다해 나의 이야기를 살아갈 것이고, 이 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승객들과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인생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

중고등부 우수상 • 수필 / 김찬휘

초등학생 시절 어느 때와 같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이터에서 신나게 떠들며 놀고 있던 중이었다. 하늘에서 나는 큰 소음 때문에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위를 올려다보았다. 올려다보니 바로 위에서 엄청 커다란 물체가 큰 소음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커다란 물체는 바로 비행기였다.

비행기를 책과 TV로는 많이 봤지만 바로 내 위에서 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런 비행기를 넋을 잃고 쳐다만 보았다. 친구들의 목소리까지 잘 안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음이었다. 나는 그런 비행기가 웅장하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때 이후로 나는 비행기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공항이 있어서 그런지 그 후로도 집 주변에서 비행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

비행기를 자주 보다 보니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느낌이 어떨까?" 라는 생각과 "비행기는 왜 이렇게 큰 소음을 내면서 움직이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이러한 비행기에 대한 궁금증은 내가 10살의 나이로 "비행기"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면 재빨리 그 소리를 따라가 비행기가 나의 눈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최대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정도로 비행기가 신기했고 비행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신기하고 좋았지만 직접 타보고 싶은 생각도 점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서 직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나는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께 여쭈어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당장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꼭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자"나는 아쉬웠다. 아쉬웠지만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 비행기를 못 타보셨는데 나보다 더 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않을까 해서 나 또한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난 초등학교 시절 운동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

다. 공만 있으면 어떤 운동이든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재밌게 열심히 했다.

내가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던 탁구 선생님께서 나한테 탁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탁구를 한 번도 쳐본 적 없었지만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탁구를 치면서 나의 지역인 여수시 대표 선수로도 임명되었다. 여수시 대표가 된 후에 많은 경기에도 참여하였고 그 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라남도 대표 선수까지 선발되었다.

탁구선수가 되어 어느 때와 같이 연습을 하고 있던 중 감독 선생님께서 전라남도 초등학교 탁구선수들끼리 시합(개인전)을 해서 2위 이상의 기록을 내면 중국을 6박 7일로 보내주고 그 돈을 모두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그전에 연습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탁구 연습에 임했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노는 것 대신 체육관에 와서 탁구공 하나라도 더 쳤다. 그 결과 나는 전라남도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처음으로 나에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 사실을 바로 부모님께 알려드렸다. 부모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엄청 좋아하셨다. 나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다. 부모님께서는 내 말을 들은 후 여권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권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하셨다. 여권사진을 찍고 며칠 후 나의 얼굴과 나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여권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앞에서 나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여권을 보니 내가 진짜 비행기를 타는구나. 라는 생각에 설레고 또 설렜다. 나는 나무늘보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만의 나무 같은 존재이다.

나무늘보는 거의 매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잠시나마 떨어져 있다 해도 나무 근처에서 생활한다. 즉, 나도 나무늘보같이 부모님 곁에서 한 번도 떨어져서 지낸 적이 없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국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였다. 나는 부모님께 나 혼자 중국에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네가 그동안 원했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꼭 네가 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싶어 했던 나를 생각하니 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중국을 가기 5일 전부터 내가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잠도 잘 못 이루었다. 학교를 가서도 비행기를 타는 상상만 하였다. 너무 행복한 상상이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날 어머니께서는 내가 짐 싸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다. 세면도구, 입을 옷, 운동복 등 여러 가지를 챙긴 후 자야 할 시간이 되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당연히 가기 전날이라서 그런지 그전보다 더욱더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만 같았다. 비행기를 타는 당일 나는 감독 선생님의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비행기를 타는 상상으로 가득했다. 여수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4시간 더 넘게 자동차를 탔다. 다행히도 내가 자동차 멀미를 안 해서 그런지 차를 오래 타도 괜찮았다. 차에서 내려 공항에 도착 후 표를 받았다. 비행기 표에는 나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있었고 좌석은 30J라고 적혀있었다. 표를 받으니 나의 머릿속에는 온통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나는 30J 자리가 꼭 창가에 있는 자리이길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 왜냐하면 창가 쪽에 있는 자리여야 밖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를 받고 짐을 붙이러 갔다.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나의 여권을 확인하고 짐을 붙여주었다. 짐을 붙인 후 다 같이 모여 짐을 다 붙였는지 확인을 하고 비행기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들어가려 준비하였다. 나는 여권만 보여주고 바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내 몸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섬세하게 검사하고 내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사하였다.

첫 번째 검사가 끝난 후 인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검사가 남아있었다. 공항 직원께서 나에게 카메라에 얼굴을 대라고 말씀하였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계신 분께서 카메라를 보고 가만히 서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카메라를 보고 섰다. 여권사진과 나의 얼굴이 일치했는지 아님 내가 불쌍했는지 빠르게 통과시켜주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그때의 그 당황함이 가시질 않았다. 공항에서 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많고 금지 물품이 많은 지도 이해 할 수 없었다. 섬세한 검사를 마치고 승무원 누나에게 표를 보여준 후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좌석은 왼쪽으로 3줄 오른쪽으로 3줄씩 있었다. 나는 30J가 제발 창가 쪽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에 레이저를 킨 것처럼 뚫어질 정도로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번호 30J는 오른쪽에서 첫 번째였다. 창가 쪽이랑 정반대인 자리였다. 나는 창가 쪽이 아니라 많이 아쉬웠다.

창가 쪽에 앉아서 밖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꼭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리에 앉았다. 앉은 후 탁구 감독 선생님께서 나에게 비행기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줄 알았지만 옆에 있는 형들이 진짜로 벗으려는 시늉을 하

자 나는 "아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재빨리 신발을 벗었다. 그런데 옆에 선생님들이랑 형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 옆에 손님들과 형들의 발을 보니 신발을 다 신고 있었다. 그제야 거짓말이라고 알아차린 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재빨리 신발을 신었다.

그때 그 일은 엄청 당혹스러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선생님과 형들의 장난이 끝난 후 비행기에서는 이륙을 알리는 방송을 하였다. 이륙 방송을 한 후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섰다. 이륙 허가 신호를 받고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 엄청난 엔진 소리와 함께 활주로를 내달렸다. 내 몸이 뒤로 밀리고진동까지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 그렇게 엄청나게 달리다가 이륙할 정도의 속도가 되었는지 비행기가 조금씩 뜨기 시작하였다.

비행기가 뜰 때의 그 느낌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았다. 적정 고도를 맞추고 비행을 하는데 귀가 엄청 먹먹했다. 코를 막고 힘을 주어도 먹먹하고 침을 삼켜도 먹먹한 것이 없어질 생각을 안 했다. 조금은 불편했지만 내가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편함 따위는 바로 사라졌다. 그렇게 멀리서나마 창밖을 보고 싶어 창문만 바라보고 있던 중 승무원 누나께서 과자를 가져오셔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뭐가 뭔지 몰라서 아무거나 집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한 번 더 먹고 싶은 맛이었다. 그렇게 2시간 30분 정도를 비행한 후 기장님께서 착륙 방송을 알리고 착륙을 하였다. 착륙할 때의 느낌은 바이킹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엄청 황홀했다. 착륙 후 중국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 후 저녁을 먹고 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내가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너무 신경을 써서 많이 피곤했던 거 같다. 그 다음날 중국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는 중에도 한국에 가는 비행기가 꼭 창가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였다. 중국에서 지낸 시간 동안 오로지 비행기에 대한 생각만 한 거 같다. 중국 선수들과 6일 동안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배운 점도 많고 고쳐야 할 점도 알게 되었다. 이번 중국과 친선경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중국에서 6박을 보낸 후 비행기를 타는 당일 중국공항에 도착해서 표를 받았다. 이번 좌석은 26E였다. 이번에도 역시 아쉽게 창가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보다 창문과 한자리 더 가까워진 자리였다. 당연히 나는 엄청 아쉬웠다. 코치 선생님께서 내가 아쉬워하는 게 보였는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셨다. 양보해주시는 코치 선생님 등 뒤에서 천사처럼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선생님께 엄청 감사하여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후에 창가 쪽에 있는 자리

에 앉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중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던 것처럼 한국에 가는 비행기도 이륙 방송이 나왔다. 활주로에 들어가 이륙 허가 신호를 받고 그 전과 똑같이 엄청난 속도로 활주로를 내달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공중에 뜨면서 고도를 높이며 올라갔다. 그전에도 한 번 이륙하는 것을 느껴봐서 그 느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그게 비행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인 거 같다. 창가 쪽에 앉은 나는 비행기 창문 밖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녁이라 깜깜하기만 했다. 2시간 정도 비행 후 착륙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나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바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여러 개의 불빛들이 모여 나의 두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봤던 야경 중 가장 아름다운 야경이었다.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멋진 것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타고 싶었다. 비행기가 하늘 위를 나는 것만 보다 직접 그 비행기를 타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바이킹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짜릿한 착륙을 마친 후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바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다. 10살 때도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었고 18살이 된 지금도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 초등학교 · 중학교 때까지는 항공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말로만 실천하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생각과 말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 직접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느꼈다.

항공기 조종사라는 직업이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조종사가 되는 것은 엄청 어렵다. 그래서 난 요즘 들어 조종사는 나에게 맞는 꿈일까? 단지 비행기가 좋아서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나도 나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같다. 내가 10살부터 가진 조종사라는 꿈을 18살인 지금까지도 계속 간직할 수 있던 이유는 단지 비행기가 좋아서였다. 단지 비행기가 멋지다는 단순한 이유로 좋아하게 되었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8년 동안 좋아한 만큼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비행기는 조그마한 정비 실수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라는 직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목숨과 바로 연관되고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직업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만큼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은 열정과 욕망으로 가득하다.

나이가 18살이 된 지금까지도 비행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는 비행기 엔진 소

리에 내 몸이 반응한다. 나는 이러한 비행기가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비행기가 좋을 것이다. 항공기 조종사라는 꿈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꿈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꿈인 만큼 난 더욱더 노력을 하여 이룰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난 핸드폰, 컴퓨터 등 눈에 피로가 가는 것은 최대한 줄일 것이다.

조종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 위에 떠있는 상태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 1km 걷기, 자전거 타기 , 근력운동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할 것이다. 조종사는 관제탑과 통신할 때도 영어를 써야 하며 항공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있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고등학교 졸업전까지 토익 750점을 넘길 것이다. 그리고 항공 관련 대학교 항공운항과를 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노력하여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만약 내가 항공기 조종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항공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장담 할 수 있다. 항공관련대학 항공운항과에 진학 후 비행시간을 채워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나는 나를 상상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이런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인 , 항공기 조종사. 꼭 이루어서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비행기의 삶

중고등부 우수상 • 시 / 이소현

나는 새벽 네 시 언저리를 나는 중이야

고도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나는 조금씩 자라곤 한다
지구반대방향으로 떠나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해

불안정한 고도에 대해 타박하지는 말기로 해
나는 아직도 오래된 별자리를 찾고 있으니,
하늘 어귀 고여 있는 우울한 구름과
작게 멍울 맺힌 뿌연 미래를 말해줄 별자리

오후 아홉시의 시간으로 날기 위해선
연료를 아껴야 한다

이륙은 끝나지 않았고
달궈진 황금빛 궤도에 어설픈 날개를 실어
꼬리로 뱉어내는 연기는 곧이어
오를 어린 비행기들을 위해
길의 잔재를 조금 남겨둔다
나는 조금씩 타오르고 있고
내일은 다섯 시의 시간으로 올라야 한다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줘
먼저 오른 태양의 나라에서

나의 시간이 이십사 시간이 될 때까지

초등부

최우수상	시	비행기가 주는 선물	김한겸	157
우수상	수필	안내방송	하람	161
	시	첫 번째 비행기의 기억	형대영	162
	수필	싱가포르 여행기	안규리	163
	시	구름 위에서	서민기	166
장려상	소설	프랑스 파리로 가는길	이유성	169
	시	비행기는 좋겠다	이연경	171
	수필	내 여행은 0도씨	박소현	172
	시	친구를 태우고 간 비행기	이은채	174
	수필	나의 꿈, 나의 희망	김요한	176
	시	첫 이륙	전주희	178
	수필	하파데이~ 괌	이수아	179
	시	또, 가고싶다~	이태준	181
	수필	누나의 열 번째 생일 선물	우현민	182
	시	최초의 비행기	김나영	184
	수필	세부의 두 모습을 보여준 비행기	정시현	185
	시	공포증	양원정	187
	수필	처음 타본 비행기로 얻은 소중한 경험	김호연	188
	시	수하물 찾는 곳에서	안시은	196
	수필	탑승 5분 전	김준서	197
	시	비행기가 그은 밑줄	이도연	199
	수필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일	한유희	200
	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윤정원	203
	수필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김민서	204
	시	비행기	최보경	209
	수필	최고의 여행	박준휘	210
	시	나의 첫 비행기	심소은	212
	시	비행기 안에서	정진영	213
	시	구멍	신윤재	214
	시	비행기는 마술사	강다현	215

최우수상

비행기가 주는 선물

시 / 김한겸

비행기가 주는 선물

초등부 최우수상 • 시 / 김한겸

목적지가 생긴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몸이 살짝 붕 뜨더니 비행기가 난다.

살짝 흔들거리기도 하고 덜컹거리기도 하는 비행에
무서워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며 비행기에 몸을 맡기곤
승무원의 안내방송과 기장님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두려움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바뀌고
하늘 위에서 식사도 맛나게 하고
구름 속에서 영화도 본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어느새 낯선 곳을 향한 설레임과
새로운 기회와 만남을 선물로 주었다.

난,
오늘도 비행기로 만나는 도전과 설레임을 꿈꾼다.

우수상

안내방송
수필 /이하람

첫 번째 비행기의 기억
시 / 형대영

싱가포르 여행기
소설 / 안규리

구름 위에서
시 / 서민기

안내방송

초등부 우수상 • 수필 /이하람

나의 비행기여정은 뱃속부터 시작됐다. 어머니가 승무원이셨고 파리비행 후에 임신하신것을 아셨다고 한다. 내가 기억하는 첫 여행지는 발리다. 그때 나는 아주 어려서 비행기를 타면 우주로 가는 줄 알았다. 땅에서 보는 비행기 밑의 불빛은 별이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 처음먹는 사탕은 여행의 기대와 기쁨만큼이나 달콤했다. 첫 해외여행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기쁘게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밤 11시 30분이었다. 그런데 내 손목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항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지만 어머니께 물으니 시차때문이라고 하셨다.

즐거운 발리여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피곤했던 나는 바로 꿈나라로 빠졌다. 하지만 한 시간정도 지났을때 잠에서 깼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고 나의 비행기 여행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기내안내방송에서 난기류를 지나고 있다는 말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하셨다. 동남아시아노선에서 난기류는 자주 발생하지만 곧 괜찮아 질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키셨다. 문득 뉴스에서 보았던 비행기사고가 떠오르며 너무 무서워 눈을 찔끔 감았다. 그런데 잠시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안내방송이 들려왔다.“이제는 난기류를 통과하였습니다. 모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이 안내방송이 나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설레임,기쁨,즐거움,공포등 많은 감정을 느낄수 있었던 나의 첫 여행을 잊을 수 없다.

첫 번째 비행기의 기억

초등부 우수상 • 시 / 형대영

가족여행을 멀리 가기로 했을 때 나는
비행기가 새처럼 날거라고 생각했다.

아빠, 엄마 옆에서 두근두근하던 그 날
새처럼 나는 대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늘을 나는 동안은 시간이 멈추는 것일까?

드라이아이스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뭉게구름 때문에 시간감각이 마취되는 것일까?

그렇게 하얗고 파랗고 까맣게만 변하는
하늘 위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전혀
다른 세상에 도착하게 된다.
순간이동처럼 낯선 도시, 낯선 세상으로

비행기가 새처럼 날지 않는다는 걸 안 지금도
나는 비행기를 타면 마음이 설렌다.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레임 아닐까?

싱가포르 여행기

초등부 우수상 • 수필 /안규리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카운터에서 아빠와 엄마는 비행기표 받기, 짐 보내기, 여행자 보험 들기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어려서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하나 구경만 하지만, 크면 나도 혼자 할 수 있겠지? 여행자 보험 들기를 마치고 출국수속장으로 갔다. 출국수속장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지만, 줄을 서도 5분 정도 기다리면 되어서 편리했다.

출국수속장에서 내가 금속탐지기를 지나는 순간이었다. "삐~~삐~~"하는 소리가 갑자기 났다. 그때 내 머릿속은 하얀 백지가 되었다. '어쩌지?, 어떻게 해! 나. 여행 못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항직원분이 나의 몸수색을 하셨다. 살짝 나온 나의 배를 '통통'두드려보시고, 바지주머니도 살펴보셨다. 그러는 동안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다행히도 이상이 없어서 내보내 주셨다.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행갈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눈물이 흐른 것 같다. 엄마께서 금속탐지기에서 소리가 난 이유를 알려주셨다. "너 머리띠 때문이야."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즉, 내 머리띠는 금속으로 되어있던 것이다.

진땀나는 일을 겪고,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서도 나를 긴장시키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어려서부터 나는 비행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무서워했다. 비행기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는 매우 커서 미사일 발사되는 소리 같다. 물을 내릴 때 귀를 막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엄마가 화장실 물을 내려 주신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모님 중 한분은 꼭 나와 함께 가 주셔야 한다.물론, 이번 여행에서도 엄마와 함께 화장실에 갔고, '쿠~앙~~'하는 공포의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공기도 좋고, 길도 깨끗해서 마음이 편안해 졌다. 싱가포르 땅을 밟은 첫 느낌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 날 설레는 마음으로 'UNIVERSIAL STUDIO'에 갔다. 이곳은 놀이동산이다. 먼저 '트랜스포머'를 탔다. 너무 무서웠다. 화면의 로봇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남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다음으로 '지구인'이라는 놀이기구를 탔다. 이 놀이기구는 '롤러코스터'이다. 옆으로 몸이 쏠렸다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것이 무서워도

재미있었다. 특이한 점은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타야 했던 것이 생각난다. 슬리퍼를 신은 우리엄마는 그 덕분에 맨발로 탑승했다. 더운 나라여서 다행이지 추운 나라였으면 발이 얼었을 것이다. 그리고 '쥐라기 파크'에 가서는 동그란 워터슬라이드를 탔다. 가짜 공룡이 내 눈에는 진짜 같이 보였고, 물이 들어와서 차가웠다. 우비를 입고 있는 나는 물에 젖지 않았지만, 우비가 없던 우리 아빠는 '물통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FAR FAR AWAY'에서 슈렉 4D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4D라 그런지 생생했다.

여행 두 번째 날에는 '싱가포르 플라이어'라는 대관람차를 탔다. 지금까지 내가 본 대관람차 중 제일 컸다. 멀리서도 대관람차가 보일 정도로 크다. 대관람차에 올라 탈 때는 무섭지 않았다. 그러나 올라가면서 점점 무서워졌고,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비행기보다는 낮지만, 대관람차는 밖이 잘 보여서 무섭게 느껴졌다. 꼭대기까지 온 내가 대견했다. 꼭대기에서 본 싱가포르의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다. 대관람차가 더울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했다.

센토사 섬 안에서 많이 걸으며 관광한 날도 기억난다. 우리 가족은 센토사 섬에서 '루지'체험, '짚라인'체험을 했다. '루지'는 자동차처럼 바퀴가 있는 1인용 무동력 카트이다.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가파른 길을 지나야 했는데, 그때는 손잡이를 무척 꽉 잡았다. 손이 너무 아파서 살짝 잡았더니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재미있었다.'짚라인'은 타잔처럼 줄을 타고 산에서 바다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75미터 높이, 450미터 길이의 '짚라인'로프가 센토사 섬에 있다. '짚라인'도 처음 타보는데 기다릴 때 이것을 타고 싶다고 한 내 말이 후회되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직접 타보니 시원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센토사 섬에서 '팔라완 비치'의 해적 섬 같은 곳으로 가며 언니와 함께 흔들다리를 건너는 체험도 기억에 남는다.

어느날 밤 'GARDENS BY THE BAY' 쇼도 인상 깊게 봤다. 이 쇼는 밤에만 하는 조명쇼이다. 16층 건물 높이로 자라난 나무(슈퍼트리)와 사람이 만든 조명의 조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누워서 쇼를 보았다. 우리 가족도 길바닥에 누워서 쇼를 보았다. 길바닥에 누워서 쇼를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GARDENS BY THE BAY'에서는 흔한 일 이었다. 누워서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 쇼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수천마리 새가 사는 '주롱새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가 '새 공연'장에서 게스트로 뽑혀 새가 지나가는 훌라우프를 들고 서 있었다. 훌라우프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앵무새 두 마리가 내가 들고 있는 훌라우프 사이를 휙 하고 지나갔다. 새가 훌라우프 사이를 통과하면 큰 음악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내가 게스트로 뽑힌 것도 신기

한 일이지만, 새가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주롱새 공원'에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바닥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조그마한 새가 있었다. 그 새를 못 보고 엄마가 새의 날개를 밟아서, 새가 엄마의 발을 '콕,콕, 콕' 문 것이다. 빨강파랑초록 깃털을 가진 새는 우리 엄마에게 얇은 날개를 밟혀 아프다고 짹짹대고, 엄마는 새가 문다고 비명을 질렀다. 웃기지만 웃을 수 없었다. 그 새는 엄마가 가지마자 다시 먹이를 먹는걸 보니 다치진 않은 모양이다.

싱가포르에는 신기한 조각상이 있다. 그것의 이름은 '멀라이언'이다. 멀라이언'은 윗부분은 사자, 아랫부분은 인어인 조각상이다. 센토사 섬에는 커다란 '멀라이언'조각상이 있고, '마리나베이샌즈'에는 작은 '멀라이언'이 있다. 사자하면 웅장하고 무서운 느낌이지만 '멀라이언'은 귀여워 보였다. 이런 조각상을 어떻게 생각해 냈는지...'인어공주'동화를 보고 생각했을까?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 일주일이 금방 지났고 이제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는 날이 되었다.싱가포르 공항에 갔다. 싱가포르 공항에서는 출국 수속으로 지문 찍는 것이 다였다. 짐 검사와 몸수색은 하지 않는 것이 궁금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지문은 평생 바뀌지 않지만 나쁜 사람이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탈 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금 다를 뿐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짐 검사와 몸수색을 하였다. 싱가포르 금속 탐지기를 지날 때는 금속머리띠는 미리 뺐다. 머리띠를 하지 않았지만 금속탐지기를 지날 때 조마조마 했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나라마다 출국수속 절차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싱가포르를 떠나는 순간까지 보고, 배우는 것이 많았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싱가포르에 언젠가 다시 가서 못보고 온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구름 위에서

초등부 우수상 • 시 / 서민기

비행기 타고
구름위로 붕~

처음 보는
구름 위의 모습

폭신폭신 이불 구름
누워보고 싶네.

몽글몽글 순두부 구름
먹어 보면 무슨 맛일까?

장려상

프랑스 파리로 가는길
소설 / 이유성

비행기는 좋겠다
시 / 이연경

내 여행은 0도씨
수필 / 박소현

친구를 태우고 간 비행기
시 / 이은채

나의 꿈, 나의 희망
수필 / 김요한

첫 이륙
시 / 전주희

하파데이~ 괌
수필 / 이수아

또, 가고싶다~
시 / 이태준

누나의 열 번째 생일 선물
수필 / 우현민

최초의 비행기
시 / 김나영

세부의 두 모습을 보여준 비행기
수필 / 정시현

공포증
시 / 양원정

처음 타본 비행기로 얻은 소중한 경험
수필 / 김호연

수하물 찾는 곳에서
시 / 안시은

탑승 5분 전
수필 / 김준서

비행기가 그은 밑줄
시 / 이도연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수필 / 한유희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시 / 윤정원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수필 / 김민서

비행기
시 / 최보경

최고의 여행
수필 / 박준휘

나의 첫 비행기
시 / 심소은

비행기 안에서
시 / 정진영

구멍
시 / 신윤재

비행기는 마술사
시 / 강다현

프랑스 파리로 가는 길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이유성

머리말 : 공항에서 파리로 가는길까지의 경쾌한 이야기가 이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정모씨 맞으시죠? 총 4명입니다."

승무원의 말에 아빠가 짧게 "넵"이라고 대답했다.

"탑승수속 하시고 승강기 타세요"

승무원이 다시 답변을 해주었다.

우리가족은 즐겁게 프랑스 파리로 떠날 것이다. 나는 그 설렘 때문에 어젯밤에 겨우 잠을 잤다. 아버지께서 나와 여동생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유민,유진 신나지? 아빠 엄마와 거기 가서 재미있게 놀아보자"

나와 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후 우리는 탑승수속을 다 한 뒤 비행기로 탑승하였다.

이번에는 엄마가 물어보았다. "우리 어디가서 뭐하고 놀게?" 난 알지만 내여동생은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유진아? 그것도 몰라,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랑 베르사유궁전에다 오르세미술관도 가고 자전거도 빌려서 여행한다 했잖아." 여동생은 그제야 "아,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비행기는 파리호 B-2135이며 기장 박성우 부기장 고현빈님이 비행을 해주시고승무원 차현태부장님 김미정 승무원 박은태 승무원 남체리 승무원님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내안전안내서를 참고하시고 통신기기를 결때는 승무원에게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말이 끝나고 곧 이동했다. 이때가 4시였다. 30분후 나는 승무원께 허락을 받아서 전자기기로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고 동생마저도 자고 있었다. 지금 깨어있는건 나와 5명뿐이다.

30분후 모두가 다 자고 나만 깨어있는데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혼자 듣는게 무서워서 빨리 자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승무원은"비행상태가 좋지않으니 여러분은 전자기기를 끄시고침착하게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비행기상태가 좋지않다는 말에 통신기기

를 다끄고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는 정말 무서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비행기는 다행히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이며 조금있다 조식이 준비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끝냈다.

모두가 깨어난 후 기장의 말대로 조식이 준비되었다. 나와 여동생은 비빔밥을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고기덮밥를 먹었다.

밥을 다먹고 tv를 보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다. 나는 똥을 싸려고 화장실로 갔다. 갔다오는데 어떤 사람과 부딪혔다. 파란 티셔츠와 검정바지를입은 사람이었다. 난 그 사람께 사과를 했지만 그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tv를 보고있는데 뉴스에서 파란티셔츠와 검정바지를 입은 김윤호 연쇄살인자가 비행기 B-2135에 탔으며 그것에 주의 하라는 말이었다. 그 뉴스를 다보고 승무원의 방송이 울렸다.

"연쇄살인자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경찰이 올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우리 가족은 무서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그 연쇄살인자와 만나지 않았다. 우리는 행복하였다. 30분후 경찰이 연쇄살인자를 체포했다는 방송이 울렸다.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오후3시 나는 아빠와 같이 게임을 했다. 원피스랜무 게임이다. 아빠는 원피스랜무 게임을 좋아한다. 물론 나도 원피스랜무 게임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비행기 안은 정말로 재미있었다. 오후5시40분이 되어서 승무원의 방송이 울렸다. "우리 비행기는 파리 샤를드골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승객여러분은 통신기기를 끄시고 침착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착륙준비를 위해 통신기기를 끄고 탁자를 덮었다. 나는 매우 기대가 되었다.

15분후 드디어 착륙을 했다. 우리는 파리에 입국을 하고 파리 땅을 처음 밟아 보았다. 나는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1주일후에 한국으로 다시 가는데 아쉬움도 있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곳들을 보고 자전거를 빌려서 샹젤리제 거리도 돌아보았다.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여행이었다.

일주일후한국으로 돌아갈때는 비행기를 갈아타기로 하였다.

파리 샤를드골국제공항에서 아버지가 물어보았다. "유민 유진 재미있었지?"나와 여동생이 동시에 큰소리로 대답했다. "당근이죠"10분후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라는 큰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안전띠를 메고 이륙을 할 때 동안 이야기를 하며 침착히 기다렸다.

비행기는 좋겠다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연경

비행기는 좋겠다.

새처럼
슝슝 슝슝
날아서 좋겠다.

비행기는 좋겠다.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매일 여행을 해서 좋겠다.

나도 비행기처럼 하늘 위를
슝슝 슝슝
날고 싶어요.

내 여행은 0도씨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박소현

나의 첫 여행이 시작되었다. 나의 생 처음 여행 지점은 싱가포르이다.

"엄마 갔다 올게요." "응 잘 다녀와! 조심하구." 나는 처음으로 비행기에 타 보는 것이다. 물론 해외여행은 나의 12년 인생 처음이다. 엄마와 떨어지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좋을 수가! 감격의 눈물이 떨어진다. 한동안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듣다니!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걷고 걷다 보니 지친다. 근데 공항에서 재밌는 공연도 보고 쉬면서 가다 보니 흥이 저절로 난다. (공항에서 재밌는 공연도 하고 지치면 쉴 곳과 정말 귀신이 소름 돋을 정도로 깨끗한 면세점 등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니 비행기가 도착했다. 드디어 나와 비행기가 가까워진 것이다.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질 때마다 한편으론 긴장되고 한편으론 너무 신났었다! 두근두근 정말 긴장된다. 난 어느새 좌석에 앉아 있었다. 앉아보니 담요도 있고, 칫솔과 아주 가벼운 종이 같은 슬리퍼와 책들 그리고 헤드셋이 있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았다. 자리는 너무 좁았던 것 같다. 그 점이 많이 안타까웠다. 음... 예정 시간은 오고가고 시간은 약12시간이다. 내가 위에다가 가방을 놓으려는데 키가 작아서 닿지가 않았다. 그러고 있는데 승무원 언니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날 도와주었다. 너무 고마웠다. 그러고 있는데 방송 소리가 들렸다. "자 이제 출국 하겠습니다."승무원이 말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다. ' 비행 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엄마 아빠 못 만날 텐데...' 사실 난 두려웠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과 같은 많은 걱정들을 했다. 그러고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다. 내가 날은 것이다. 한편 뿌듯함과 비롯해 내 여행은 물이 어는점 즉 0도씨가 되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고 있을 때 덜컹하면 너무 두렵고, 처음 타보니 아무리 신이나지 않더라도 기대가 컸을 것이! 근데 그게 시작이었다. 마침 배도 고팠는데 간식이 온다. 보니까 간식은 아니었다. 음료수와 물이었다. 그래서 난 물을 마셨다. 근데 물과 간식 등이 계속 나온다. '후...배부른데 왜 뭐가 계속 오는 거야!'하면서 나는 뭘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릇과 컵을 너무 빨리 가져가는 것이다. '왜 이리 빨리 가져가는 거야!' "저기! 언니 저 그릇 좀 가져가주세요." 그 언니는 승무원인 것 같았다. 그런데 내 말은 듣지도 안고 쌩 지나가 버린 것 같아 속상했다. 뭘 먹다보니 배가 부르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

진다. 옆에 앉은 어떤 언니가 화장실이 어딘지 알려주어 고마웠다. 화장실은 생각 이상으로 깨끗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사실 화장실이 걱정되었었기 때문이다. '아! 좋다' 피곤함에 잠이 몰려온다. 잠에서 깨보니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감탄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멋있었다. '이야, 하늘색 빛깔과 새하얀 구름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아침은 되게 맛있었다. 아침밥을 다 먹으니 조각 피자 나오지, 빵 나오지 뭐 없는 것 빼고 다 나온 것 같았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도착이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다. '후 제발 무사 착륙하길'그렇게 하고 있으니 귀가 너무나 따갑고 아프다. 침을 삼키니 좀 괜찮다. 드디어 착륙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것 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너무나 긴 여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친구를 태우고 간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은채

친구가 공항에 도착한 날
슬픔의 폭풍우가 몰아친 날
그렇게 비행기에 한 발짝 한 발짝
그럴수록 나의 발걸음은
긴장의 한 발짝 한 발짝
야속한 비행기는
오늘도 힘차게 날고 있네

비행기가 날고 있던 그 시간
친구가 두근두근거리던 시간
비행기는 뉴질랜드로 훨훨
친구는 신비의 땅으로 이륙
용감한 비행기는
오늘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네

비행기가 뉴질랜드에 도착했던 날
펑펑 울고 싶었던 날
친구가 타고 있던 비행기,
그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으면 했던 날
그래도 친구를 위해 애써 쓴 웃음 지었던 날
야속한 비행기는
친구만 빼고 다시 돌아왔네

뉴질랜드 땅을 밟고 있던 시간
희망에 찬 그 친구,

행복한 눈길로
다시 시작할 날들을 꿈꿀 시간
이국 땅까지 무사히 데려와준
비행기가 소중했을 시간

친구가 생각 날 때면
한참을 바라보던 하늘
원망의 눈길로 하염없이 보던 비행기
그러다가도 친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준,
친구의 눈에 푸른 하늘빛
희망의 물결이 넘치게 만들어준
정말로 너무나도 고마운 비행기

그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비행기

나의 꿈, 나의 희망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김요한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 난지 꼭 67주년입니다. 6.25전쟁을 잊지 말자면서 옛날 할아버지가 탔다는 전투기를 보여준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공군 제대를 하셨대요. 그 당시 전투기가 탐라자유회관에 전시되어 있대요. 전투기를 직접 본다니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탐라자유회관에 갔더니 멋있는 탱크와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탔다는 전투기를 앞에서 보니 신기했어요. 그 전투기를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비행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지요.

"할아버지가 탔던 전투기를 보니 저도 공군이 되고 싶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자기 할아버지를 자랑하는데 대부분이 해병대이거나 육군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공군이 되셨어요?"

" 응, 내가 공군에 입대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전송가'라는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야. 네가 전투기를 보고 공군이 되겠다는 꿈을 갖은 것과 같다고 할까?"

"그럼, 전송가'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영화 '전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전송가는 한국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딘 헤스 대령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야. 그는 2차대전시 폭격 실수로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을 살상한 죄책감에 제대 후 목사가 되었지. 그 후 한국 6.25 전쟁이 일어나자 죄를 씻는 기회로 삼고자 다시 한국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되지. 자신이 훈련시킨 조종사들과 함께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가던 그는, 어느 날 고아들을 수용한 시설을 알게 되어 그들을 돌보아주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1.4후퇴가 되자 400여명이나 되는 고아들의 피난길이 막막해진 것을 안 그는 필사적으로 사방에 손을 써서 마침내 그들을 수송할 수송기를 얻어내어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키는 데에 성공했어. 그가 보살핀 제주도의 고아원을 '한국보육원'이라했는데 할아버지도 그 때 그 보육원생들과 같이 중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했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미남배우 록 허드슨이 했대요. 군인인 그가 고아들을 제주도로 수송하는데 감동했고, 그 보육원이 할아버지께서 다니는 중학교 옆에 있어서 더 실감이 나 잊어지지 않는대요. 그리고 보육원 원장 황온순 여사 역을 맡은 여 배우가 영화 내내 한복을 곱게 입었던 게 인상적이었고, 어린 고아들을 친자식과 같이 재우면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도 귓가에 쟁쟁하대요. 그 때 제주도에서 보육원을 세워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 휘경여고 창립자인 고 황온순 여사래요.

이 영화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위해 싸우면서 민간 피난민과 전쟁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던 딘 헤스 대령이 주는 교훈이래요. 이처럼 한편의 전쟁영화 '전송가'가 할아버지의 조종사 꿈을 키운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전송가'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공군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딘 헤스 대령처럼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유회관을 둘러보면서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 싸워준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회관을 나오면서 전투기 위에 앉아 조종하는 제 모습을 다시 한 번 그려보았답니다.

첫 이륙

초등부 장려상 • 시 / 전주희

3학년,
나의 첫 이륙이 시작되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그사이에 끼여있는 나

하파데이~ 괌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이수아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여행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자주 간다. 우리나라 여행도 많이 다녔다. 특히 제주도는 나랑 아주 친하다. 나는 차멀미만 했는데, 언젠가 비가 심하게 올 때 비행기를 탔다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멀미를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제주도를 생각하면 좀 더 친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아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아빠가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 바로 괌 여행이다. 나는 아직 어려서 가까운 제주도나 일본만 비행기를 탔었는데, 괌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니 너무 설레였다.

내 동생과 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모니터 리모컨을 찾느라 바빴다. 괌으로 가는 비행기는 꼭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처럼 편안했다. 왜냐하면 승무원 이모가 리모콘 이용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 주셨기에. 그리고 내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선물로 주셨다. 비행기안에서 있는 동안 맛있는 간식도 주고, 재미있는 만화영화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았다.

이번에 아빠가 가족여행으로 괌을 결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할머니 덕분이다. 할머니께서 비행기만 타면 좋아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아빠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다. 괌은 할머니도 여행하시기에 편하신 곳이었다. 우리가 괌에서 PIC 숙소에 있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아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시고, 엄마가 우리들이랑 어린이들 체험을 하게 해 주셨다. PIC안에 계신 키즈클럽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셨다. 특히 체험을 하고 식당에서 만날 때도, 수영장에서 또 만나도 계속해서 "하파데이"라고 인사해 주셨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우리 아빠가 알려주셨다. "안녕하세요!"처럼 괌이나 사이판에서는 "하파데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라고 하셨다.

나랑 동생은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식당에 가거나 하면 먼저 "하파데이"라고 했다. 그렇게 인사하니, 그 선생님들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셨다. 나보다 동생이 더 신나

서 "하파데이"하면서 또 사진을 찍었다.

괌에서 신나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가장 신기한 것이 바다 스노쿨링이다. 투몬비치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 한 가운데에 가니 돌고래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배에서 직접 스노쿨링 장비를 하고 바다로 들어갔다. 코발트색 바다는 처음 봤다. 제주에서 본 바다색이나 태국에서 본 바다 색깔보다 더 파랗고 진했다. 그런데 바다에 열대어들이 있는 것을 보니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산호도 있었다. 가끔 아쿠아 플래넷을 가기도 했지만 실제 바다 속이 훨씬 크고 멋진 느낌이다.

'내가 남태평양 바다속을 보고 있다니~' 너무 너무 즐거웠다. 우리 할머니도 스노쿨링을 같이 하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엄마는 수영을 잘 못하셔서 우리 엄마만 스노쿨링을 안하셨다. 우리 엄마도 빨리 수영을 배우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괌에서 유명하다는 '사랑의 절벽'을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런데 택시를 운전하신 분이 한국분이셨다. 하와이에서 40년을 지내신 할아버지께서 괌에 와서 일하시는 분이셨다. 할아버지이시지만 멋지신 분이셨는데, 괌이 참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나는 여행은 아주 많이 생각해 봤는데, 하와이에서 40년을 지내신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아주 오래 지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랑 친한 친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말레이시아로 공부하러 간다. 내 친구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나는 우리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사는 것은 아직 생각하기 싫다.

이번 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파데이'라고 내가 먼저 인사했다. 지금은 '하파데이'하고 있는 내 사진을 보는데 웃음이 난다. 다음에 또 괌 여행을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태준

해외로 가족여행 간다고
1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한
우리가족 왕돼지 저금통

통닭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찜통 더위에 에어컨 틀고 싶은 거 꾹 참고
친구들의 빛나는 새 자전거 부러워만 했다

드디어, 자랑스런 왕돼지 저금통이 열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나는 순간
우리가족 소중한 꿈도 날개를 활짝 펴고 슝~ 날았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벅찬 설렘이
내 마음을 채웠다

세상에서 가장 싱싱하고 환한 미소가 엄마, 아빠 얼굴에 번졌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너무나 아까운 순간이었다.
그립다. 또 가고 싶다.~~~

누나의 열 번째 생일 선물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우현민

누나와 함께 도쿄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다.

"현민이 너를 위해서 누나가 준비한 열 번째 생일 선물이야."

조금 실망스러웠다. 내가 엄청 갖고 싶었던 게임기를 선물로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은 누나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나를 향해 엄마가 인사를 해 주었다.

"우리 현민이 좋겠다. 누나가 해외여행도 시켜 주고. 외국에 나가면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누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

엄마의 잔소리가 한가득 쏟아졌다. 막둥이로 태어난 나를 엄마는 언제나 아기 취급한다. 나도 벌써 열 살이나 먹었는데도 말이다.

인천공항에는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는 간단했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서는 복잡했다. 신분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했고, 비행기를 타러 들어갈 때는 몸에 길쭉한 기계를 대고 검사를 했다. 나는 어린이라고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현민아,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팥빙수 먹을까?"

입국심사를 마친 나는 누나를 따라갔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곳은 마치 백화점 같았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있었다.

"우와, 엄마가 있었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누나는 빙긋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았다. 두리번거리는 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3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나 싶었는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귀가 멍멍해져서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구름 위에 그냥 떠 있는 것처럼 아무 느낌 없이 두 시간이 지났다. 잠깐씩 맛본 꿀잠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도쿄에 도착한 누나와 나는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 신나는 여행을 즐겼다. 누나는 나를

위해 준비한 여행인 만큼 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서 다녔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일본의 유명음식들로 하루 세 끼 골고루 맛보게 해 주었다. 엄마처럼 잔소리만 늘어놓을 것만 같았던 누나가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날, 누나와 나는 아주 유명한 라멘을 먹으러 갔다. 그곳은 내가 검색한 곳이었다.

그러나 누나는 라멘이 아닌 밥을 시켰다.

"누나, 여기는 라멘이 엄청 유명한 집이야. 집에서도 맨날 먹는 밥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밥이야?"

해외여행 3일째가 되자,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먹어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하면서 누나가 빙긋 웃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히 10분 후에 알 수 있었다.

"아우, 짜! 누나, 물! 물!"

라멘보다 물을 더 마신 것 같았다.

"내가 먹던 라면하고는 완전 달라. 일본 라멘은 왜 이렇게 짠 거야?"

"일본은 해양성 기후라서 음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짜게 조리를 해."

"누나는 어떻게 알아?"

"여행을 오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야지. 현민이의 멋진 가이드가 되어 주기 위해서 누나가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

공부보다 그림을 좋아해서, 화가가 된 누나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다. 우리는 도쿄타워를 마지막으로 둘러본 후에, 공항으로 갔다.

인천공항에서는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하네다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많이 타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공항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누나와 함께하는 여행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여행은 아주 신비한 마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마법!

나의 열 번째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나는 벌써부터 열 한 번째 생일 여행을 계획했다. 누나가 그 때도 함께 가 주었으면 좋겠다.

최초의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김나영

최초의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라이트형제의 플라이어 1호

하지만 비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날아가는 수레 비거
조선시대 정평구가 만든 우리의 유물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만들고
먼 곳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만들고
최초의 비행기는 그렇게 만들게 됐을까?

최초의 수직이착륙 비행기
이착륙할 때 필요한 바퀴가 한 개인 비행기
비행기를 운송하기 위해 머리 부분이 큰 비행기도 만들었지만

아직도 최초로 만들 수 있는 비행기는
무궁무진 하지 않을까?

최초의 우리나라 비행기 비거의 뒤를 이을
라이트형제처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비행기가 빨리 만들어 졌으면…….

세부의 두 모습을 보여준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정시현

'비행기를 타면 어떤 느낌일까?'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비행기가 몹시 타고 싶었다. 어떻게 수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먼 곳을 날아가는지 신기하기만 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세부 여행을 가게 되었다. 공항에 갔을 때 나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처음 타보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마치 새의 등을 타고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니 한편으로는 떨어질까 무섭기도 했다. 창문을 보면 보이는 구름이 솜사탕 같아서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는 5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세부에 도착하였다.

세부는 필리핀의 작은 섬이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덥다. 사람들은 농사와 고기잡이를 하며 산다고 한다. 그곳의 사람들은 내가 듣기에 이상하게 들리는 필리핀어도 쓰고 영어도 쓴다. 세부는 아주 멋진 곳이다. 시원한 바다와 배가 있고, 예쁜 물고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망고와 망고스틴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제트스키를 탄 것이 가장 신이 났다. 제트스키를 타니 마치 내가 소금쟁이처럼 바다를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맹그로브 숲은 더웠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휘어져 있었고 흙탕물도 있었다. 나는 호텔에서 물놀이를 하고 필리핀 아이들에게 음료수도 주며 놀았다. 이런 곳이 세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족이 호텔 밖으로 나와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내 또래의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팔찌와 조개껍질로 만든 목걸이를 팔았다. 나는 아침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저 아이들이 불쌍해, 장사하느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세부가 발전만 좀 더 많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우리 저 아이들이 팔고 있는 목걸이 사주자"라고 말하고 팔찌 5개와 목걸이 2개를 샀다. 한국에서는 1달러로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세부에서는 1달러로 아이들이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세부의 아이들은 차이가 났다.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멋진 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세부의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장사를 한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비행기는 나에게 세부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밥을 남기지 않고 투정을 하지 않는다. 세부의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다. 세부의 아이들도 나처럼 잘 먹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공포증

초등부 장려상 • 시 / 양원정

공항에 들어 설 때면
나도 모르게 콩닥콩닥

검색대를 지나면
죄를 진것처럼
식은땀이 주륵주륵

비행기에 올라 탈 때면
잊고 온 것이 없나
안절부절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공포증이 숨어있다.

처음 타본 비행기로 얻은 소중한 경험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김호연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기대가 된다. 우리 가족은 6시에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정말로 힘들었다. 먼저 핸드폰 로밍을 하기 위해 갔다. 로밍을 한 뒤에 아빠께서는 짐을 붙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짐을 부치는 곳으로 이동했다. 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짐을 부치기 위해 30분이 넘도록 줄을 선 거 같다. 겨우겨우 짐을 부친 뒤, 티켓을 받았다. 조금 있다가 위험 감지시스템을 지나면서 몸에 총이나 칼 등이 없는지 확인했다. 무사히 통과를 했다.

이제 출국심사이다. 여권을 공항 경찰관께 드리면 경찰관은 내 얼굴과 여권 얼굴을 살피더니 길을 비켜주었다. 출국심사를 마치고 부모님이 모니터처럼 말하던 면세점으로 들어갔다. 아빠께서는 면세점으로 들어가면 한국이지만 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땅인데 어떻게 한국이 아닌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빠는 담배를 사셨고, 나에게 빵을 사주셨다.

그때 면세점 소파에서 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았다. 혹시 나도 이런 비행기를 타는 것일까?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속도를 내는 모습도 보았다. 점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기대가 되었다. 아빠가 나랑 엄마를 찍어 준다고 하셔서 나랑 엄마랑 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한다.

탔는데 어쩐지 좀 어지러운 느낌? 토할 거 같지는 않지만 머리가 조금 뜨끈뜨끈 한 느낌? 이제 출발한다. 바이킹 타는 느낌 같다. 우오! 정말 빠르다. 구름 위까지 올라왔을 쯤에 나는 비행기 창문 틈으로 사진을 찍었다. 구름을 확 깨물어주고 싶다. 솜사탕 위에 떠다니는 거 같다. 이 구름을 한창 구경할 때 승무원이 와서 물었다. “무얼 드실 겁니까? 닭고기밥이랑 생선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닭고기를 선택했다. 그때 승무원이 또 물었다. “어떤 음료수를 드실 겁니까??” 바로 아빠한테 말했다. “사이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오렌지주스” 그때 아빠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 “맥주랑 오렌지주스, 사이다 하나 주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내식을 먹을 차례다. 승무원이 가져온 닭고기밥을 비벼서 먹었다. 와! 이거는 신세계에서 외계인이 전해주던 그 맛이다. 정말 맛

있다!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 본격적으로 잠을 청해 볼 것이다. 3시간 동안 꿀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나 얼마 남았는지 보았다. 아직 1시간 30분쯤 남았다. 심심해서 엄마를 깨웠다. " 엄마 이제 중국땅 중간쯤 왔어. 반 남았다고!" " 그러네…." 나는 너무 심심해서 밖을 보았다.

와! 바다가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높이높이 올라 왔다. 근데 자꾸 귀가 멍해진다. 이제 도착했다. 정말 더웠다. 하지만 몹시 아름답다. 근데 거의 다 논인 거 같은 기분은 기분 탓인가? 내려올 때 왠지 바이킹 타는 것 같았다. 착륙할 때 바닥에서 엄청난 속도로 착륙했다. 비행기 탄 것이 정말 좋았다. 다행인 것은 만약 육지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다면 무척 더웠을 것이란 것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가족은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간다.

공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트남 공항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기다리는 데 한 40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아빠는 베트남 직원을 구박하셨다. 너무 느리다고 말이다. 알고 보니 직원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느린 거였다. 짐 찾는 곳에서 이제 짐을 찾는다. 이제 찾았군! 이제 공항검사는 끝났다.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가이드를 찾았다. 노랑 풍선이라는 한 표지판을 들고 있는 현지인 분이 계셨다. 그분이 한국말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때 한국 가이드가 오셔서 버스에 타라고 하셨다. 이제 더운 태양과 면담할 차례이다. 와! 땅이 뜨거울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이 뻘뻘 난다.

이제는 아주 시원한 버스를 탔다. 같이 여행 할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근데 왜 내 또래 아이들은 없지? 할머니, 할아버지, 대학생 등등 밖에 없다. 여행이 어쩐지 심심할 거 같다. 가이드가 이번에는 쌀국수를 먹으러 간다고 하셨다. 매우 기대가 되었다. 쌀국수를 파는 곳으로 갔다. 맛있게 잘 먹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서 입맛에 맞지는 않았다. 그래도 맛있기는 했다.

가이드가 호치민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셨다. 호치민은 베트남을 구한 영웅으로 자신이 귀한 대접 받으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반찬을 3개만 차려 먹었었다. 또 전쟁이 났었을 때 대학생을 유학 보내서 과학 기술을 배워 오도록 하였다. 유학을 간 학생들이 라디오를 발명해 왔을 때 호지민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존경했다. 호치민은 한 나무 아래에서 걷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호치민은 겸손했다. 호치민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것을 불쌍해하고, 마음 아파했다. 호치민의 묘는 항상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들어 갈 수가 없다.

이번에는 베트남 전통 수상 인형극을 볼 것이다. 그전에 스트리트카를 타고 베트남 전통 수상 인형극을 본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인형극을 좋아한다. 근데 스트리트카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타러 갔는데 어쩐지 차가 오픈차인 거 같았다. 현지인이 우리를 찍어

줬다. 이 스트리트카는 옆이 뚫려있어서 내가 오픈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차는 정말 빨라서 엄마가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날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빠는 맨 앞에 앉아계신다. 벌써 다 탔다. 가이드가 이 티켓을 어떤 한 분께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가이드분은 이 수상 인형극을 보지 않겠다고 하신다. 기대 되는 맘으로 들어갔다. 일단 노래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이렇게 인형극이 시작된다.

엄마는 너무 재미없어서 주무실 뻔했다고 말한다. 아빠와 나는 볼 만했다. 중간에 멈춰 섰다. 밥을 먹기 위해서이다. 바로 베트남의 만두국이다. 한 번 먹어 보았다. 내 입맛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안 먹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밥을 먹었다.

이제 하노이에서 하롱베이에 있는 숙소로 출발한다. 한 번 호텔에서 자고 싶었는데. 정말 좋다.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가는 중간에 공부 해볼까요? 라고 물으셨다. 다른 분들은 싫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셨다. 근데 나는 제일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말했다. 가이드는 내가 좋다고 하셨다. 오늘은 거의 내가 큰소리로 대답을 잘하셨다면서 버스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면서 칭찬을 하셨다.

공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꼭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 참고 참던 그 때랑 비슷하다. 참고 참다 더 이상은 못 참을 거 같아서 아빠께 겨우 말을 했다. 아빠는 가이드에게 내가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 같다면서 말을 하셨다. 가이드가 강쪽에서 볼 수 있을 거라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그래서 겨우겨우 볼 수 있게 되었다. 힘들었다. 가이드는 내가 잠시 반딧불이를 했다면서 이제 출발한다고 하셨다. 근데 반딧불이의 뜻은 뭘까? 버스가 중간에 멈춰 섰다. 마사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원래는 2시간이다. 내일 2시간을 받는데, 나는 안 받는다. 정말 슬프다. 나는 들어갔다. 그때 한 여직원이 나한테 오더니 나의 발을 씻겨주었다. 다른 분들의 발도 많은 직원들이 씻겨주었다. 이제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한다. 계단이 좀 미끄럽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을 씻겨준 여직원이 함께 계단을 올라가 주었다. 이제 나와 엄마는 같이 옷을 갈아입었다. 그때 여직원들이 들어왔다. 이제 마사지를 받는다. 나를 도와주던 여직원이 나를 마사지해 주었다. 온몸이 정말 시원하다. 엄마는 아파 보인다. 엄마는 마사지 받는데 여직원이 내게 하는 거와 다르게 했다. 그런데 엄마는 시원하다고 하신다.

이제는 숙소로 들어갔다. 숙소에 있는 침대에 누워보았다. 정말 좋았다. 에어컨은 펑펑 켜지고 있었다. 램프에다가 티비에다가 항상 들어가서 씻고 싶었던 욕조가 붙여져 있었다. 그때 천국에 온 거 같았다. 이제 자야 한다. 베트남이여!! 내일 보자!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다. 근데 막 천둥번개가 막 치고, 비는 쏟아져 내려오고. 그래서

유람선은 타지 못하게 되었다. 어제 못 씻어서 하루 빨리 몸을 씻고, 밥을 먹으러 올라갔다. 근데 올라 가자마자 엄청나게 대박 사건!! 거의 레스토랑 수준! 뷔페이다!! 내가 좋아하는 햄도 필수!! 정말 좋다. 밥을 먹고 숙소로 다시 들어갔다. 다행스럽다. 배가 출발했다. 히히히 좋다. 운이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번개가 치면 절대로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랑 같이 여행하는 분께서 우리 가족을 찍어주셨다. 가이드가 이제 저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올라가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다. 그런데 나오라는 키스 바위는 안 나온다. 키스 바위는 바위 모습이 키스하는 거 같다고 키스 바위이다. 바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 (참고로 베트남의 바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키스 바위) 이제 키스 바위이다. 와 정말 이쁘다. 이제 물고기처럼 생긴 바위 모습도 보일 텐데…. 가이드가 이제 물고기가 바다에서 뛰어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진짜 물고기인 줄 알고 바다만 보았다. 이제 물고기 바위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물고기가 안 나와서 바다만 보다가 바위가 물고기처럼 생긴 것을 알고 물고기 바위를 찍었다. 정말로 이쁘다. 얼마 안 있으면 물고기의 머리가 잘릴 것이다. 이 물고기 바위와 키스 바위는 잠시 동안 붙여져 있는 것이다. 엄마랑 아빠는 키스 바위에서 예쁜 사진 찍는다고 키스 바위 앞에서 키스를.. 그래도 이쁘게 나왔다.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왔지만. 킥킥.

다른 분들은 스피드 보트를 타서 이동한다. 근데 우리 가족은 엄마가 무섭다고 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 중간에 배에서 기념품을 팔고 계시는 사람이 있었다. 새가 너무 이뻐서 이 새를 한 마리 샀다. 이 새는 내 손가락에 올려두면 붕붕 뜬다. 이 새의 부리 쪽으로 올려두면 말이다. 엄마 사진도 찍었다. 정말 잘 나왔다고 엄마가 많이 찍어달라고 해서 많이 찍어줬다. 내가 늘 하는 귀요미 사진!! 엄마한테 시켜서 엄마가 예쁘게 나왔다.

앗!! 지나가다가 원주민도 만났다. 절대로 땅을 밟을 수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에서 산다. 이제 석회 동굴 도착!! 가이드 분께서는 석회동굴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하신다. 안 그러면 뱀한테 물린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뱀은 고개를 들어야 더 잘 보이지 않나??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 봤다. 언제는 고개를 들어도 되고, 들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니었다. 하하하!!! 아빠가 위에 있는 뾰족한 것이 뱀의 이빨처럼 콱 무는 거 같다고 그렇다고 하신다.

중간쯤 왔을 때 계단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신다. 엄마 손을 꼭 붙잡았다. 이제 더 고개를 숙여야 한다. 진짜 힘들군.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밖을 보았다. 근데 또 계단. 하하하!! 진짜 미끄러웠다. 힘을 써서 올라갔

다. 와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다. 호수! 어, 내 얼굴이 검정색이네. 호수가 엄청 아름답다. 사실은 이런 석회동굴과 키스바위 같은 거는 모두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다. 껍데기를 동굴 바닥에서 주로 많이 봤다.

배는 티톱섬으로 들어갔다. 티톱섬 위를 구경하려면 계단을 타야 한다. 428개 정도의 계단을 탄다. 그렇지만 아빠와 나는 이 정도가 기본이다. 20분만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늦게 오셨다. 올라갔는데 덥기만 하지 힘들지는 않았다. 올라 간 것이 후회가 안 되었다.

아빠랑 노래 부르면서 절반 왔을 때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와 나를 이쁘게 찍을 수 있었다. 다른 분들은 쉬엄쉬엄 왔나. 우리가 내려올 때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밥을 먹는다. 히히히! 좋다. 배에서 먹었는데 와! 따봉! 회에다 꽃게에다가! 완전 천국이다. 회는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밥을 먹도 또 먹고 하다 보니 배불렀다. 그래서 나는 같이 여행하는 분께 노래를 들려주었다. 3곡쯤 불렀을 것이다.

배 여행을 마치고 호텔로 올라갔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 가족이 놀 동안 우리랑 같이 여행하는 분들은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을 것이다. 아, 오늘 허리가 끊어 질 듯 아픈데! 그래도 편하게 침대에 누워있으니 만족한다. 그 뒤로 삼겹살을 먹었다. 삼겹살이 질겨서 많이 못 먹었고, 배도 불러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

이제 야시장을 간다. 거기에서 일단 부채를 샀다. 그 뒤 베트남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인형을 샀다. 그 뒤로 예쁜 것이 별로 없어서 못 샀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말 피곤하니까 편히 자야 내일 더 잘 놀 수 있을 테니까 숙소로 빨리 들어왔다. 내일 보자! 베트남이여!

벌써 아침이 밝았다. 오늘이 제일 기대된다. 왜냐하면 엔뜨산으로 가기 때문이다. 계단을 타는 걸 제일 좋아한다. 기대한 대로 붕붕이 카를 타고 이동한다. 우리 가족은 제일 뒷좌석에 탔다. 맨 뒤 자석은 정말로 무섭다. 속도가 정말 빨라서 어질어질하다. 그런 뒤에 케이블카로 이동했다. 케이블카 아래가 뚫려있어서 다리가 시원했다. 이제 도착했다.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다. 그렇지만 꼭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 가이드는 빨리 가자고 하셨다. 그래서 빨리 갔다. 가이드와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느리게 오셨고, 엄마도 정말 느리게 왔다. 빨리 올라온다고 하시더니만.. 나와 아빠가 항상 공동 1위이다.

먼저 올라와서 구경을 하였다. 그때 모든 분이 올라오셨는데 가이드가 이거는 연습이라고 하시면서 제2차 계단을 보여주셨다. 모든 분들은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절반쯤 올라와 있었다. 그때 가이드가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누가 저 아이 좀 말려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웃으면서 올라갔다. 올라갔더니 물이 흘러내려왔다. 길이 정말 미끄러웠다. 그래도 다행히 전부 다 구경할 수 있었다. 빨리 내려가고 싶었는데 미끄러워서 엄마 손 꼭 붙잡고 가라고 가이드가 말씀하셨다. 같이 내려갔는데 엄마가 정말 거북이처럼 늦게 왔다. 나는 엄마를 끌고 갔다. 엄마는 빨리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난 엄마처럼 달팽이처럼 느리기는 싫었다. 토끼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보통 걸음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엄마는 정말 느려서 답답했다.

내가 그렇게 끌고 가서 나와 엄마는 공동 1위로 내려왔다. 내 덕으로 엄마가 빨리 내려온 건가?? 히히히 내 덕 좋아하시네!! 히히 어쨌든 나와 엄마는 제일 먼저 내려와서 아빠께서 조각인형을 사주셨다. 가이드가 좋겠다고 하신다. 정말 빨리 내려왔다고. 킥킥!! 근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 어쨌든 우리 가족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갔다. 너무 출출했다. 이제 노래가 들리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제 노래 소리가 난다. 이제 도착이다. 이제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이제 출발할 것이다. 하롱베이에서 하노이로 출발! 중간쯤에 내렸다. 휴게소에 들린 것이다. 거기에서 물소로 만든 새 모형이 있었다. 부모님은 비싼 가격으로 물소로 만든 새 모형을 샀다. 거기에서 멤 머이라는 술을 부모님께서 사셨다. 이것은 먹으면 목 넘김이 좋은데, 맨 마지막은 누룽지맛이다. 과자도 샀다. 그 이후로 살 것이 없어서 사지 않았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탔다. 근데 또 내렸다. 여기는 라텍스라는 곳이다. 메트리스와 베게, 이불 등을 천연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다. 여기서 차를 두 잔 마셨다. 근데 이 두 잔이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제일 맘에 드는 것은 팔베개로도 사용 가능한 강아지 베게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면 팔에다 끼워서 팔베게로 쓸 수 있다. 정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 정말 아쉽다. 그리고 메트리스와 베개에 한 번 누워보았다. 근데 정말 편하다. 그런데 우리 집 것같이 포근함은 주지는 않는 거 같다.

이제 72층 전망대로 간다. 아까운 것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는 것이다. 계단을 타고 가고 싶었다. 아깝다. 그렇지만 올라가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정말 좋았다. 사진을 실제처럼 찍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이제 쎈레스토랑으로 이동한다. 쎈레스토랑은 우리는 편한 복장으로 가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 값이 비싸니까 많이 가고 싶어하고, 갈 때는 드레스를 입고 간다. 남자들은 양복을 차려 입고 나간다. 우리는 싸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서 여기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근데 가면서…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아직 가려면 10분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서 참기로 했다. 근데 참고 참고 참아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빠한테 일단 레스토랑에 가면 먼저 화장실을 찾을 거 같다고 말하고, 더더욱 참았다. 손잡이를 꽉 잡고, 어떤 물건을 비비 꼬아도, 점점 심해져갔다. 전에 차를 2개 마셔서 그런 가 보다. 아빠한테 다시 말했다. 그러더니 아빠가 가이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가이드가 조금만 가면 있다고 말씀하셨다. 1분도 안 된다면서 맨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다. 너무 급해서 조금만 있어도 싸 버릴 거 같은데, 그래도 나는 참고 참으면서 정상적으로 걸었다.

이제 도착이다. 나는 아빠 손 꼭 붙잡고, 뛰었다. 이제 화장실이다. 이거 싸는데 30초는 되었을 것이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간다. 와 맛있는 것이 진짜 많았다. 그 중에서 양고기가 제일 맛있어 보였다. 먹다가 더 먹고 싶어서 아빠한테 말했다. 그러더니 아빠께서 양고기 사냥하고 오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정말 많이 먹은 거 같다. 여기서 살 찐 건 아니겠지? 와서 몸을 재어 보았는데 1kg이 쪘다는 소식이.

이제 도시로 들어갈 것이다. 가이드가 마스크를 주셨다. 오토바이가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베트남은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탄다. 아기를 옆구리에 끼고 다녀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나 보다. 끼기는 싫었지만 부채를 펴고, 마스크를 꼈다.

이제 스트리트카를 탈 것이다. 기대되는 맘으로 타러 갔다. 가자마자 우리 차가 아니라서 덥긴 하지만 참았다. 이제 온 것인가?? 그래도 이번에는 뒷 좌석을 타지 않았다. 참고로 스트리트카는 붕붕이카이기도 하다. 붕붕이카 탔을 때 뒷좌석에 타서 아찔했는데 이번에는 뒷좌석에 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뒷좌석에 타시는 분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신다. 정말 소리가 크다. 왜 소리를 질렀냐 하면 오토바이가 자꾸 뒷좌석으로 달려들고, 도시의 소리가 정말 시끄러워서다.

이제 호수가 나왔다. 모습은 아름다웠다. 거기는 남녀 데이트장소로 유명하다. 이제 도시로 들어왔다. 몹시 냄새가 고약했다. 막 도시가 난리였다. 빵빵소리가 난다. 정말 시끄러웠다.

한 곳에 멈춰 섰다. 여기는 프랑스 성 요셉성당이라는 곳이다. 밤이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개가 성당 앞을 지키고 있었다.

와!! 모습이 아름답다. 여기는 시각을 알릴 때 항상 종소리를 낸다. 왠지 옛날의 중기시절 때 항상 나던 옛날 종소리 같았다. 시계는 정말 컸다. 나는 여기에 무슨 유령이 나타날 것 같았다. 너무 썰렁했었다. 나는 개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개가 지키고 있어서 더 무서웠었다. 이 요셉성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옛날에 전쟁이 났었을 때 수많은 성당들이 부서졌다. 단 하나!! 요셉 성당만이 안 부서져서이다. 이제 숙소로 이동할 것이다. 정말 더웠다. 걸어서 이동하니 더더욱 더웠다. 이제 들어왔다. 열쇠를 받고 숙소로 들어왔다. 전

의 숙소보다 더 세련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집처럼 편안함은 느낄 수 없었다. 너무 피곤하여서 빨리 잤다.

내일이면 베트남과 이별이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이 들었고, 여기가 포근하다. 떠나기는 싫지만 집에 금붕어들과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기에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 아빠의 작은 계약으로 이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베트남이여! 내일 일정도 잘 부탁해!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간다. 한국으로 가면 베트남이 그립겠지만 여기보다 한국이 더 좋다. 이제 버스에서 공항으로 왔다.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다. 처음에 비행기가 덜컹 덜컹거려서 놀이기구 타는 거 같고, 떨어질 까봐 겁이 났었다. 그래도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해서(?)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제 도착했다. 많이 아쉽지만 2년 후에 다시 가면 된다. 6시 40분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고, 이제 다시 집으로 향했다.

나는 처음으로 여행을 해서 기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다. 잘못 갈 수도 있고, 돌아오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잘 도착해서 마음만은 좋다. 그리고 도시에는 항상 오토바이에 아기들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부모님이 있던데 그러면 아이들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 베트남은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오면 멈추는데, 베트남은 반대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 같은 경우에 사람이 오면 멈추지 않는다. 또 배를 탔을 때 원주민을 봤는데 작은 배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 물고기만 먹는 셈이다. 이들은 절대로 육지로 올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과 언어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나. 그렇지만 나는 의견이 다르다. 각자 사는 방식과 언어가 달라도 같은 사람이고, 먹는 것도 다르지만, 항상 먹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원주민이 아기를 배에 태우던데 그러다가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 새 생명이 죽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원주민이 육지로 올라와서 살면 좋겠다.

수하물 찾는 곳에서

초등부 장려상 • 시 / 안시은

빙글빙글
도는
회전초밥처럼

빙글빙글
도는
짐 가방들

빙글빙글 도는
회전초밥 중
맛있는 새우초밥을
기다리듯이

빙글빙글 도는
짐 가방 중
나의 짐 캐리어를
기다린다.

새우초밥을 찾아
집어 드는
즐거움

나의 캐리어를
집어 드는
즐거움

탑승 5분 전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김준서

지난 해 겨울 방학 때이다. 고3이 될 큰 누나를 위해 아빠가 5박 7일간의 싱가포르 여행계획을 세운 것이다. 아빠는 직장의 바쁜 일 때문에 이번 여행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엄마와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이렇게 넷이서 싱가포르로 출발을 하였다. 6시간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는 겨울이었는데 6시간 만에 계절이 바뀐 여름에 와 있었다. 더위를 무척 타는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마에서 발끝까지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내가 더위 타는 것을 아는 듯 바람이 먼저 와 반겨주는데, 휴~ 더운 바람 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택시로 호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큰 누나와 작은 누나의 영어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었다. 누나들이 간단한 영어로 기사님과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다음 여행 때는 내 영어실력을 뽐내야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는 사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무작정 꼭대기 층으로 달려갔다.

여행 프로그램이나 싱가포르 안내책자에서 자주 보았던 인피니티 풀의 정경이 펼쳐졌다. 따뜻한 햇살에 이미 덥혀진 수영장에서 누나들과 나는 피곤이 싹 가심을 느꼈다.

우리는 그 후에도 계속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든스 바이 더베이, 머라이언 파크, 센토사 섬, 여러 사파리와 국립 미술관등을 맛있는 음식과 싱가포리안들의 넉넉한 인심 속에 싱가포르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이제 5박 7일의 여정을 마치고 아빠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왔다.

창이 공항 화물칸에 짐을 싣고 탑승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즈음, 공항 방송실에서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와 게이트를 안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준서야, 너 가방 어디에 있니'?

나는 엄마의 물음에 손보다 머리가 먼저 등으로 가는데 '헉' 가방이 없었다.

가방 안에는 기념품과 여권, 탑승권이 들어있었다. 엄마, 큰누나, 작은누나 모두 동공이 확장되어 눈이 먼저 가방을 찾으로 나설 기세였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눈빛 만큼이나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타고 내려 왔다. 엄마와 누나들은 각각 혹시 식당에서, 아니아니 기념품 가게에서 서로들 머리를 굴리며 내 가방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 기념품 가게로 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내 가방의 흔적도 없었다. 우리는

재빨리 식당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스캔하는 그 순간 함성을 이렇게 지르고 싶었다. "만세!"

나는 내 가방을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그때였다. 엄마가 '5분 전'

엄마의 외침 소리에 우리는 앞 뒤 볼 시간도 없이 탑승구를 향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다다다다다....., 엄마는 또 다시 " 빨리 더 빨리"

탑승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도 않는다. 뛰고 또 뛰었던 기억 뿐이다.

느긋했던 싱가포르의 일정이 끝났다는 것이 비로소 느껴졌다. 엄마와 누나들의 잔소리와 꿀밤세례로 이 소동은 마감 되었지만, 나는 안다. 앞으로 두고두고 추억이 될 것이란 것을...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비행기가 그은 밑줄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도연

창문 밖 하늘 속으로
긴 꼬리를 매단 비행기가
하얀 밑줄을 긋습니다.

바람이 빗자루를 들어 쓸어보고
햇살이 마른걸레를 들어 닦아보지만
비행기가 그어놓은 밑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밑줄위에 그리운 사람, 보고픈 사람의
이름을 써야하는가 봅니다.

비행기가 그어놓은 밑줄위로
가보고 싶은 도시의 이름을
잔뜩 채웠습니다.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한유희

우리 가족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다.

"유희야, 넓은 세상을 보고 자라야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거란다."

엄마께서 나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엄마는 외식을 줄이는 대신, 적금을 들어서 일 년에 두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다닌다. 알뜰한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많은 나라를 여행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 하마터면 가지 못할 뻔한 태국여행을 지금부터 이야기 하려고 한다.

엄마, 아빠와 함께 다녔던 여행을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게 되었다. 태국을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던 할머니의 소원을 엄마께서 들어주신 거였다.

여행의 마술 가루를 맞은 우리 가족들은 헤벌쭉 웃으며 공항으로 향했다. 설레는 마음을 즐거운 수다로 풀었다.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위해 할머니는 아주 멋진 모자도 사셨다고 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들은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공항으로 들어가니 여행을 가기 위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 60년 인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보고, 이제껏 뭐하고 살았나 몰라."

할머니의 툴툴거리는 소리에 엄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끼리 여행을 다닌 것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꼭 함께 가겠다고 했다.

우리들은 전자 티켓팅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

"드라마에서 보던 거랑 다르네. 기계에서 표가 나오는 거냐?"

어린아이마냥 할머니는 모든 것을 신기해 하셨다. 나도 할머니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티켓팅을 하겠다고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되었다.

"엄마."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티켓을 출력하고 있는 중이었다.

"엄마, 인증이 안 된대."

"뭐? 왜?"

엄마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엄마의 티켓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의 티켓도 출력되지 않았다.

"어? 왜 인증이 안 되는 거지?"

난처해하는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엄마는 세 번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천공항 사무소로 갔다.

"여권 만료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갱신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그제 서야, 엄마는 여권에 적혀 있는 날짜를 한참이나 보았다. 여행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엄마의 나의 여권은 만료일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은 해외여행을 한 두 번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제대로 체크 안 한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빠가 화가 난 듯 했다.

"일단 일회용 여권을 신청하세요. 비행기 시간까지 제대로 맞추어 질 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의 말에 엄마와 나는 일회용 여권을 신청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도 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 드리지 말자는 아빠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엄마의 표정을 속일 수는 없었다.

"기다려 보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오늘만 날인가……. 에휴."

아빠가 너무 화를 내니까, 할머니가 엄마를 달래 주었다. 할머니의 표정은 달콤한 사탕을 빼앗겨 버린 동생처럼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여권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당신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녀와요. 우리는 여권 나오는 대로 항공권 예약해서 따라 갈게요."

"무슨 말이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우리는 괜찮다."

화를 삭이는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께서 대답하셨다. 그때였다.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 가득 끼여 있던 먹구름 사이로 환하게 웃는 해님이 얼굴을 비쳤다.

엄마와 나는 서둘러 일회용 여권으로 티켓팅을 했다.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서

야, 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두근거리던 심장도 차분해졌다.

"할머니, 우리 힘들게 떠나는 여행이니까. 신나게 놀고 와요."

나의 너스레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 했다.

"이번 일로 덜렁거리는 성격이 고쳐질 지도 모르잖아요. 아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말에 아빠를 꽁꽁 얼게 했던 화가 사르륵 녹았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게이트로 향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한다. 공항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 때문에 생겨버린 습관이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윤정원

오늘 아침은 다른날보다 마음이 설레인다.
비행기를타고 제주도로 간다는것에,,,
심장도 마구뛴다 쿵쾅쿵쾅!!!

공항에 도착해 티켓을받고 줄을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흐른다
내 머릿속은 온갖 상상속에 빠져들고있다.

비행기가 출발한다. 휭~~~
활주로에 비행기가 달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연날리기에 연모습 같다.

하늘에 떠 있는 느낌 마치 손을 내밀면 구름이
손에 만질 것 같이 하얀모습이 보인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내모습을
머릿속에 스케치해본다.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김민서

2016년 여름 어느 날,

일본 오사카의 날씨가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아빠를 뺀 나머지 우리 가족은 여행가방 속에 차곡차곡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비행기가 타기 싫다고 이번 여행에서 빠지신 아빠는 얼굴 표정이 내내 안 좋으셨지만, 우리는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냥 즐거웠다.

나는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 불안하고 아쉬웠지만, 난생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잔뜩 들떠있었다. 그 이유는, 여행지가 일본이고, 그곳에는 내가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빠 없는 해외여행이 내심 불안하신 엄마는 성인이 된 외사촌 언니 두 명을 함께 여행에 동행시켰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서야 했다. 아빠는 조심히 잘 다녀오라시며 안전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셨다. 그 즈음에 일본에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뒤라, 마음이 불안불안 하신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들은 손을 흔드는 아빠를 뒤로한 채,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공항으로 가는 동안 내내, 내 동생은 아빠와 함께하지 못한 가족여행에 대한 서러움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울었다.

내 마음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화재를 다른 얘기로 돌리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우리가 떠난 빈집에 혼자 앉아 걱정을 시작하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니 죄송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아빠는 다니는 회사에서 가끔씩 해외출장을 나가는 편이셨는데, 어느 날인가 비행기가 난기류에 심하게 흔들려서 그때 너무 놀라 비행기 타는 게 정말 두려워졌다고 하셨다. 회사에서 꼭 가야 하는 출장 외에는 되도록 비행기를 타기 싫어하셨고, 해외여행을 싫어하시는 것 같았다.

해외여행이 너무 흔해져버린 요즘,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친구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아빠의 힘든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였지만, 내 동생과 나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은 언제쯤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하며 투덜투덜 조르고, 또 졸라댔다. 사실, 회사일 때문에 해외출장은 가시면서도, 가족여행은 안 가시겠다고 고집

하시는 아빠가 우리는 늘 야속하고 불만이었다. 그런 우리들을 달래다 지친 엄마께서, 아빠를 빼고 셋이서라도 가까운 일본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을 하셨고, 아빠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우리도 드디어 해외여행을 가는 거야~"하면서 팔짝팔짝 뛰었다. 어른은 엄마 혼자여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외사촌 언니들이 여행지에 대한 사전정보나, 여행사 예약, 기타 등등을 앞장서서 도와주어, 여행 준비는 크게 무리 없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멀리서 인천국제공항 건물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처음 본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내 입이 쩍 벌어지게, 멋지고, 웅장하고, 위엄 있는 자태를 한껏 뽐내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 내 동생과 나는 공항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와~"를 외쳐댔다.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산 증거라는 엄마의 설명을 듣고, 내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지는 것같이 자랑스러워졌다. 우리는 말로만 듣고, 텔레비전에서나 보아왔던, 면세점에도 들렀다. 반짝반짝 예쁘고, 멋지게 잘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동안, 집에 혼자 계시는 아빠 생각은 점점 가물가물 잊어가고 있었다.

길게 늘어서서 티켓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순간,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이 꼭 꿈만 같았다. 기다리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는 꿈에서나 그려보던 비행기에 올랐다. 이윽고 비행기가 정말로 동요 속 한 구절처럼,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올라갔고, 온 세상이 우리들 발아래에서 아득히 멀어져 갔다. 내 마음은 곧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야호'를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내 동생은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꼭 먹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는 잘 먹지도 않던 '고추장 불고기 비빔밥'이 나왔고, 한 그릇 뚝딱 비울만큼 꿀맛이었다. 비행기에서 알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있을 때, 미소가 예쁜 승무원 언니들이 상냥하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주문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해 주었다. 장래희망이 학교선생님이었던 나의 꿈을 바꾸고 싶어질 만큼, 멋지고 근사해 보였다. 비행기가 일본 하늘에 도착되어질 때쯤, 나는 그제서야 해외여행에 대한 실감이 났다.

일본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일정을 함께 하기로 한 여행 가이드의 안내로 작고 깨끗한 식당에 들러 초밥이 나온 점심을 먹었다. 우리나라에서 먹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워낙 초밥을 좋아하는 편이라, 맛있게 먹고, 다음 코스인 사슴이 많다는 '나라공원'부터 구경하기로 하였다. 나라공원은 여러 마리의 사슴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잘 정리된 정원과 가옥들이 무척 인상 깊었다. 우리가 여름에 왔지만, 봄에 오면 더 멋지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덥고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참 평화로워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다음 발길은 오사카에 오면 꼭 가보아야 한다는 '오사카 성'으로 돌렸다. 오사카의 상징인 '오사카 성'은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달성한 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성으로 1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1583년에 축성을 시작했고, 도요토미가 사망한 후인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공격으로 소실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금박 장식으로 뒤덮인 호화로운 모습이었으나, 그 이후에 소실과 재건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의 건물은 1931년에 콘크리트로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오사카 성의 높이는 모두 8층으로 높이 55m의 누각으로 되어 있고, 1층에서 7층까지의 역사자료관에는 무기와, 갑옷, 복원 모형, 민속자료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 눈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약 6만 m의 잔디공원이 있는 성과 성 주변의 공원에는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봄에는 벚꽃이 장관이라고 한다. 다음 여행엔 꼭 아빠랑 함께 봄에 와 보고 싶어졌다. 우리는 8층 꼭대기까지 올라가 오사카 공원과 주변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사진에 담았다.

여행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패키지로 정해 놓은 시내의 호텔에 짐을 풀었다. 외관에서 풍기는 것과는 달리, 호텔 방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좁았다. 화려한 호텔 방을 상상했던 내 동생과 나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일본의 검소한 국민성을 엿볼 수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았고, 우리도 이런 점들을 배워야겠다고 느껴졌다. 짐을 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아빠와의 전화 통화를 시작하였는데, 바다 건너 이국땅에서 들어보는 아빠의 목소리는 더 애타게 들려오는 것 같았고, 우리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 벌써 보고 싶어요……'같이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나면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났다.

그 다음날은, 내가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서 설레었던 그곳!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가는 날이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터라, 사실은 여기를 가고 싶어서, 일본여행을 졸랐는지도 모른다. 이곳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장되었고, 오사카를 대표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를 테마로 한 탈 것과, 여러 쇼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해리포터'존이다. 물론 미니언즈 파크도 엄청 좋았지만, 무려 3시간이나 대기해야 하는 '해리포터 존'은 그냥 '무아지경'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었다. 그리고 책 속에 등장하는 마을 호그스미드가 보이면서, 익숙한 음악이 귀에 들리자, 나는 흥분되기 시작했고, 해리포터가 마법학교 호그와트로 갈 때 타는 5972 호그와트행 급행

열차 앞에서 기념촬영도 했다. 날씨가 상당히 덥고 습했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라, 더욱 기분이 좋았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거리 퍼레이드는 여름이라서인지, 물총을 관객들한테 뿌리기도 했다. 화려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퍼레이드는 더위에 지친 여행의 피로를 한 번에 날려주는 것 같이, 멋진 퍼포먼스로 기억에 남았다.

해가 완전히 질 무렵에서야, 해리포터 존에서의 일정을 아쉬운 마음으로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너무 더워, 옷은 땀에 완전히 다 젖었고, 길에서 사 먹은 음료수 값도 만만치 않았다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아빠에게 안부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더욱 더 목소리가 잠기신 우리 아빠……. 뉴스에 나오는 일본 지진 기사를 보고, 너무 걱정이 되어,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며, 한숨을 쉬셨다. 우리가 잠깐씩 아빠를 잊고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도 아빠는 우리 걱정에 애가 타시는구나! 생각하니, 우리와 함께 여행을 오고 싶으셨을 아빠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울컥해져 왔다.

다음날 아침, 여행 마지막 날이자, 집으로 돌아가 아빠를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일찍 눈이 떠졌고,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였다. 간단히 조식을 먹은 후 우리는 시내구경을 하러 나갔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구경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꽤 비싼 가격에 조금 놀랐지만, 기뻐할 친구들의 표정을 생각하며, 적당한 물건으로 고르고,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일본의 거리는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무척 인상적이었다. 특이한 것은, 거리에는 군데군데 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곳이 많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이 보였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본받아야 할 점이며, 일본의 국민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오사카 시내의 한 백화점 건물에 크게 걸린 우리나라 유명배우의 사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즐거웠고, 말로만 듣던 '한류열풍'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왠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으쓱해졌다. 마지막으로, 천원샵에 들러 필요한 쇼핑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오사카~ 안녕" 아쉬운 우리의 해외여행 일정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활주로에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나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젠 제법 비행기에 익숙해진 나를 발견하고, '픽'웃음이 나왔다. 또다시 비행기는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고, 내 마음은 벌써 아빠 곁으로 날아가 있었다. 공항에 마중 나오신 아빠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자,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다. 아빠는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꼭 안아주시며 맞아주셨고, 아빠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엄마는 괜히 "우리 없이 지내니까, 편했나 봐요~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하고 툭 던지시며 웃었다. 마

음에도 없는 말씀인 줄은 알았지만, 혹시나 아빠가 서운해 하실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번 여행이 나와 내 동생에게는 처음으로 가보는 뜻깊은 해외여행임은 틀림없었지만, 아빠가 없는 여행은 완전한 가족여행이 아닌, 반쪽의 행복과 추억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값진 여행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도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아빠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벚꽃이 만개한 '오사카 성'의 봄 정원을 손 맞잡고 거닐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최보경

첩첩산중 작은 시골 마을에 사셨다는 증조할머니께서는
열차를 보신적도 타 보신적도 없다고 한다.
외할머니께서 시집을 가시던 날
증조할머니께서는 기필코 열차를 태워 보냈다고 한다.
어미의 삶을 닮지 말고 꿈을 향해 힘껏 달리라고.

바램과는 달리 외할머니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셨다.
엄마께서 시집을 가시던 날
외할머니께서는 기필코 비행기를 태워 보냈다고 한다.
어미의 삶을 닮지 말고 꿈을 향해 훨훨 나르라고.

엄마가 나를 낳으시던 날
외할머니께서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가 둘이 되었다.
유치원버스도 안내장 확인도 숙제 검사도 늘 함께 하셨다.

엄마가 대학원 졸업을 하시던 날
외할머니께선 활짝 웃으시며 많이 기뻐하셨다.
그때는 몰랐다.
그 웃음 뒤에 깊숙이 자리잡아가는 주름들의 사연을.

경비실 앞에는 더 이상 외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지만
여전히 옅은 미소로 나를 반기신다.
한밤에 슬피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서운 예감이 내 몸을 감싼다.

외할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던 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가셨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증조할머니께 간절히 기도한다.
외할머니를 태운 비행기가 당신 옆은 아니길.

최고의 여행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박준휘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그렇게 손꼽아 왔던 대망의 그날. 이번엔 자유여행이다!

남은 짐을 마저 싸고 우리 가족(외할머니,외할아버지,엄마,아빠,나)은 저번에도 탔기 때문에 눈에 익은 숫자 '6018'공항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제일 먼저 짐을 부쳤다. 큰 캐리어 4개 하나하나에 붙은 수화물표 사이에 끼워져 있던 파란종이(Morning calm 종이)가 신기했다.

이제 식사를 하러 go-go!

모닝캄 회원이셨던 할머니 덕분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처음으로 그곳을 이용해 보았는데 활주로도 훤히 내려다보이고 왠지 더 설레어서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드디어 우리는 런던행 대한항공 A380(KE 902편)을 탔다.

타자마자 난 영화시청모드 on!

조금 영화의 재미가 떨어지면 게임도 하고.

미리 신청한 어린이 기내식은 다른 승객들 보다 일찍 나왔다. 그 맛은 그저 그랬지만 햄버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는 있었다. 맛과 종류는 작년에 이용했던 아시아나 항공이 조금 더 좋았다. 그래도 엄마, 아빠 기내식을 먹어본 결과 일반 기내식은 대한항공이 더 맛있었다.

할머니와 둘이서 기내 면세점 구경을 갔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혼자 2층에 올라가면 승무원 이모가 못 가게 할까 봐 못 올라갔다. 승무원 이모께 묻기라도 하던지, 그냥 확 올라가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할 걸 그랬나... 난 퍼스트 클래스가 궁금했는데...

나는 잠도 거의 안 잤는데 벌써 히드로 국제 공항 도착!

저번에도 그랬지만 히드로 공항 통로는 사람은 많지만 좁고 추워서 기분은 좋은데 왠지 휑하다. 통로, 검색대를 따라 나가보니 넓은 공항이었다. 당연히 인천공항 보다는 너무 작지만.

런던에서 4박 5일간 여행하며 에어 비앤비를 이용했다.

세계 시간의 중심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할아버지께서 발견하신 영국 고사리!

나는 그걸로 쇠고기국을 끓여먹고 싶었는데 버리고 와서 아까웠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여행 내내 할머니께서 한국음식을 해주셔서 숙소에서는 유럽 느낌이 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게트윅 익스프레스를 타고 게트윅 공항으로 갔다.

이지젯(easy-jet) 비행기를 타고 제네바 공항으로 갔는데 기내식이 유료라서 음식을 사 먹어야 해서 이상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샤모니까지 가는 미니버스를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다가 난 너덜너덜해졌다. 버스기사가 약속을 어겨 공항에서 약 세 시간을 기다렸으니 그럴 수밖에. 다음 날, 비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가고 싶으셨던 몽블랑엔 올라가지 못했다. 할아버지께서 속상하셨을 것 같다.

샤모니 다음으로 안시, 리옹, 남프랑스도 여행하고 우리는 파리로 가기 위해 니스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정이 많이 든 렌터카부터 반납하고, 이번에도 이지젯을 이용해서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다.

마지막 여행지 파리는 런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엔 패키지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이라 개선문도 밤에 올라가 보고, 에펠탑을 보며 회전목마도 타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파리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왔다.

이제 한국행...

르 버스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큰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갔다.

너무 아쉬웠다.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다시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다. 뭔가 이상했다 . 멋진 유럽차들은 다니지 않고 주변에는 한국 말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근사한 서양식 건물은 커녕 서울 시내의 높은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난 강서구의 작은 '염창동'에 와 있었다. 유럽에 하룻밤만 더 있고 싶었다.

그래도 저번 여행보다 더 의미있는 여행이었다. 행복했다!

나의 첫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심소은

부웅~
비행기가
떠올랐다.

우웅~
내 귀가
이상하다.

으앙~
울음을
터트렸다.

내 귀에 살포시
내려앉은
따뜻한 종이컵

내 마음 살며시
내려놓은
편안한 비행기

친절한
승무원 언니
고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초등부 장려상 • 시 / 정진영

비좁은 통로에서 승무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네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네

자는 사람, 기내식 먹는 사람
부적대는 비행기 안 모습

창문 밖으로 구름이 보이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네

구름이 솜사탕 처럼
생겨있네
한번 잡아 보고 싶네

구멍

초등부 장려상 • 시 / 신윤재

밤하늘 구름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
그 곳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는 다른 세상을 보았다.

바다에도 하늘에도 별이 가득했다
그곳은 마치 평화롭고 고요한 별들의 세상.
우주 같다.

비행기는 마술사

초등부 장려상 • 시 / 강다현

비행기는 마술사에요.
비행기에 타고 한숨 코~자면
짠!! 하고 중국에,
짠!! 하고 미국에,
짠!! 하고 일본에 와 있어요.

비행기는 마술사에요.
창문을 쓱–내리면 어두컴컴,
창문을 쓱–올리면 몽실몽실 구름이
짠!! 하고 나와요.

제5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한국항공협회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
KCA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항공협회
TEL: 02-2669-8700 FAX: 02-2662-5590(협회)
www.contest-airtranspor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rprize